경기다문화뉴스

The Gyeonggi Multicultural Family News

PAPAYA STORY

외국인주민을 위한 토탈정보서비스 파파야 스토리

www.papayastory.com

지금 스마트폰에서 papayastory를 검색하세요

제285호 2025년 01월 16일 (격주간) 발행인 겸 편집인 송하성 등록번호 경기 다 50340 전화 031-8001-0211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444, 7층(쥬네브 썬월드 메디컬동) 8호
인쇄인 장용호 경기도 부천시 수도로 164 (주)아이피디 / danews1@daum.net 후원계좌 경기다문화뉴스 110-408-662725 신한은행 <1쇄>

'가족상담서비스, 모든 가족을 위한 상담으로 건강한 삶 꾸려요'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가족 상담 전문기관으로 2025년 오랜 경험이 축적된 전문상담사를 위촉해 가족 상담 서비스를 시작한다. 가족 상담 서비스는 지역사회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도와주며, 궁극적으로는 건강한 가족관계를 유지해 가족공동체의 회복과 건강한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김영의 기자

경기도, 다문화가족에 최대 13% 국제특급우편 할인...외국인근로자 확대해야

올해도 고국에 우편물을 보내는 경기도의 다문화가족은 요금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경기도와 경인지방우정청은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도 다문화가족이 발송하는 국제특급우편(EMS)에 지난해와 동일한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어요.

할인 대상자는 △외국인등록증에 '국민의 배우자'나 체류자격 F-6-1, F-6-2, F-6-3으로 명시된 사람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결혼이민자, 귀화허가를 증빙할 수 있는 사람 △국적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람 등이에요.

국제특급우편(EMS) 요금 할인은 기본 10%이며, 인터넷우체국을 통한 간편 사전접수 시 추가 3%의 할인이 적용돼요.

할인 혜택은 경기도 소재 모든 우체국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상업 목적으로 대량 발송하는 경우는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신청자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우체국에서 간단히 신청할 수 있어요. 1588-1300

할인혜택 제공, 확대해야

현재 경기도내 다문화가족은 지난해 기준 35만 8,000여 명으로, 2년 전보다 1만 5,000여 명이 증가했어요. 지난해 경기도는 3,000여 건의 국제특송에 대해 건당 약 6,600원, 총 1,900만 원의 요금할인을 지원했어요.

김원규 경기도 이민사회국장(사진)은 "다문화가족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사회적 통합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어요.

경기도는 향후 지원 대상을 외국인과 유학생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경인지방우정청과 협의할 계획이에요. 경기도 외 서울 등 전국의 많은 지역이 외국인근로자에게도 동일한 할인혜택을 부여하고 있어요. 경기도도 국제특급우편 할인 혜택 확대를 서둘러야겠어요. 하지만 할인혜택이 확대된다고 해도 큰 인기를 끌기를 어려울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국제특송 많이 이용할까?

경기도는 지난해 3,000여 건의 국제특송에 대해 요금할인을 지원했다고 밝혔지만 실은 훨씬 많은 소포가 국제특송이 아닌 일반 선박(컨테이너)으로 보내지고 있어요. 국제특송은 보통 항공편으로 물건을 보내지만 일반 선박으로 보내면 비용이 훨씬 적게 들어요.

실제로 국제특급(EMS)으로 20kg 소포를 필리핀 마닐라로 보내면 133,000원의 요금이 나와요. 이 소포를 선박으로 가는 우체국 국제소포로 보내면 58,500원이 나오지요. 하지만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컨테이너로 이 물건을 보내면 고작 40,000원의 요금이 나와요.

외국인주민 입장에서는 일반 선박(컨테이너) 업체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필리핀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 이주민들이 이와 같은 형태의 민간 운송업체를 이용하고 있어요.

다만, 민간 업체를 통해 물건을 보내는 경우 사기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물건 파손 등의 위험성도 높아요. 분실 또는 파손된 경우 보상을 받기도 어렵구요.

이주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안전하게 고국에 물건을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좋겠어요. 파파야스토리

지자체별 지면 안내

헤드라인 1 경기도 2 수원 3~7 오산 8~9 구리 10~11 남양주 12~15 광주 16~18 양평 19 하남 20~21 평택 22~26 용인 27~29 연천 30 광명 31 화성 32~36

언어별 지면 안내

중국어(Chinese) 中文 6, 23, 31 베트남어(Vietnamese) Tiếng Việt 5, 9, 31, 33 러시아어(Russian) Русский 11, 13, 17, 21 태국어(Thai) ภาษาไทย 9, 26, 31, 33 영어(English) 7, 23, 28, 30, 34 일본어(Japanese) 日本語 15

섹션별 지면 안내

정책 Policy 1 생활정보 Information 6, 7, 8, 12, 17, 27, 30, 35 나의 학습 My Study 12, 16, 18, 21, 22 국제교류 26 보건 Health 9, 15, 20, 24, 30, 31 행사 Event 29 교육 Education 2 외국인근로자 Foreign Worker 24 출입국 Immigration 14 도서관 Library 10 복지 Welfare 3 학위취득 5, 13, 25, 34 교통 Transportation 23, 31 임신 출산 7, 11, 26 사회통합프로그램 21, 28, 33 국제우편 EMS 1 청년 15 육아 Child Care 36

올해부터 고등학생도 '경기 아이플러스 카드' 혜택 누린다

경기도,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발급기준 '18세 이하 2자녀 가정' 완화

경기도(도지사 김동연)가 올해부터 '경기 아이플러스 카드(경기도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발급대상을 막내 자녀 나이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한다.

막내 나이 기준이 '15세 이하'에서 '18세 이하'로 확대되면서 혜택받는 가구가 63만 가구에서 76만 가구로 13만 가구 늘어날 예정이다.

경기 아이플러스 카드는 다자녀가정에 다양한 경제적 혜택과 각종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와 농협이 협약을 맺고 운영 중인 사업이다.

주요 혜택은 ▲학원업종 및 병·의원 7% 할인 ▲GS주유소 이용 시 리터당 80원 할인 ▲커피전문점 5% 할인 ▲백화점 및 대형할인점 이용 시 5% 할인 ▲패밀리 레스토랑 5% 할인 ▲GS25, CU, 세븐일레븐 5% 할인 ▲경기도내 시군 공영주차장 할인 ▲협력가맹점 할인 서비스 등이다. 전월실적에 따른 할인한도 등 세부사항은 경기아이플러스카드 누리집(ggiplus.bccard.com)에서 확인 가능하다.

경기도는 고등학생까지 발급대상을 확대하면서 중·고등학생 학령기 자녀를 둔 가정을 위해 스터디카페 이용 혜택을 추가로 도입했다. 전국 200여 개 가맹점을 보유한 초심스터디카페의 온라인몰(초심몰)에서 경기아이플러스카드 인증 후 e카드(금액권)를 구매하면 결제금액의 10%가 마일리지로 적립되는 방식이다. 구매한 e카드는 초심스터디카페 경기도 내 전 지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적립된 마일리지는 e카드를 사용할 초심스터디카페 가맹점 내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경기 아이플러스 카드' 발급을 원하는 도민은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갖고 가까운 농협(농협중앙회 및 지역농협)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협력가맹점 할인 서비스는 음식점, 이·미용업, 의료기관 등이 경기 아이플러스 카드 소지자에게 자발적으로 할인해주는 서비스로, 모든 제조·서비스업이 협력가맹점 대상에 포함된다. 협력가맹점에게는 인증스티커 부착, 경기 아이플러스 카드 매출에 대해 카드가맹점 수수료 할인 혜택(신용카드 0.4%, 체크카드 0.2%)이 주어진다.

협력가맹점 가입을 원하는 사업장은 경기아이플러스카드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경기도 가족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송하성 기자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해

경기도가 올 1월 2일부터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플랫폼'(www.gbuspb.kr)에서 2025년 교통비 지원 신청·접수를 시작했습니다.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플랫폼'은 연중 수시로 가입과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한 시점이 속한 분기의 사용분부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6~18세 어린이와 청소년입니다. 사용한 교통비를 분기별 6만 원, 연간 24만 원 한도 내에서 100% 지원됩니다. 환급은 지역화폐로만 지급됩니다.

특히, 별도의 카드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본인이 사용하던 교통카드를 활용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한 번 신청하면 당해 연도 내에는 4분기까지 자동 신청됩니다.

송하성 기자

설 농축수산물 최대 30% 할인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 및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

경기도가 설 전후로 경기지역 생산 농축수산물을 구입할 경우 30%를 할인해주는 할인쿠폰을 지원한다. 폭설 피해 및 경기 불황 등에 따른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와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조치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이 사업을 위해 2025년 본예산에 250억 원을 반영했으며, 비상 민생경제 상황에 대응한 신속한 사업비 집행을 위해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위탁사업자로 지정하고 사업에 착수했다.

경기도 생산 농축수산물을 구입하는 모든 사람은 구매 금액의 30%(1인 1일, 최대 3만 원)의 할인혜택을 누릴 수 있다.

도내 사업 참여 대형·중소형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친환경매장 등 참여업체 선정이 완료되는 1월 20일경부터 31일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온라인몰인 마켓경기(https://smartstore.naver.com/marketgyeonggi)에서는 10일부터 할인 적용을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30% 할인된 가격으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고, 온라인 마켓경기에서는 할인 대상 결제 시 소비자가 쿠폰을 내려받아 할인받을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또 할인 지원 사업의 혜택이 농민과 소비자에게 직접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 기간 중 가격 모니터링과 원산지 관리감시 점검도 추진할 예정이다.

박종민 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경기도 농축수산물 판로 확보와 도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 품질 좋은 상품 공급 등 1석 3조의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며 "많은 분들이 경기도 농·축·수산물을 구매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다문화가족도 혜택 받을 수 있는 수원시의 다양한 복지시책 확인해요~

수원시, 대상자 완화해 긴급복지지원 강화하고 저소득층에는 난방비 10만원 지원한다

저소득층에 난방비 10만원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수급자·차상위 계층 2만 2600가구에 가구당 난방비 10만원(도비 50%)을 지원한다.

수원시는 경기도가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구당 난방비 5만 원을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난방비 5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3일 기준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차상위본인부담경감·차상위장애인·차상위자활·차상위계층확인) 2만 2600가구다. 경기도 노인월동난방비·장애인난방비 지원 사업 대상은 제외된다.

1월 23일까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자 신분증, 통장사본을 가지고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난방비 지원금은 대상자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누락자가 발생하면 2월 중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겨울철 한파, 물가 상승 등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난방비 지원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다양한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민들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수원시, 긴급복지지원 강화

수원시(시장 이재준) '2025년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대상자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금액을 인상해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을 강화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주 소득자의 실직·사망·중한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신속히 지원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올해부터 지원 대상 1인 가구 기준 소득이 기존 167만 1334원 이하에서 179만 4010원 이하로, 금융 재산은 822만 8000원 이하에서 839만 2000원 이하로 완화됐다.

생계지원금은 1인 가구를 기준으로 2024년 월 71만 3100원에서 2025년 월 73만 500원으로 1만 7400원 인상됐다. 긴급복지지원은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단기적 지원으로,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공부조 제도와 연계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수원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을 운영해 기존 긴급복지지원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지원하며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긴급지원 대상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와 시청 돌봄정책과 휴먼복지팀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를 발견한 사람도 누구나 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예기치 못한 재난, 안전사고를 당한 수원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2025년 수원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수원시민은 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수원시 시민안전보험의 상해 의료비 보장 지역은 전국이다. 수원시민(등록 외국인·거소 동포 포함)이 국내에서 상해사고, 자전거·전동휠체어·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PM포함) 사고로 치료를 받았을 때 본인 부담 의료비(급여항목)를 지원한다.

15세 이상 수원시민이 국내에서 상해사고로 사망하면 장례비를 최대 2000만 원 지원하고, 13세 미만 어린이가 보행 중 교통사고를 당하면 부상치료비로 최대 50만 원을 지급한다.

수원시는 2019년부터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이 무료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에 매년 가입하고 있다. 2024년에는 보장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해 더 많은 시민이 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치료한 건에 한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수원시민 안전보험 보상센터(02-2135-9453)에 문의한 후 서류를 준비해 팩스나 전자우편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개인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검색창에서 '시민안전보험'을 검색해 보장 항목·한도 등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난해 보장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더 많은 시민이 시민안전보험을 신청했다"며 "시민안전보험이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한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2024년 1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다배움/다가온 '아파트' -09:50 한글새싹1반 (월,금/강의실3) -09:50 한글새싹2반 (월,금/강의실4) -09:50 한글새싹3반 (화,목/강의실3) -11:00 원선생의영어교실 (월,금/대강의실) -11:00 한국어회화반 (화,목/강의실3) -15:30 유아2반 초등입학반 (화,수/강의실3)	한국어자원봉사(1/7~2/28) -13:00 기초한국어(화,목/강의실4)		1	2 -14:00 애니메드 후원금 전달식(화의실)	3	4
5	6	7	8	9	10 -14:00 다우리봉사단 평가회(대강의실/	11
12	13 -09:50 다배움/다가온 겨울방학 학기 학습교실 '아파트' 개강(센터 내강의실)	14 -10:00 자원봉사사업 '사랑의 반찬 나눔'(전통외식요리학교,송죽동 행정복지센터)	15	16	17	18 -09:00 다배움 겨울 체험학습(양평외갓집체험마을)
19	20 -15:00 책가방지원사업 전달식(대강의실)	21 -10:00 자원봉사사업 '사랑의 반찬 나눔'(전통외식요리학교,송죽동 행정복지센터) -11:00 서포터즈 월례회의(5강의실)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문의 031-257-8504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원시, 초등학생 등하교 돕는 어린이 보행안전지도사 모집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2025년 어린이 보행안전지도사업'에 참여할 '보행안전지도사' 100명을 모집한다. 보행안전지도사는 초등학생들의 등하굣길에 함께하며 집이 같은 방향인 아이들을 데려다준다. 아이들과 걸으며 교통안전교육도 한다.

방학 기간을 제외하고 3~12월 관내 초등학교 42개소에서 등하교 시간대 하루 2시간씩 주 5일 근무한다. 해당 학교 학부모, 교통안전 관련 봉사·교육 경력이 많은 자, 교통안전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한 사람 등을 우대한다.

응시원서·자기소개서 등을 작성해 1월 20~2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수원시 교통정책과(KT 남수원지사 2층)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공모문과 합격 결과(2월 24일 발표)는 수원시 홈페이지>수원소식>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하성 기자

"이주민, 세무 관련 어려움 해결 도와요"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와 조희정 세무사, 업무협약 체결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양해규)는 지난 1월 8일 세무사 조희정 대표와 이주민의 세무 및 복지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상호 협력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이주민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세무 및 복지 지원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이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세무 상담과 교육을 제공하고, 복지 서비스와 세무 서비스를 연계에 이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계획이다. 또한 세무 상담,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며, 이주민들이 세무 관련 의무를 잘 이행하고,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관련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세무사 조희정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이주민들이 한국의 세무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돕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양해규 센터장은 "이주민들이 세무와 복지 문제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이번 협약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송하성 기자

수원시, 시민·기관과 '우리집 탄소모니터링' 협력체계 구축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아파트입주자대표협회, 대학교, 기업, 소상공인 등 9개 기관과 '우리집 탄소모니터링'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수원시는 10일 시청 상황실에서 수원시 아파트입주자대표협회, 경기대학교, 수원여객운수㈜, 수원시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협회, 영진환경산업㈜, ㈜21세기자동차정비공업사, 청하생고기, 김현희 (사)온환경교육센터장, 원증연 환경영향평가사와 '새빛 기후공헌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우리집 탄소모니터링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우리집 탄소모니터링 사업은 시민이 스마트폰 앱으로 에너지(전기가스·수도·난방·온수) 사용량, 탄소배출량, 아파트단지 내 탄소배출 순위 등을 확인하며 자발적으로 탄소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탄소중립 시민 실천 사업이다. 현재 공동주택 75개 단지가 참여하고 있다. 수원시는 2030년까지 전체 공동주택단지의 절반가량인 200여 개 단지가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새빛 기후공헌프로젝트'는 탄소중립 실현과 우리집 탄소모니터링 활성화를 위해 기업과 개인이 사회공헌 활동의 하나로 참여하는 협력사업이다.

이지은 기자

2025년 1학기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근로자반 한국어교육 수강생 모집

모집안내

▶ 신청 기간 2025. 1. 5(일) 오전 10시 - 선착순 모집(마감시까지)

▶ 신청 대상 성인 외국인 ▶수강료 2만원(교재비 별도, 개인 구입)

*교육비 입금방법

신청 완료 계좌번호 문자 발송. 문자 받은 후 3일 안에 입금하세요.

신청서 전화번호 오류로 안내가 불가능, 입금 확인이 안되는 경우 신청 취소됩니다.

교육비 환불은 개강 일주일 전까지만 가능하며 이후 불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레벨 테스트 후 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www.suwonmcs.com)-교육신청

레벨테스트 바로가기 교육신청 바로가기

프로그램 안내

프로그램명	기간	시간	교재
주말한국어 초급1	2월2일 ~ 5월11일 (13회 진행)	매주 일요일 10시 ~ 12시 (3월 2일, 5월 4일 휴강)	세종한국어 1A, 세종한국어 1A 익힘책 | 개정판
주말한국어 초급2			세종한국어 1B, 세종한국어 1B 익힘책 | 개정판
주말한국어 초급3			세종한국어 2A, 세종한국어 2A 익힘책 | 개정판
주말한국어 중급1			세종한국어 2B, 세종한국어 2B 익힘책 | 개정판
주말한국어 중급2			세종한국어 3A, 세종한국어 3A 익힘책 | 개정판
주말한국어 토픽Ⅱ 3급 과정			한국어능력시험 TOPIK Ⅱ (토픽2) 합격 레시피

교육 일정 및 시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 교육팀 070-4440-0924

사회복지법인 수원중앙복지재단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SUWON MIGRANT COMMUNITY SERVICE

2025년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사업」 신청 안내

❒ 경기도와 수원시가 다문화가족 자녀의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아래와 같이 방문학습지를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지원개요** ※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사업기간 : 2025. 3. ~ 2025. 12.(10개월 이내)

○ 모집인원 : 96명 내외(선발기준에 따라 선정)

○ 모집대상 : 수원시 거주 다문화가정 자녀

- 4세 ~ 11세의 다문화가정 자녀(2014. 1. 1. ~ 2021. 12. 31. 출생자)
- 중도입국자의 경우, 정규 · 대안학교 초등 1~6학년 재학 중인 자녀

○ 지원내용 : 한글, 국어, 독서 중 1과목 학습지 및 방문학습 서비스 제공(주 1회, 15분 내외)

□ **접 수**

○ **신청기간 : 2025. 1. 20.(월) ~ 2. 14.(금) 18:00까지**

※ 이후 선착순 수시접수, 인원 초과시 대기자로 관리

○ 신청접수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다문화 담당

○ 접수방법 : 방문접수(서류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신청자 확인용), 다문화가정, 우선순위(해당자) 증명서류

※ 우선순위 신청자의 경우 접수 시 추가서류 제출 및 확인절차 필요

필수 제출서류 (다문화가정 확인용)	추가 제출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국적 취득 등으로 등본상 확인이 불가한 경우 기본증명서(귀화자)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수급자·차상위가정	한부모·조손가정	부모 또는 자녀가 장애인 등록된 가정	다자녀가정 (2자녀 이상)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증명서	한부모확인서(한부모) 가족관계증명서(조손)	장애인등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우선순위 선정기준

구분	선정기준(우선순위)	서비스 제공원칙
1순위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자녀	- 저소득 취약계층 가정 우선 - 방문교육서비스 지원 대상과 중복 불가 - 1가구 1자녀 지원 원칙 **※ 1순위 대상자인 경우 여러 자녀 지원 가능** - 전년도 수혜자 후 순위 배정 또는 차년도 지원 **※ 1순위 대상자인 경우 제한 없음** - 지원 자격 동점일 경우 출생연월일 기준으로 연령이 높은 자녀 등의 기준 순으로 지원 ※ 방문교사와 사전 협의 없이 방문 시간을 3회 이상 어긴 경우, 방문교사의 활동일지 보호자 서명란에 사유 없이 보호자 자필서명하지 않은 경우 지원 중지
2순위	1. 한부모가정 2. 조손가정 3. 부모 또는 자녀가 장애인 등록이 된 다문화가정 자녀 4. 다자녀가정(2자녀 이상)	
3순위	- 전년도 미지원 대상자	

○ **자부담 : 월 3,000원**(방문학습 수행기관이 학습자에게 직접 청구)

○ **선정자 통보 : 2월중 예정**

문의 :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및 수원시청 다문화정책과(☎031-228-2709)

Trường đại học từ xa Kyung Hee đã mở các khóa cử nhân online dành cho người nước ngoài ... Học phí cũng phải chăng 이주민도 한국에서 학위 받아요!

Ước mơ của lao động người nước ngoài khi sinh sống ở Hàn Quốc là gì? Đó chính là khi các bạn có thể cùng với gia đình ổn định cuộc sống và kiếm thật nhiều tiền phải không ạ? Chính phủ Hàn Quốc mới đây đã đáp lại mong muốn giản đơn này qua việc công bố chính sách visa mới. Tuy nhiên, chính sách K-point dành cho visa E-7-4 và chính sách Visa đặc biệt theo khu vực F-2-R vẫn còn gây nhiều khó khăn đối với lao động người nước ngoài.

Còn những gia đình đa văn hóa vì không thể thích nghi với xã hội Hàn Quốc nên không còn cách nào khác ngoài việc phải làm việc tại các công xưởng hoặc quán ăn thì sao? Vậy thì, những gia đình đa văn hóa cần nên làm gì để có được một công việc tốt hơn và có thể thích nghi với xã hội Hàn Quốc hơn?

Đó chính là việc nâng cao kỹ năng tiếng Hàn và lấy bằng đại học. Tuy nhiên, để người nhập cư có thể vừa làm việc và vừa học tiếng Hàn thì lại là một điều không hề dễ dàng gì. Hơn nữa, việc tốt nghiệp đại học ở Hàn Quốc rất khó khăn vì tốn rất nhiều tiền và thời gian. Nhưng giờ đây đã có một chương trình học cử nhân giúp người nhập cư có thể dễ dàng vượt qua được hai khó khăn lớn này!

Có thể tốt nghiệp đại học ở Hàn Quốc không?

Trường đại học từ xa Kyung Hee (Hiệu trưởng Byun Chang-gu) đã mở Khoa tự chọn toàn cầu với sự hỗ trợ của Bộ Giáo dục Hàn Quốc và hiện đang cung cấp các dịch vụ giáo dục ổn định và chất lượng cao dành cho người nước ngoài. Vì Trường đại học này mở tất cả các lớp học và các kỳ thi qua online nên các bạn học sinh có thể vừa đi học vừa đi làm. Còn học phí thì sao? So với mức học phí hàng năm từ 7 đến 9 triệu won tại các Trường đại học khác ở Hàn Quốc, Khoa tự chọn toàn cầu của Trường đại học từ xa Kyung Hee sẽ cấp học bổng 50% cho tất cả sinh viên nên học phí hàng năm chỉ ở mức 1.512.000 won. Ngoài ra còn có nhiều học bổng ưu tiên hơn nhờ có các ký kết biên bản hợp tác.

Đầu tiên, khi nhập học và chưa đi theo chuyên ngành, các khóa học trong năm đầu tiên sẽ tập trung vào việc thích nghi với môi trường đại học và củng cố các kỹ năng cơ bản. Với các môn học chính như Tiếng Hàn đại học 1 và 2, Tìm hiểu về xã hội và các trường đại học Hàn Quốc, Chiến lược học tập và khám phá chuyên ngành cũng như Kỹ năng lãnh đạo toàn cầu, v.v. Trước khi chọn chuyên ngành, các bạn sinh viên còn có cơ hội định hướng nghề nghiệp phù hợp với bản thân thông qua việc xây dựng kế hoạch nghề nghiệp và khám phá nhiều chuyên ngành khác nhau. Sau đó, từ năm 2 đến năm 4, các bạn sinh viên có thể chọn các chuyên ngành đa dạng như IT, thông tin điện tử, quản lý, du lịch, tiếng Hàn, v.v, để học chuyên sâu.

Nếu không giỏi tiếng Hàn thì phải làm thế nào?

Các bạn có thể đăng ký vào Trường đại học từ xa Kyung Hee ngay cả khi không thông thạo tiếng Hàn! Bất kể năng lực tiếng Hàn của các bạn đến đâu, chỉ cần nhận được thông báo trúng tuyển, các bạn sẽ có thể tham gia khóa học Didimdol hoặc tham gia khóa đào tạo tiếng Hàn tại Trung tâm tiếng Hàn ở trường trước khi nhập học. Và các bạn cũng sẽ được công nhận 6 tín chỉ khi tham gia các lớp này.

Sau khi nhập học, các bạn cũng có thể nâng cao kỹ năng bản thân qua việc luân phiên tham gia các lớp học tiếng Hàn tại trường và các khóa đào tạo tiếng Hàn cơ bản. Tuy nhiên, để có thể theo học được các lớp tiếng Hàn này, các bạn thực sự cần có TOPIK cấp 3 trở lên. Và khi đạt từ TOPIK cấp 4 trở lên, các bạn sẽ có thể được nhận học bổng.

Ưu thế khi tốt nghiệp đại học là gì?

Vậy ở Hàn Quốc sẽ có lợi thế gì khi các bạn tốt nghiệp Trường đại học từ xa Kyung Hee? Trường đại học từ xa Kyung Hee bắt nguồn từ Trường đại học Kyung Hee, là một trong những trường đại học tư thục danh tiếng ở Hàn Quốc, và đương nhiên cũng sẽ được công nhận theo hệ 4 năm.

Đặc biệt, khi có được bằng cử nhân, các bạn sẽ có thể được cộng thêm 20 điểm khi chuyển đổi visa E-7-4, và nếu đạt được TOPIK cấp 4 khi tốt nghiệp đại học, các bạn sẽ có thể được cộng thêm 120 điểm. Nên có thể nói, việc xin cấp visa E-7-4 sẽ không còn khó khăn nữa.

Và đối với Visa đặc biệt theo khu vực, vốn đang được đông đảo lao động người nước ngoài quan tâm hiện nay, khi người nước ngoài có được bằng tốt nghiệp từ một trường đại học Hàn Quốc sẽ được cộng thêm diểm nên đây là điều hoàn toàn có lợi. Lee Ji-eun đến từ Việt Nam, đã tốt nghiệp đại học tại Hàn Quốc, cho biết "Trước khi học đại học ở Hàn Quốc, tôi cảm thấy mình không thể hòa nhập với xã hội Hàn Quốc, tuy nhiên sau khi tốt nghiệp đại học, tôi được nhiều người Hàn Quốc công nhận, và tôi thấy tự tin hơn vì đã trở thành một thành viên của xã hội Hàn Quốc. Đặc biệt, nó giúp ích rất nhiều cho tôi trong việc tìm hiểu về xã hội Hàn Quốc cũng như khi tham gia vào các hoạt động xã hội tại đây."

Trao học bổng và miễn giảm chi phí y tế

Trường đại học từ xa Kyung Hee mặc dù vốn có học phí khá thấp nhưng nhằm giúp giảm bớt gánh nặng học phí cho các sinh viên Khoa tự chọn toàn cầu, cũng có các chương trình học bổng miễn giảm học phí như học bổng đầu vào, học bổng sinh hoạt và học bổng khen thưởng, v.v. Mới đây, tại Trường đại học từ xa Kyung Hee, có đến 97,3% sinh viên năm nhất và sinh viên liên thông đã được nhận học bổng. Đặc biệt, đối với sinh viên nhập học Khoa tự chọn toàn cầu sẽ còn có thể được hỗ trợ học bổng 50% từ khi nhập học cho đến khi tốt nghiệp. Ngoài ra, Trường đại học từ xa Kyung Hee còn giảm giá 10% chi phí y tế dành cho sinh viên tại Bệnh viện Đại học Kyung Hee và Bệnh viện Đại học Gangdong Kyung Hee. Bên cạnh đó cũng hỗ trợ dịch vụ dịch thuật y tế miễn phí dành cho người nhập cư.

Khoa tự chọn toàn cầu của Trường đại học từ xa Kyung Hee hiện đang hỗ trợ thông tin trong nhiều lĩnh vực và các chương trình giáo dục kết hợp cần thiết cho đời sống tại Hàn Quốc, giúp các bạn có thể trở thành nhân tài toàn cầu được cấp trên và đồng nghiệp công nhận.

Đăng ký nhập học như thế nào?

Khoa tự chọn toàn cầu của Trường đại học từ xa Kyung Hee sẽ tuyển sinh cho học kỳ đầu tiên của năm học 2025 cho đến ngày 14 tháng 1 năm 2025. Đợt tuyển sinh thứ hai sẽ kéo dài đến ngày 14 tháng 2. Để nộp đơn, các bạn vui lòng truy cập trang web của Trung tâm tuyển sinh Trường đại học từ xa Kyung Hee (go.khcu.ac.kr) qua máy tính hoặc điện thoại di động và hoàn tất các thủ tục như điền thông tin vào mẫu đơn và nộp hồ sơ theo yêu cầu.

Giáo sư Seo Jin-sook, Khoa tự chọn toàn cầu tại Trường đại học từ xa Kyung Hee cho biết "Chúng tôi muốn tạo cơ hội cho người nhập cư và sinh viên người nước ngoài có thể phát triển năng lực học tập và thực hành cũng như có thể tự tin hơn khi tiến bước trong xã hội toàn cầu. Trường đại học từ xa Kyung Hee sẽ giúp người nhập cư vững tin và ổn định và thành công hơn tại Hàn Quốc."

Để biết thêm thông tin chi tiết về tuyển sinh, các bạn vui lòng truy cập trang web của Trung tâm tuyển sinh (go.khcu.ac.kr) hoặc liên hệ đến số điện thoại tư vấn tuyển sinh (02-959-0000) nhé.

〈한글 기사 지난호 5면〉 파파야스토리

07 체류 안내
滞留指南

• 한국 체류 시 알아야 할 정보
韩国滞留期间 信息需知

담당부서 负责部门 **수원출입국·외국인청** 水原出入境·外国人厅 1345

준수사항 遵守事项	처벌내용 惩罚内容	비고 备 注
91일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반드시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함 想要滞留91天以上的外国人 自入境日起90天内 必须要去滞留地管辖出入境外国人官署登录	범칙금 1개월 미만 20만 원~ 2년 이상 1,000만 원 * 가중처벌 있음 罚金 未满1个月时20万元~超过2年以上1,000万元 *加重处罚	
체류 기간 연장은 체류 기간 만료일 4개월 전~만료일 이전까지 신청해야 함 延长滞留期限时必须要在滞留期满日4个月前~期满日前这期间提出申请	범칙금 1개월 미만 50만 원~7년 이상 3,000만 원 * 가중처벌 있음 罚金 未满1个月时50万元~超过7年以上3,000万元 *加重处罚	
대한민국 체류 중 여권이 변경되면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함 韩国滞留期间护照有变化更改时必须在15天内申报	과태료 3개월 미만 10만 원~1년 이상 100만 원 * 가중처벌 있음 罚金 未满3个月时10万元~超过1年以上100万元 *加重处罚	
체류지 변경 滞留地变更 — 등록외국인 (F-4 제외) 登录外国人 (F-4除外) — 15일 이내 신고해야 함 15日以内需要申报	범칙금 3개월 미만 10만 원~2년 이상 100만 원 * 가중처벌 있음 违章金 未满3个月10万元~2年以上100万元 *存在加重处罚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 또는 시·군·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체류지 변경 가능 可在出入境外国人官署或市、郡、区政府及洞行政福利中心变更滞留地
체류지 변경 滞留地变更 — 재외동포 (F-4) 驻外同胞 (F-4) — 14일 이내 신고해야 함 14 日以内需要申报	과태료 3개월 미만 10만 원~2년 이상 200만 원 * 가중처벌 있음 罚金 未满3个月10万元~2年以上200万元 *存在加重处罚	

※ 출입국외국인 관서 방문 시,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통해 방문 예약
在访问出入境外国人管辖处时，请通过Hi Korea（www.hikorea.go.kr）网页预约。

※ 관련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25조/ 제31조/ 제35조/ 제36조, 재외동포법 제6조
相关法令：出入境管理法第25/31/35/36条, 驻外同胞法第6条

• 불법체류자 자진 출국 전 사전신고제
非法滞留者自愿出境前事前申报制度

불법체류 외국인이 중요범죄를 저지르고 자국으로 도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출국일 기준 3일(공휴일 제외)~15일(공휴일 포함) 전까지 현 거주지 관할 출입국 관서를 방문하거나 하이코리아 온라인 자진 출국 신고를 해야 출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为了防止非法滞留外国人犯下重要罪行后逃回本国，须在出境日3天（公休日除外）~15天（包括公休日）前到居住地管辖出入境管理部门或HI KOREA网上申报自愿出境才能准许出境的制度。

당일 출국 불가 当天不准出境	출국일 3~15일 전 거주지 관할 출입국 관서를 방문하여 직접 자진 출국 신고 出境日3~15天以前居住地管辖出入境管理部门，亲自申报自愿出境。
심사 강화 加强审查	사전 신고 시 출입국 관서에서 수배 및 출국 정지 여부를 조회하고 출국 전 공항만 출입국에서 수배 및 출국 정지 여부 재확인 提前申报时在出入境管理部门通缉及停止出境与否，然后出境前在机场或港口出入境局再次确认 通缉及停止出境与否。
자진 출국 혜택 축소 缩小自愿出境优惠	자진 출국자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벌금, 범칙금 부과 및 입국 규제 对自愿出入境人员也分阶段处以罚款以及限制入境。
사전 신고 인터넷 접수 网上接受事前申报	민원인 편의를 위해 법무부 시스템을 개선하여 인터넷 접수 가능 为了信访人的便利，改善法务部系统，可通过网上接收。

• 불법체류자 통보 의무 면제제도
非法滞留者 通报义务赦免制度

담당기관 负责机关 **경기남부경찰청 치안정보과** 京畿南部警察厅治安情报科 031-888-2585

구분 区分		내용 内容
제도개념 制度概念		경찰관 등이 수사 과정에서 주요 범죄 피해자가 불법체류자임을 알게 된 경우 출입 관서에 통보하지 않는 제도 当警察或其他人员在调查期间发现非法滞留者的事实却不通知出入境管理处的制度
적용범죄 适用犯罪	형법상 범죄 刑法犯罪	살인죄, 상해/폭행죄, 과실치사상죄, 유기/학대죄, 체포/감금죄, 협박죄, 약취/유인죄, 강간/추행죄, 권리행사방해죄, 절도/강도죄, 사기/공갈죄 谋杀，伤害/暴力，过失伤害/杀人，遗弃/虐待罪，逮捕/监禁罪，恐吓，诱骗/掠夺罪， 妨碍行驶权力罪， 盗窃/强奸罪，欺诈/伪造罪
	특별법상 범죄 特殊法律犯罪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직업안정법(제46조) 《暴力行为处罚法》，《性暴力犯罪处罚特例法》，《交通事故处理特例法》，《卖淫等行为处罚法》和《工作安全法》（第46条）
제외사유 排除理由		• 임금체불 등 단순 민사 사안 简单的民事事务，例如拖延工资 • 범죄 피해 사실을 허위 신고하는 경우 虚假犯罪损害报告 • 쌍방폭행 등과 같이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인 경우 면제 대상 아님 不能排除像双方暴力等，例如受害者和肇事者的双方暴力
신고방법 申报方法		• 인터넷 홈페이지 신고 网页申报 ※ 안전 Dream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www.safe182.go.kr) 및 경찰민원포털 홈페이지(http://minwon.police.go.kr)로 신고 가능 可以在安全Dream儿童，妇女和残疾人警察支援中心网页（www.safe182.go.kr）和警察投诉网页（http://minwon.police.go.kr）申报。 • 경찰서(민원실 등) 직접 방문하여 신고 也可以直接去投诉窗口申报

※ 관련법령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相关法令：出入境管理法第84条/实行令 第92条-2

• 범죄(피해)예방 교육 및 운전면허 학과 교육 지원
犯罪（受害）预防教育及驾驶证专业教育支援

담당기관 负责机关 **경기남부경찰청 치안정보과** 京畿南部警察厅治安情报科 031-888-2585

구분 区分		내용 内容
개념 概念	범죄(피해) 예방 교육 犯罪（受害）预防教育	체류 외국인의 안정적인 사회정착 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근로현장·NGO 단체 등 외국인들이 모인 장소에 직접 방문, 결혼이주민·외국인근로자·유학생 등 대상별 특성에 맞춰 자주 발생하는 범죄 사례 및 주의해야 할 점 등을 자세하게 알려주고 어려움을 상담해주는 '찾아가는 범죄예방교실' 운영 为帮助滞留外国人安全定居运营"上门犯罪预防教室"课程并直接访问多文化家庭支援中心、劳动现场、NGO团体等外国人聚集的场所，根据结婚移民、外国劳动者、留学生等不同对象的特点，详细介绍经常发生的犯罪事例及需要注意的地方等，并咨询解除困难。
	운전면허 학과 교육 驾驶执照学科教育	운전면허 학과시험 지원을 위해 전문강사를 통한 '외국인 운전면허교실' 무료 운영 (3개 언어로 교재 제공) 为了支援驾照专业考试，通过专门讲师免费运营"外国人驾照教室"（提供3种语言教材）

• **운전면허시험 관련 문의** 驾照考试相关咨询
–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 1577-1120 (www.safedriving.or.kr)
道路交通公团驾驶证考场:1577-1120 (www.safedriving.or.kr)
• **학과시험 : 3개 언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응시 가능**
专业考试:可报考3种语言（英语、汉语、越南语）

2024년 외국인주민 생활안내서
2024年外国人居民生活指南

수원페이로 결제, 10% 추가 할인

수원페이 10+10 이벤트, 점포별 최대 10% 혜택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수원시 소상공인과 협력해 수원페이로 결제하면 10%를 할인해 주는 '수원페이 10+10 이벤트'를 3월까지 연다.

침체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한 이번 이벤트는 수원페이 가맹점 중 10+10 이벤트에 참여하는 업체에서 수원페이로 결제하면 최대 10%를 할인해 주는 것이다. 참여 업체는 할인율(5%, 7%, 10%)을 선택할 수 있다.

수원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수원페이 충전 한도를 50만 원, 인센티브는 10%로 확대했다. 설·추석 명절이 있는 1월과 10월은 인센티브를 20%로 늘렸다.

수원페이를 충전해 인센티브 10%를 받고, 이벤트 참여 업체에서 수원페이를 사용해 최대 10% 할인을 받으면 최대 20% 할인받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수원페이 10+10 이벤트 참여 업체와 업체별 할인율은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검색창에서 '수원페이 10+10'을 검색하거나 스마트폰으로 큐알(QR) 코드를 스캔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벤트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새빛톡톡 '신청접수' 게시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수원페이 10+10 이벤트는 수원시 소상공인연합회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수원페이 인센티브 확대와 함께 진행되는 추가 할인 이벤트가 침체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페이 인센티브 확대와 소상공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추가 할인 행사의 시너지 효과로 시민들은 할인받는 즐거움을, 소상공인들은 매출이 증가하는 기쁨을 누리길 바란다"며 "이번 이벤트가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 힘을 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송하성 기자

"Foreign pregnant women in crisis also receive various counseling and support"

In Korea, there is a 'birth notification system' in place, which automatically registers the birth of all children born in medical institutions (excluding foreign children), and a 'protected childbirth system', which helps pregnant women who have difficulty raising their children to give birth under an alias.

What is the birth protection system?

The birth protection system is a system that allows some pregnant women who do not want to make the fact of giving birth known to avoid using medical institutions due to the introduction of the birth notification system to give birth "anonymously" at a hospital.

Through this system, pregnant women in crisis who need counseling and support for childbirth and childrearing can apply for protected childbirth, and the pregnant woman will be given a pseudonym and management number and will be able to undergo prenatal checkups and give birth at a medical institution. Children born under the protected childbirth system can go to childcare facilities of local governments or be adopted.

Where do I apply?

Pregnant women in crisis can request counseling from local counseling centers anytime, anywhere by calling 1308 or using mobile phones.

Local counseling centers not only provide information to pregnant women who are having difficulties with pregnancy, childbirth, and childrearing, but also help connect them to various services such as psychological counseling, medical support, and legal services. From July 19, when the crisis pregnancy support and protective childbirth system was implemented, to the end of November, 749 crisis pregnant women received counseling and various types of help.

What about foreign pregnant women?

Foreign pregnant women cannot apply for the protected childbirth system. Marriage immigrants with foreign nationality who are married to Korean men cannot apply for the protected childbirth system. This is not desirable because it creates a blind spot in the protected childbirth system.

However, foreigners and multicultural families in crisis pregnant women can receive counseling and support just like domestic in crisis pregnant women.

The support includes: ▲childbirth support (pregnancy test, delivery expenses, medical expenses, hospital accompaniment) ▲postpartum care support (postpartum care center, maternal helper, nursing assistant) ▲emergency financial support (living expenses, medical expenses) ▲childrearing support (childbirth supplies set, childrearing items, childrearing education, childrearing counseling) ▲child adoption, child protection facility admission linkage (adoption agency, daycare center, foster family) ▲housing support (admission to crisis pregnant women support facilities nationwide), etc.

Pregnant women in crisis who are having difficulty giving birth and raising children due to financial difficulties or other circumstances, please call 1308 for 24-hour counseling.

〈한글 기사 11면〉

파파야스토리

"오산 다문화가족, 2025년에도 다양한 지역사회 서비스로 행복 키워요"

오산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및 중학생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 등 안내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오산시가족센터는 올해도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를 제공한다.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는 한국말이 서툰 결혼이민자의 가족.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로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된다.사업대상은 다문화가족, 외국인가족 및 개인 또는 기관이며 베트남어를 지원한다. 지원방법은 내방, 전화, 이메일, 팩스, 출장(예약 필수)이며 오산시가족센터 홈페이지 또는 전화(070-4918-9174)로 신청하면 된다.

#중학생 체험학습비 지원

오산시는 올해부터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숙박형 체험학습비를 1인당 최대 25만원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모든 학생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오산시의 새로운 교육복지 정책이다. 오산시는 이를 위해 올해 7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3월부터 중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거쳐 학교별 지원 인원과 금액을 확정한 뒤 각 학교에 보조금을 교부할 예정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도내 고등학생 전원에게 최대 50만원의 체험학습비를 지원하고 있다. 오산시는 이에 발맞춰 지원 대상을 중학생까지 확대한 것이다. 시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및 체육복비 지원 등 학부모의 부담을 덜고, 학생들이 차별 없는 교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학창시절 가장 큰 설렘인 체험학습을 모든 학생이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번 정책이 고물가 시대에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디딤씨앗통장 대상 확대

오산시는 올해부터 저소득층 아동이 학자금.취업.주거비 마련 등 자립에 필요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돕는 '디딤씨앗통장' 가입대상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아동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는 보호대상아동만 신규 가입이 가능했다면,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차상위, 한부모) 아동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이 자립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아동발달지원계좌'로도 불린다. 아동의 통장에 본인 또는 후원자가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지자체(국비 포함) 1대2로 매칭해 보조금(월 최대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 주는 방식이다.

저축한 돈은 만 18세 이후 학자금, 취업훈련비용, 주거 마련 등 자립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만 24세 이후로는 용도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다.

이명숙 오산시아동복지과장은 "디딤씨앗통장으로 취약계층 아동들이 자산 형성의 중요성을 배우며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가구당 화장장려금 지원

오산시는 올해부터 가구당 최대 35만원의 화장장려금을 지원한다. 오산시 관내 화장시설 부재로 다른 지역에서 '원정화장'을 하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지원 대상은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이 사망한 후에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으로,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연고자, 시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연고자다.

김영의 기자

"Khi lo lắng về các bệnh lây truyền qua đường tình dục và AIDS, chúng ta có thể xét nghiệm ở đâu?" 성병과 에이즈가 걱정될 때 어디서 검사 받을까?

Ngày Thế giới phòng chống AIDS là gì?

Ngày 1 tháng 12 vừa qua là 'Ngày Thế giới phòng chống AIDS'. Vì vậy, đã có nhiều chiến dịch được thực hiện trên toàn Hàn Quốc nhằm cung cấp thông tin chính xác về bệnh AIDS và xóa bỏ định kiến cũng như phân biệt đối xử đối với những người mắc bệnh.

AIDS đề cập đến tình trạng chức năng miễn dịch bị suy giảm do nhiễm vi rút gây suy giảm miễn dịch ở người (HIV). Nó không lây lan qua tiếp xúc hàng ngày và có thể ngăn ngừa lây nhiễm thông qua quan hệ tình dục an toàn.

Trong giai đoạn đầu khi nhiễm AIDS, có thể xuất hiện các triệu chứng tương tự như cảm lạnh như đau đầu, sốt, đau họng và phát ban trên da. Vì vậy, khi có nghi ngờ nhiễm bệnh, điều quan trọng nhất là cần phải xét nghiệm HIV sau 4 tuần kể từ thời điểm có nghi ngờ.

Xét nghiệm AIDS như thế nào?

Có hai cách để người nước ngoài có thể làm xét nghiệm AIDS ở Hàn Quốc. Cách thứ nhất là xét nghiệm tại 'Trung tâm hỗ trợ phòng chống AIDS dành cho người nước ngoài-외국인 에이즈예방 지원센터'.

Các bạn có thể làm xét nghiệm ở các Trung tâm tại Seoul và Ansan thuộc Tỉnh Gyeonggi, nhưng vì không mở cửa quanh năm nên các bạn cần liên hệ tư vấn trước. Ngoài AIDS, các bạn cũng có thể làm xét nghiệm các bệnh lây truyền qua đường tình dục khác, miễn phí và không cần phải công khai danh tính. Một ưu điểm nữa là có thể nhận kết quả trong vòng 20 phút sau khi làm xét nghiệm.

Cách thứ hai là làm xét nghiệm tại các Trung tâm y tế công cộng trên toàn quốc. Tại đây, các bạn cũng sẽ được làm xét nghiệm miễn phí và ẩn danh, nhưng sẽ gặp đôi chút khó khăn vì cần phải giao tiếp hoàn toàn bằng tiếng Hàn và kết quả xét nghiệm sẽ được công bố sau khoảng một tuần.

Trung tâm hỗ trợ phòng chống AIDS dành cho người nước ngoài?

'Trung tâm hỗ trợ phòng chống AIDS dành cho người nước ngoài' (www.khap.org) hiện đang được Trung tâm Kiểm soát và Phòng ngừa Dịch bệnh Hàn Quốc vận hành. 'Trung tâm hỗ trợ phòng chống AIDS dành cho người nước ngoài' ở Quận Seongbuk, Seoul hiện đang hỗ trợ các dịch vụ toàn diện liên quan đến AIDS, như xét nghiệm và tư vấn về AIDS dành cho người nước ngoài cư trú tại Hàn Quốc. Bên cạnh đó, Trung tâm còn cung cấp cho người nước ngoài những thông tin đa dạng về AIDS và hỗ trợ các dịch vụ dành cho người nước ngoài bị nhiễm AIDS hoặc các bệnh nhân.

'Trung tâm hỗ trợ phòng chống AIDS dành cho người nước ngoài' khu vực Seoul hiện tọa lạc tại 209 Dongsomun-ro, Seongbuk-gu, tầng 1), còn Trung tâm khu vực Ansan thuộc Tỉnh Gyeonggi hiện đang tọa lạc tại 15-1 Wongok-ro, Danwon-gu, Ansan-si. Các bạn cần nên liên hệ tư vấn qua điện thoại trước khi đến thăm khám.

Trong trường hợp cần thiết, việc kiểm tra cũng sẽ được tiến hành tại các thành phố lớn trên cả nước, nên nếu có thắc mắc các bạn nên liên hệ qua số 02-927-4322 để biết thêm thông tin chi tiết nhé~

〈한글 기사 24면〉

파파야스토리

สามารถเข้ารับการตรวจได้ฟรีโดยไม่ระบุชื่อที่ "ศูนย์สนับสนุนการป้องกันเอดส์สำหรับชาวต่างชาติ"

วันเอดส์โลกคืออะไร?

วันที่ 1 ธันวาคมที่ผ่านมาเป็น "วันเอดส์โลก" ด้วยเหตุนี้จึงมีการดำเนินการรณรงค์ทั่วประเทศเกาหลีเพื่อให้ข้อมูลที่ถูกต้องเกี่ยวกับโรคเอดส์ และเพื่อขจัดอคติและการเลือกปฏิบัติต่อผู้ติดเชื้อ

โรคเอดส์(AIDS)หมายถึงภาวะที่การทำงานของระบบภูมิคุ้มกันลดลงเนื่องจากการติดเชื้อไวรัสเอชไอวี (HIV) ไม่แพร่กระจายผ่านการสัมผัส ในชีวิตประจำวัน และสามารถป้องกันการติดเชื้อได้ผ่านการมีเพศสัมพันธ์อย่างปลอดภัย

ในระยะแรกของการติดเชื้อเอดส์ อาจมีอาการคล้ายหวัด เช่น ปวดศีรษะ, มีไข้, เจ็บคอ, และมีผื่นที่ผิวหนัง ดังนั้นหากสงสัยว่าติดเชื้อ สิ่งสำคัญคือต้องไปตรวจ HIV หลังจาก 4 สัปดาห์นับจากเวลาที่สงสัย

จะเข้ารับการตรวจหาโรคเอดส์ได้อย่างไ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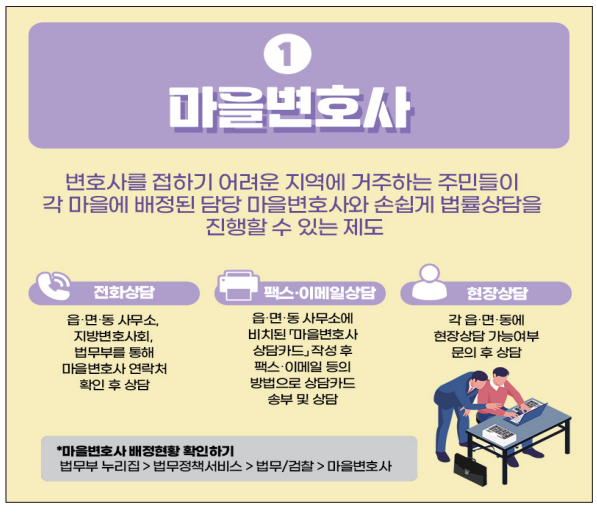
ชาวต่างชาติสามารถตรวจเอดส์ในเกาหลีได้ 2 วิธี วิธีแรกให้เข้ารับการตรวจผ่าน "ศูนย์สนับสนุนการป้องกันเอดส์สำหรับชาวต่างชาติ" สามารถเข้ารับการตรวจได้ในหลายพื้นที่ เช่น โซลและอันซาน 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 แต่เนื่องจากไม่มีให้บริการตลอดเวลาจึงต้องโทรสอบถามก่อน โดยเฉพาะอย่างยิ่ง นอกจากการตรวจเอดส์แล้ว ยังสามารถตรวจโรคติดต่อทางเพศสัมพันธ์ต่างๆ ได้ด้วย ท่านสามารถเข้ารับการตรวจได้ฟรี และไม่จำเป็นต้องเปิดเผยว่าท่านเป็นใคร สามารถตรวจสอบผลลัพธ์ได้ภายใน 20 นาทีหลังการทดสอบ วิธีที่ 2 คือไปตรวจที่ศูนย์บริการสาธารณสุขทั่วประเทศ การรับการตรวจฟรีโดยไม่ระบุชื่อก็เช่นกัน แต่การสื่อสารค่อนข้างลำบากเนื่องจากมีแค่ ภาษาเกาหลี และโดยปกติแล้วผลการตรวจจะไม่สามารถใช้ได้จนกว่าจะผ่านไปประมาณ 1 สัปดา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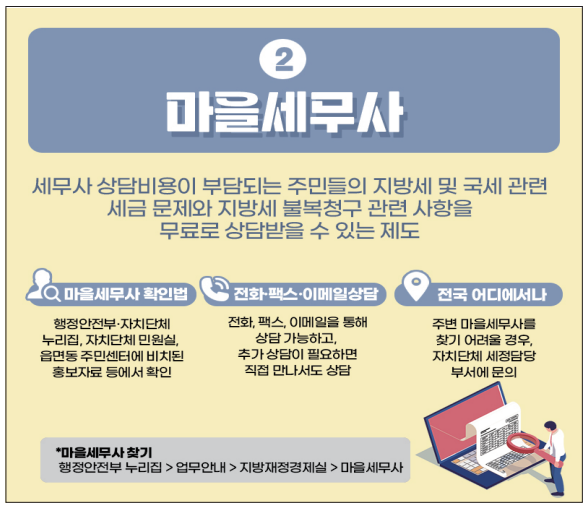
ศูนย์สนับสนุนการป้องกันเอดส์สำหรับชาวต่างชาติคืออะไร?

ศูนย์ควบคุมและป้องกันโรคแห่งเกาหลีดำเนินงาน "ศูนย์สนับสนุนการป้องกันเอดส์สำหรับชาวต่างชาติ" (www.khap.org) "ศูนย์สนับสนุนการป้องกันเอดส์สำหรับชาวต่างชาติ"ตั้งอยู่ในซองบุก-กู กรุงโซล ให้บริการที่เกี่ยวข้องกับโรคเอดส์อย่างครอบคลุม เช่น การคัดกรองและการให้คำปรึกษาเกี่ยวกับโรคเอดส์สำหรับ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อาศัยอยู่ในเกาหลี นอกจากนี้ยังแจ้งให้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ราบข้อมูลต่างๆ เกี่ยวกับโรคเอดส์ และให้บริการสนับสนุนต่างๆ แก่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ติดเชื้อเอดส์หรือผู้ป่วย

"ศูนย์สนับสนุนการป้องกันเอดส์สำหรับชาวต่างชาติ" ตั้งอยู่ในกรุงโซล (ซองบุก-กู ดงโซมุน-โร 209, ชั้น 1)...02-927-4322 〈중략, 한글 기사 24면〉

파파야스토리





구리시, 무료 법률·세무·노무 상담 서비스 운영

"시민 권리 보호와 일상 속 법률적 고민 해결, 구리시가 함께 해요"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시민들의 권익 보호와 실질적인 법률적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매년 운영 중인 무료 법률·세무·노무 상담 제도를 2025년에도 이어간다.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이 사업은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2024년에는 법률 127건, 노무 6건, 세무 15건 등 총 148건의 상담 실적을 기록했다. 구리시는 올해도 상담 서비스를 분야별로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생활 속 크고 작은 문제 해결을 통한 시민 권익 보호와 법률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상담 서비스의 일정과 내용은 아래와 같다.

▲법률 상담 : 매주 월요일 진행, 일상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계약 문제, 부동산 분쟁, 민·형사 사건 등 다양한 법률적 이슈에 대한 전문가 상담 제공

▲세무 및 노무 상담 : 매월 두 번째 수요일 진행, 세무 상담은 세금 신고와 절세 방안에 대한 조언을, 노무 상담은 근로 계약, 직장 내 갈등, 퇴직금 문제 등 상담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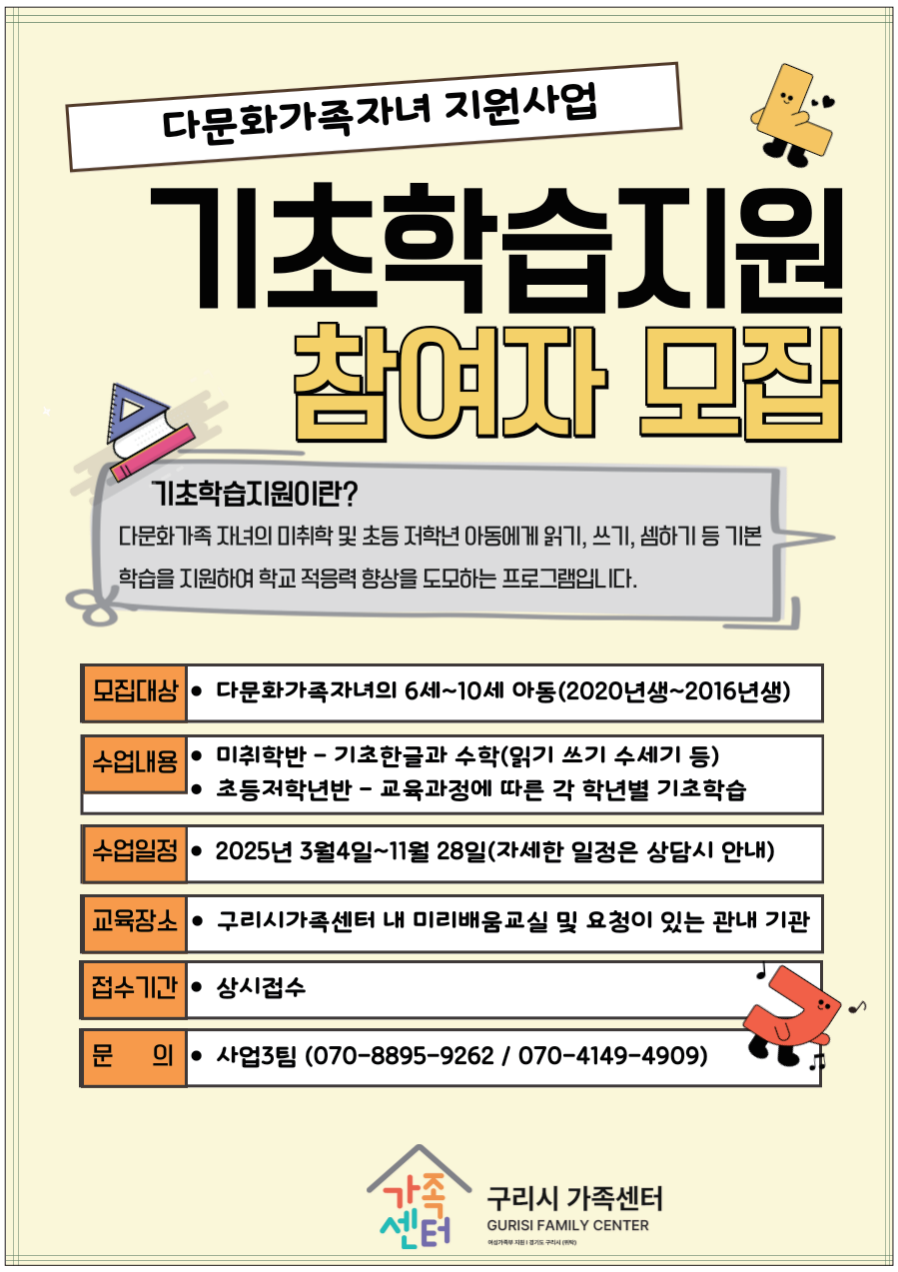
상담은 구리시청 종합민원실 내 무료 법률상담실에서 진행되며, 전화(☎550-2167)나 방문을 통한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되, 단, 상담일에 무단 불참 시 3개월간 예약이 제한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작년 법률·세무·노무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운영한 상담 서비스는 148건이라는 실적을 통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음을 입증했다."라며, "2025년에도 더 나은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들의 행복과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구리 인창도서관 천문대 개관 눈길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지난 1월 13일 인창도서관 천문대의 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번 개관식은 백경현 구리시장을 비롯한 주요 내빈과 관련분야 인사,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며, 시민에게 천문우주과학의 보급과 대중화의 허브로 자리매김할 인창도서관 천문대가 우주와 별을 향한 새로운 도전을 하는 중요한 시작점이 되었다는 평가다.

6m 원형돔 관측실에 250mm 굴절망원경과 태양망원경을 설치하고, 2대의 이동식 굴절망원경을 보유한 인창도서관 천문대는 민선8기 공약 사업의 하나로, 도심 천체 관측에 최적화된 장비로 다양한 관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들이 천문우주과학을 가까이에서 접하고 우주의 신비를 쉽게 탐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송하성 기자



"외국인 위기 임산부도 다양한 상담과 지원 받는다"

보호출산제를 이용할 수는 없지만 외국인 위기 임산부도 내국인과 동일한 지원 받아

한국에서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의 출생이 자동으로 등록되는 '출생통보제'(외국인 자녀 제외)와 아이를 키우기 힘든 임산부가 가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돕는 '보호출산제'가 시행되고 있어요.

보호출산제란?

보호출산제는 출생통보제의 도입으로 출산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일부 임산부가 의료기관 이용을 기피할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이 제도를 통해 출산·양육에 대한 상담과 지원이 필요한 위기 임산부는 보호출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임산부는 가명과 관리 번호를 부여받아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게 돼요. 보호출생제로 출생한 아동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양육 시설로 가거나 입양 될 수 있어요.

신청은 어디로?

위기임산부는 언제 어디서나 1308전화나 모바일로 지역상담기관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어요. 지역상담기관은 임신, 출산,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에 대해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심리상담, 의료지원, 법률서비스 등 다방면의 서비스 연계를 도와요.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가 시행된 7월 19일부터 11월 말까지 749명의 위기임산부가 상담을 하고 다양한 도움을 받았어요.

외국인 임산부는?

외국인 임산부는 보호출산제를 신청할 수 없어요. 한국 남성과 결혼한 국적이 외국인 결혼이민자도 보호출산제를 신청할 수 없어요. 이는 보호출산제의 사각지대를 만든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다만 외국인과 다문화가족 위기 임산부도 내국인 위기 임산부와 동일하게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출산 지원(임신테스트, 분만비, 진료비, 병원동행) ▲산후조리 지원(산후조리원, 산모도우미, 간병도우미) ▲긴급재정 지원(생활비, 의료비) ▲아동양육지원(출산용품세트, 양육물품, 육아교육, 육아상담) ▲아동입양, 아동보호시설 입소 연계(입양기관, 보육원, 가정위탁) ▲주거지원(전국 위기임산부 지원시설 입소) 등이에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다른 사정이 있어서 출산과 양육이 어려운 위기 임산부는 1308로 전화해 24시간 상담을 받아보세요.

〈러시아어 하단, 태국어 26면, 영어 7면〉

파파야스토리

Иностранные женщины в кризисной ситуации беременности также могут получить разнообразные консультации и поддержку

В Южной Корее действует система уведомления о рождении, при которой все дети, родившиеся в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ях, автоматически регистрируются при рождении (исключая детей иностранцев), а также система «защищённых родов», которая позволяет женщинам, испытывающим трудности, рожать анонимно под вымышленным именем.

Что такое система «защищённых родов»?

Система «защищённых родов» была введена для защиты женщин, которые, в связи с внедрением системы уведомления о рождении, могут отказаться от посещения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й из-за нежелания раскрывать факт беременности и родов. Эта система позволяет рожать анонимно, используя вымышленное имя.

Женщины в кризисной ситуации беременности, которым необходима консультация или помощь в вопросах родов и ухода за ребёнком, могут подать заявку на «защищённые роды». Им присваивается вымышленное имя и специальный номер, по которому они получают медицинские услуги, включая дородовые обследования и роды. Дети, родившиеся через эту систему, могут быть переданы в детские дома или на усыновление.

Как подать заявку?

Женщины в кризисной беременности могут круглосуточно обратиться за консультацией по номеру 1308 или через мобильное приложение в региональные консультационные центры. Эти центры предоставляют информацию о беременности, родах и уходе за ребёнком, а также помогают организовать услуги психологической, медицинской и юридической поддержки.

С июля, когда была введена система поддержки кризисной беременности и защищённых родов, по конец ноября 749 женщин в кризисной ситуации беременности получили консультации и разнообразную помощь.

А что с иностранками?

Иностранные женщины, включая тех, кто состоит в браке с гражданами Кореи, не могут подать заявку на «защищённые роды». Это создает определённые пробелы в системе, что вызывает недовольство.

Тем не менее иностранные и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ые семьи в кризисной ситуации беременности могут получить такие же консультации и поддержку, как и корейки. В список доступной помощи входят:▲Поддержка родов (тесты на беременность, расходы на роды, медицинские расходы, сопровождение в больницу); ▲Послеродовая поддержка (услуги послеродовых центров, помощь по уходу за матерью, уход за больными); ▲Экстренная финансовая помощь (расходы на жизнь, медицинские услуги); ▲Поддержка ухода за ребёнком (наборы для новорождённых, детские товары, обучение и консультации по уходу за ребёнком); ▲Связь с услугами усыновления или детскими учреждениями (агентства по усыновлению, детские дома, семейные приёмные); ▲Поддержка с жильём (включая размещение в кризисных центрах для беременных).

Если вы испытываете финансовые трудности или другие проблемы, мешающие рождению и уходу за ребёнком, позвоните по номеру 1308, чтобы получить консультацию в любое время суток. 〈한글 기사 상단〉

파파야스토리

"다문화가족에게 필요한 남양주시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확인해요"

남양주시,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 지원·전국민 마음 투자 지원사업 등 4가지 서비스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 지원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무인민원발급기에 외국어 지원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외국어 지원서비스는 외국인과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계층의 편의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외국어지원서비스는 도심역 무인민원발급기에 먼저 도입해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일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등 4개 언어를 지원한다. 무인민원발급기 첫 안내 화면에서 원하는 언어를 선택하면, 민원서류 발급과정이 해당 외국어로 안내돼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남양주시는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어 지원서비스를 다른 무인민원발급기로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다문화 가정, 고령자, 장애인 등 누구도 행정 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포용적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민 마음 투자 지원사업

남양주시는 올해도 '전국민 마음 투자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대학교상담센터.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국가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 증상이 확인된 자(우울 점수 10점 이상)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등이다. 이들에게는 전문적인 1:1 대면 심리상담 서비스를 120일간 총 8회 제공하는 바우처가 지원된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만 19세 이상 성인은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2024년에 서비스를 받은 대상자는 기존 지원기간 (120일) 이 경과한 후 증빙서류를 갖춰 재신청할 수 있다.

#남양주상품권 10% 인센티브

남양주시가 2025년 남양주사랑상품권의 인센티브율을 10%로 상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시는 지역 화폐 관련 정부의 예산 지원이 불투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인센티브율 유지를 결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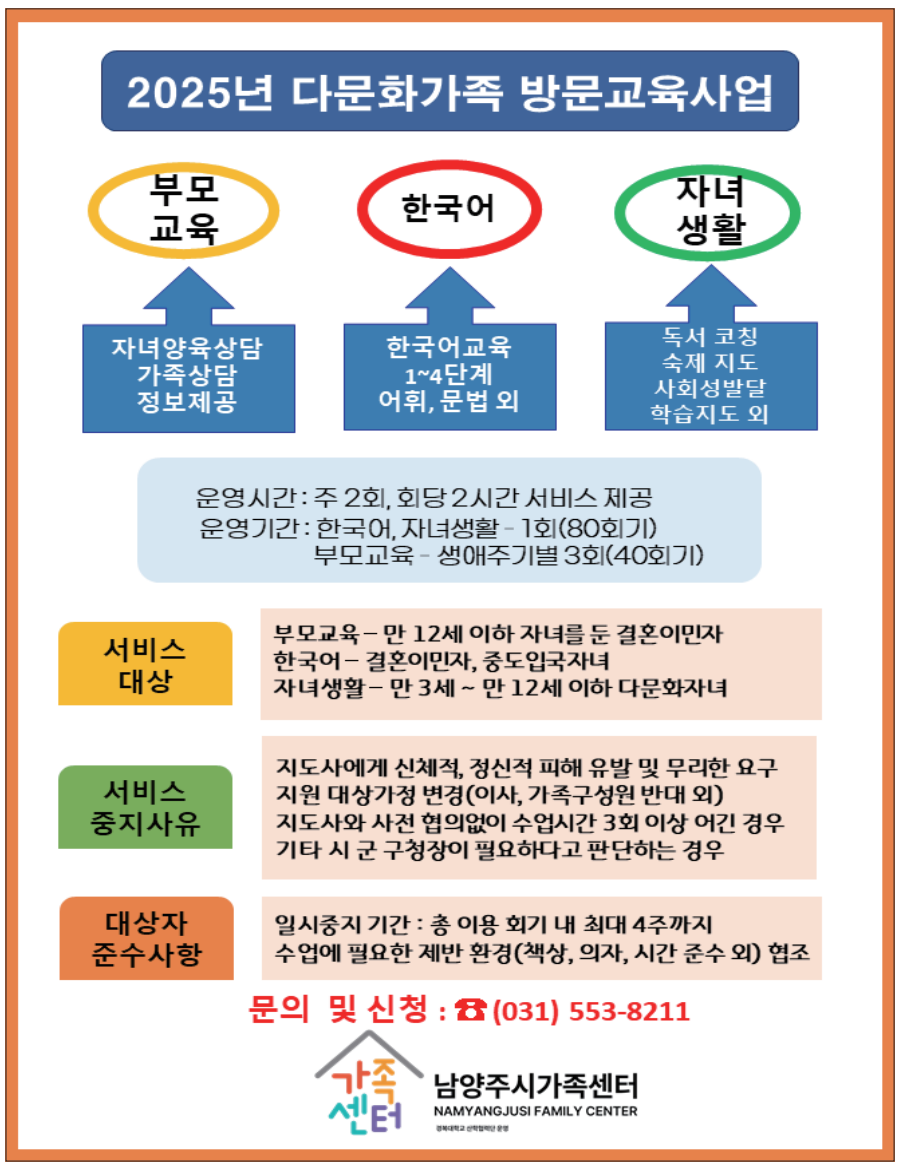
또한, 2025년 1월부터 3월까지 남양주사랑상품권의 충전 한도를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를 통해 소비를 적극적으로 촉진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방침이다.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남양주시는 이달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남양주시는 발달장애인의 심리적 안정과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음악.미술.산책 ▲문화 여가 활동 ▲심리 안정 활동 등 주간 그룹 1:1 맞춤형 낮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3년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사업에 따라 갱신 절차를 거친 후 연장할 수 있다.

김영의 기자



Получить диплом в престижном корейск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и осуществить мечту иностранного работника и мультикультурной семьи! 한국에서 학사 학위 취득하는 법

Какая мечта у иностранного работника, проживающего в Корее? Это возможность оставаться в стране с устойчивым визовым статусом, жить с семьей и хорошо зарабатывать. Недавно корей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анонсировало новые визовые программы, чтобы помочь в достижении этих целей. Однако, несмотря на инициативы, такие как система баллов K-point для визы E-7-4 или региональная визовая программа F-2-R, многие иностранцы сталкиваются с трудностями при их получении.

Что же с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ми семьями, которые часто ограничены работой на заводах или в ресторанах? Для лучшей адаптации в корейском обществе и поиска достойной работы им необходимо улучшить уровень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 получить диплом университета. Однако сочетать работу и учебу нелегко, а обучение в университете требует значительных затрат времени и денег. Но теперь появился доступный вариант, который помогает преодолеть эти препятствия.

Реально ли окончить университет в Корее?

Киберуниверситет Кёнхи (ректор: Бён Чангу) с поддержкой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разования Кореи создал факультет «Глобальная автономия» для иностранных резидентов. Благодаря формату онлайн-занятий и экзаменов, студенты могут совмещать работу с обучением. Стоимость обучения в университете в несколько раз ниже, чем в других вузах: если годовое обучение в традиционных корейских университетах составляет 7–9 млн вон, то здесь, с учетом стипендий, стоимость всего 1,512,000 вон в год.

В первый год студенты изучают базовые предметы, такие как «Университетский корейский язык 1 и 2», «Корейское общество и основы университета», «Исследование профессий и учебные стратегии», а также «Глобальное лидерство». Это помогает адаптироваться к учебной среде и выбрать подходящее направление для дальнейшего обучения. На старших курсах можно углубленно изучать IT, электронику, менеджмент, туризм,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и другие специальности.

Что делать, если вы не знаете корейский?

Даже без знани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вы можете поступить в Киберуниверситет Кёнхи. Перед началом учебы вас направят на подготовительный курс в Центр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университета, где вы получите базовые знания. За прохождение курса студентам начисляются 6 учебных кредитов. На протяжении обучения студенты могут чередовать занятия по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и специальным дисциплинам, улучшая свои языковые навыки. При этом уровень TOPIK 3 (средний) или выше значительно облегчает освоение программы, а за получение уровня TOPIK 4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дополнительная стипендия.

Какие преимущества дает диплом?

Киберуниверситет Кёнхи является филиалом престиж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Кёнхи, и выпускники получают дипломы, официально признаваемые как степени 4-летнего обучения. Это открывает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возможности: выпускники получают 20 баллов в системе K-point для визы E-7-4, а за счет знаний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TOPIK 4) добавляют еще 120 баллов. Кроме того, диплом увеличивает шансы на получение региональной визы и улучшает социальный статус в корейском обществе.

Например, Ли Джиын, выпускница из Вьетнама, отметила: «До учебы я чувствовала, что не могу стать частью коре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Но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университета я обрела уверенность и стала полноценным членом общества».

Стипендии и льготы

Студенты факультета «Глобальная автономия» получают разнообразные стипендии: за поступление, за успеваемость и на основе жизненных обстоятельств. Более 97% первокурсников и студентов, переведенных из других вузов, получают финансовую помощь. Также университет предоставляет скидки на медицинские услуги в больницах Кёнхи и бесплатные услуги перевода для мигрантов.

Как подать заявку?

Прием документов на первый семестр 2025 года проходит до 14 января 2025 года (первый этап) и до 14 февраля 2025 года (второй этап). Заявку можно отправить через сайт Центра приема Киберуниверситета Кёнхи (go.khcu.ac.kr).

По словам профессора Со Чжинсук, «Киберуниверситет Кёнхи помогает иностранным студентам развивать как академические, так и практические навыки, обеспечивая их успешной адаптацией и стабильной жизнью в Коре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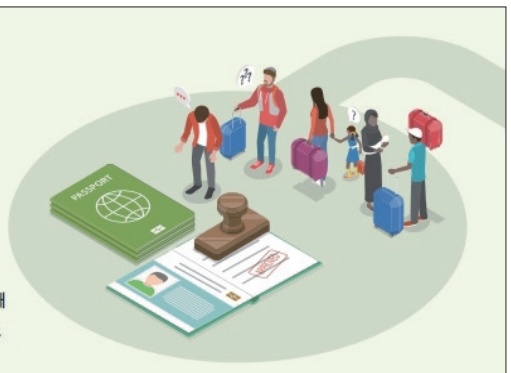
Более подробную информацию можно получить на сайте или по телефону для консультаций: 02-959-0000. 〈한글 기사 지난호 5면〉

출입국 인포

출입국심사,

이것만 알아도 더욱 편리하게 마칠 수 있습니다.

법무부가 내·외국인 승객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출입국심사제도를 소개한다.



국민 입국심사대 이용 가능 외국인

시행 배경

우리 사회의 든든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및 동반가족, 영주자격 소지자의 출입국 편의와 재외동포의 모국 방문 환대 분위기 조성

대상

- 결혼이민자(F-6) 및 동반가족
- 재외동포
- 영주자격(F-5) 소지자

이용방법

국민입국심사대에서 심사 진행

※동반가족은 결혼이민자의 부모 및 자녀에 한하며, 재외동포는 여권상의 인적사항 등을 통해 동포임을 추정할 수 있어야 함.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안내

법무부는 승객의 여권정보와 바이오정보를 활용해 자동화기기로 출입국심사를 진행하는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01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① (국민)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만 17세 이상(사전등록 불요)

② (외국인) 외국인등록 또는 거소신고를 한 만 17세 이상 (사전등록 불요)

* 만 7세 이상 만 17세 미만 국민 및 외국인은 사전등록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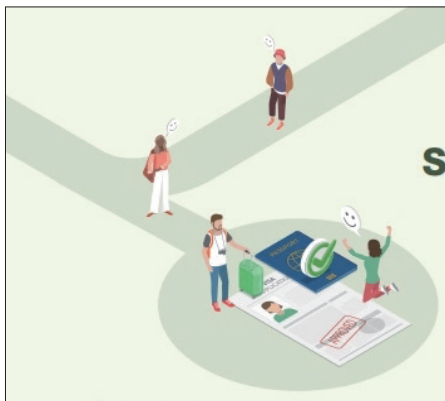
※ 입국 시 지문과 얼굴정보를 제공한 만 17세 이상 단기체류 외국인은 출국 시 이용 가능

02 사전등록 절차 및 필요서류는?

① 만 14세 이상 사전등록 신청자
- 직접 자동출입국 등록센터를 방문하여 등록
- 여권(공통),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② 만 7세 이상 만 14세 미만 사전등록 신청자
- 법정대리인을 동반하여 등록
- (국민) 3개월 이내 발급한 신청인의 상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 신분증
- (외국인) 신청인과 법정 대리인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출생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Place +



Smoother Immigration Procedures

Here are some tips for enjoying smoother, more convenient immigration procedures being implement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Foreign Nationals Eligible to use the Entry Lane for Korean Passport Holders

① Marriage migrants(F-6 visa holders) and their accompanying family members
② Overseas Koreans
③ Permanent residents(F-5 visa holders)

Smart Entry Service(SES)

The SES is an automated immigration clearance system provid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which uses passengers' passports and biometric data for processing both entry and departure.

01 Eligible Individuals

① **(Korean National)** Those aged 17 and older who hold a national ID card (Prior registration is not required.)

② **(Foreign National)** Those aged 17 and older who are registered or have reported domestic residence(Prior registration is not required.)

* Prior registration is required for those between 7 and 16.

※ Foreign tourists aged 17 and older who provided their fingerprint and facial image information during entry inspection are eligible to use SES upon departure.

02 Prior Registration Procedures & Required Documents

① **Applicants aged 14 and older**
- Visit an 'SES Enrollment Center'
- Passport(common requirement), residence card or domestic residence card

② **Applicants aged 7 and under 14**
- Required to be accompanied by a legal guardian
- **[Korean National]** Detailed basic certificate, family relations certificate of the applicant issued within the last 3 months, legal representative's ID
- **[Foreign National]** Documents provi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pplicant and the legal representative(birth certificate, etc.), legal representative's ID

국적 심사 진행 상황 이제 실시간으로 확인하세요!

하이코리아(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귀화 및 국적회복 신청의 진행 상황을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국적심사 진행 상황을 심사 단계별로 쉽게 확인하세요!

조회방법

❶ 하이코리아(hikorea.go.kr) 로그인
❷ 정보조회 -> 국적 심사 진행 상황 조회
❸ 귀화 및 국적회복 접수번호, 여권번호, 생년월일 입력 후 조회 가능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KOREA IMMIGRATION SERVICE, MINISTRY OF JUSTICE

출입국 업서

'KIS 1345'로 물어보세요!

출입국·외국인정책에 대한 궁금한 점을 알려드려요

Q 저는 영어회화 강사로 일하고 있고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이면 계약이 만료되어 본국으로 돌아갈 예정인데요. 완전출국 절차가 궁금합니다.

A 출입국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완전출국을 하는 등록 외국인은 반드시 출국심사를 받을 때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Q 이번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었는데요. 한국 여권을 아직 가지고 있는데 한국에 입국할 때 사용해도 될까요?

A 「국적법 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사람은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며 「여권법 13조」에 따라 대한민국 여권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유효하지 않은 여권으로 입국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7조」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9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재외공관 또는 국적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방문하여 국적상실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Q 가족 방문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할 계획입니다. 출국금지 또는 출국정지 상태인지 미리 알고 싶은데요. 절차가 궁금합니다.

A 본인이 신분증을 소지하고 가까운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방문하여 신원확인 후 본인의 출국금·정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 국민의 경우 공동인증서가 있다면 하이코리아를 통한 온라인 출국금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소송수행 변호인은 본인의 위임을 받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출국금·정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 변호인신분증, 변호인선임계, 본인 신분증 사본 및 신청서(출국금·정지 조회요청서)

Q 남편이 한국에서 대학교수로 재직하게 되어 한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현재 임신 중이고 한국에서 출산할 예정인데요. 아이가 태어나면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

A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23조」에 따라 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를 방문하여 체류자격을 부여 받아야 합니다.

Q 서울 소재 대학을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인데요. 방학기간 동안 생활비를 벌고 싶어서 아르바이트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유학생 비자는 일을 하면 안되나요?

A 대학에 재학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통상적으로 대학생이 행하는 아르바이트 수준의 시간제 취업활동에 한하여 소속 대학 확인 및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허가를 받은 경우 취업활동을 일부 허용하고 있습니다. 학기 중에는 주중 25시간~35시간의 취업활동이 가능하며, 방학 중에는 시간의 제한 없이 시간제 취업활동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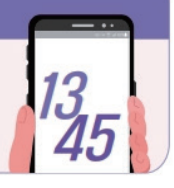
재한외국인의 행정 · 생활정보 질문에 답해드립니다.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상담시간 : 평일 09:00~22:00 (한국어 포함 20개국 안내 / 야간 18:00 이후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안내 운영)

대표전화

일반전화, 휴대폰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45로 연결



다문화가족, 남양주 청년정책 확인

청년의 꿈 응원 남양주형 청년정책 사업 발표

남양주시는 2025년 청년들의 제안과 니즈를 반영한 11개 신규사업을 편성하며, '청년의 움직임으로 성장하는 남양주'를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다. 이번 신규사업들은 민선 8기 신설된 청년정책과가 3주년을 맞아 그간 연간 만여 명 이상의 청년들과 소통하며 얻은 아이디어와 제안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남양주시는 경기 불황과 취업난과 사회적 고립.·은둔, 연애.결혼.출산 등을 포기하는 N포 현상 등 경제적.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희망과 활력을 제공하며, 사회활동 참여와 밝은 미래 설계를 지원할 다양한 사업을 준비했다.

주요 신규사업에는 ▲청년 간의 인적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청년들썩 커뮤니티' 발굴지원 사업 ▲청년들의 건강한 일상을 위한 '핏-트니스 챌린지' ▲청년 인재 발굴을 위한 '숨은 보석 플랫폼' 사업 등이 포함됐다.

또한, 청년들의 사회적 경험과 역량 강화, 견문 확대를 위한 청년인턴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들이 청년들의 욕구를 반영해 추진된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남양주형 청년 사업들을 통해 청년들의 개인적 성장은 물론, 상호 간 건강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규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남양주시 청년정책에 대한 다양한 정보는 청년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nyjyouth7) 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청년 다문화가족도 월세 지원해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027년까지 연장

남양주시는 지난 10일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2027년도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코로나 19로 인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해당 사업을 한시적으로 시행됐으나, 지난해 신청 기간을 연장한 데 이어 지원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했다.

이번 사업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청년 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43만 원), 재산가액 1억 2,200만 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502만원), 재산가액 470백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단,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은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만 적용되며, 공공임대주택 또는 2촌 이내 혈족 주택에 임차 거주하는 청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은 생애 1회,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월 25일까지며, 신청은 수시로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및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 증빙 내역 ▲청약통장 사본 등이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LH에서 운영하는 전담 콜센터 (1600-0777) 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김영의 기자

「性病やエイズが心配なら、どこで検査を受けられる？

世界エイズの日とは？

12月1日は「世界エイズの日」でした。このため、韓国各地でエイズに関する正しい情報を提供し、感染者に対する偏見や差別を解消するためのキャンペーンが行われました。エイズ(AIDS)は、ヒト免疫不全ウイルス(HIV)に感染して免疫機能が低下した状態を言います。　日常的な接触では感染せず、安全な性交渉で感染を予防することができます。エイズ感染の初期には、頭痛、発熱、喉の痛み、皮膚の発疹など、風邪に似た症状が現れることがあります。そのため、感染が疑われる場合は、疑わしい時点で4週間後にHIV検査を受けることが重要です。

エイズ検査はどうやって受けるの？

韓国で外国人がエイズ検査を受けるには2つの方法があります。まず、「外国人エイズ予防支援センター」での検査です。ソウルや京畿道鞍山など様々な地域で検査を受けることができますが、常時運営されているわけではないので、必ず電話で問い合わせてください。特にエイズ検査と一緒に様々な性病検査も一緒に受けることができます。無料で検査を受けることができ、自分が誰であるかを明かす必要もありません。検査後、20分以内に結果を確認することができるので、とても便利です。2つ目の方法は、全国の保健所での検査です。無料、匿名での検査は同じですが、韓国語以外で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が難しく、通常1週間ほど経たないと検査結果が分かりません。

外国人エイズ予防支援センターとは？

韓国の疾病管理本部は「外国人エイズ予防支援センター」(www.khap.org)を運営しています。

ソウル市城北区に位置する「外国人エイズ予防支援センター」は、国内滞在外国人のためのエイズ検診や相談など、エイズに関する総合サービスを提供しています。また、外国人にエイズに関する様々な情報を知らせ、外国人エイズ感染者や患者に様々な支援サービスなどを提供しています。

外国人エイズ予防支援センター」はソウル(城北区東小門路209、1階)にあり、京畿道安山市(安山市檀園区元谷路15-1、4階)にも検査施設がありますが、いつも開いているわけではないので、必ず電話で問い合わせてください。

必要に応じて、全国の主要都市で検査を行うこともあります。

お問い合わせ： 02-927-4322

〈한글 기사 24면〉 파파야스토리

다문화가족 통번역서비스

대상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을 직·간접으로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

내용 한국말이 서툰 결혼이민자의 가족
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 지원

지원언어 베트남어, 몽골어, 중국어
기타언어에 대한 지원은 인근센터와 연계하여 지원

문의 031-553-8211 (베트남어) 031-556-8212(중국어) 031-556-8211(몽골어)

온가족보듬사업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와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가족 구성원의 친밀감 증진과 가족기능 회복을 지원합니다.

대상 취약위기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 다문화가족긴급위기가족(재난·사고등)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우선 지원 가능(서류필요)

내용 상담 : 개인상담, 부부상담, 가족상담, 아동미술치료 등
사례관리 : 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 생계지원, 기관 연계 등
사례회의를 통해 대상자로 선정 후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문의 031-556-8211 (다문화지원팀)
031-555-8261(가족상담팀)

다문화가족의 건강한 삶, 새해에도 광주시가족센터와 함께해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원사업, 자녀 기초학습지원사업 및 진로설계 심리상담 등 운영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사업 신청

광주시가족센터는 올해도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사업을 진행한다.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사업은 한국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 제공 및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는 ▲방문한국어교육과 1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결혼이민자에게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아동 양육 및 한국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부모교육서비스가 제공된다. 또한, 자아.정서.사회성 발달에 어려움을 겪는 만 12세 이하의 다문화가족 자녀와 중도입국 자녀에게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는 ▲자녀생활서비스가 진행된다. 방문한국어교육은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중도입국자녀를 대상으로 약 10개월간 80회기 교육이 제공된다. 부모교육 서비스는 자녀가 있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며, 임신.출산.영아기(임신 중~생후 12개월 이하)와 유아기(12개월 초과~48개월 이하), 아동기(48개월 초과~ 만12세 이하) 자녀를 두어야 한다. 약 5개월간 총 40회기 교육이 이뤄지며 최대 3회 지원된다. 자녀생활 서비스는 독서코칭, 숙제 지도, 자아.정서.사회성 발달을 위한 지도와 기본생활습관, 가정생활, 진로지도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다문화가족 자녀(초등학교 재학~만 12세 이하)와 중도입국자녀(최초 입국 5년 이내)를 대상한다. 교육은 약 10개월간 80회기 진행된다.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사업은 주 2회, 회당 2시간씩 오후 6시 이전 이용 대상 가정에서 진행되며, 이용료는 소득 판단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상시모집한다. 031-798-7137, 7141

#다문화 기초학습지원 참여자 모집

광주시가족센터는 다문화가족 자녀 기초학습지원 참여자를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오는 2월부터 12월까지며, 참여 확정 후 일정이 조율된다. 장소는 광주시가족센터 교육장이며, 다문화가족 자녀 초등 4~6학년 대상이다. 최대 10명 선착순 모집하며, 참여 확정시 개별 연락된다. 신청은 전화(070-4706-3618) 또는 방문 접수하며 상시 모집한다.

기초학습지원 프로그램은 국어, 수학이며 주 2회 수업이 이뤄진다. 1회 2교시 수업이 진행되며, 1교시는 40~45분이다. 수업은 국어의 경우 문해력 기르기와 글을 읽고 한 문장으로 정리하기, 독서 활동이 이뤄지며, 수학은 개인 수준별 학습(복습)으로 개념정리 및 문제 풀기와 연산 풀기가 진행된다.

#다문화자녀 진로설계 심리 상담

광주시가족센터는 다문화자녀 진로설계를 위한 '심리.진로 상담'을 진행한다.

다문화 아동.청소년(7~24세)과 다문화가족 자녀, 외국인가족 자녀, 난민가족 자녀면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는 연중 상시 모집하며, 상담 내용은 정서(감정) 조절 어려움, 가족.대인관계 고민, 학습.학업문제, 진로.진학 정도 등과 심리검사 진행이다. 상담은 월~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 개인 일정에 따라 조율할 수 있다. 상담 장소는 광주시가족센터 2층이며, 주 1회 1시간씩 10회기 진행된다. 문의 070-4706-3617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광주시가족센터는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지원언어는 베트남어와 중국어다.

다문화가족과 외국인.난민가족 및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가족생활 및 국가간 문화 차이 등 입국 초기 상담 통번역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 국적.체류 관련 정보 제공 ▲임신.양육 등 생활정보 안내 및 상담 내용 통번역 ▲교육과정 통번역 지원 ▲사법기관 이용 시 통번역 등을 지원한다. 070-4706-3733 김영의 기자

부문	코스	거리	쪽수	예상 독서량		우수자 선정 코스
				총 권수	한달	
초등학생	3km	3km	1,500쪽	30권	4권	10km
	5km	5km	2,500쪽	50권	7권	
	10km	10km	5,000쪽	100권	13권	
일반 (청소년, 실버포함)	3km	3km	1,500쪽	5권	1권	풀코스
	5km	5km	2,500쪽	9권	2권	
	10km	10km	5,000쪽	17권	3권	
	하프	21.1km	10,500쪽	35권	5권	
	풀	42.195km	21,098쪽	71권	9권	
가족	하프	21.1km	10,500쪽	60권	8권	풀코스
	풀	42.195km	21,098쪽	121권	15권	

전통 장(醬) 담그기 체험 참여 신청 안내

농업기술센터에서 옛 선조들이 담그는 전통 방식으로 장(醬) 담그기 체험을 실시합니다.

전통 장(醬) 담그기에 직접 참여하실 분은 아래 사항을 참고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통 장(醬) 담그기 체험 신청》

1. 신청기간: 2025. 1. 20.(월)~1. 29.(수)
2. 신청대상: 광주시민
3. 신청인원: 60명
4. 체험안내:

○ **체험량: 1인 1말 → 된장 5kg 2통, 간장 900ml 2병**
- 메주는 체험자 개인 1말(7kg 4장) 준비
- 1조 당 5~6명 구성하여, 공동 작업 예정

○ **체험비용: 40,000원/1인** ※ 신청자에 한해 납부방법 별도 안내
- 소금. 고추씨가루, 광목, 고무줄, 숯, 꿀, 용기 준비에 활용 예정

○ **신청방법: 인터넷 접수**
(시청홈페이지 → 민원신청 → 종합신청센터 → 농업기술센터 교육)
-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사본(주민번호 뒷자리 제외, 광주시 거주 확인용)
- 제출방법: dlrkdms0915@korea.kr(메일) / 031-760-4759(문자, 수신 가능)

※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청 홈페이지 "새소식" 참조

《체험 세부 안내》

○ 소금 푸는 날: 2025. 2. 17.(월) 13:30~
○ 장 담그는 날: 2025. 2. 19.(수) 13:30~
○ 장 가르는 날: 2025. 4월 하순 ※ 일정 사전 공지 예정
○ 장 푸 는 날: 2025. 9월 하순 ※ 일정 사전 공지 예정
○ 장 소: 광주시농업기술센터 장독대(이배재로 209-5)
○ 문 의: 농업지원과 생활기술팀(☎031-760-2487, 4759)

☆ 참고사항 ※ 체험 지침 참조
- 신청 접수 순으로 조 배정되며, 위 안내된 4회의 체험은 반드시 참석
- 준비물 : 메주, 작업복, 머리수건, 고무장갑, 앞치마, 장화 등 개인 물품

광주 다문화가족에 도움 될 정보

디딤씨앗통장 대상 확대 및 공공심야약국 운영

#광주 디딤씨앗통장 대상 확대

광주시는 올해 1월부터 취약계층 아동의 자립을 돕는 디딤씨앗통장의 대상자를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디딤씨앗통장은 아동이 적립한 금액을 정부에서 1대 2로 매칭해 지원한다.

적립금은 18세 이후 학자금, 창업 지원, 기술자격 및 취업 훈련, 주거비 등으로 사용 가능한 아동 대상 자산 형성 지원사업이다.

올해 가입 대상은 0~17세 보호 대상,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아동이며 차상위계층은 올해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광주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총 2천330여 명을 지원할 수 있는 국.도비 14억 원을 확보한 상태이며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행복 광주 독서 마라톤 운영

광주시는 독서 장려 캠페인 2025년 '행복 광주 독서 마라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행복 광주 독서 마라톤'은 독서를 마라톤 코스에 접목, 독서량을 거리로 환산해 신청한 코스를 완주하는 독서 캠페인으로 8월 말까지 약 8개월 동안 이어진다.

도서관 홈페이지에 안내된 독서 마라톤 전용 페이지에서 초등학생 이상 도서관 정회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부문별(초등학생, 일반, 가족)로 원하는 코스를 선택하고 캠페인 기간 중 읽은 도서의 독서일지를 등록하면 그 도서의 페이지 수를 환산해 달린 거리로 인정된다.

완주한 참가자들에게는 인증서 발급과 함께 다음 해 1년간 도서 대출 권수 확대 및 3회 연체면제 혜택을 주고 부문별로 우수자를 선정해 광주시장상을 수여한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확인 또는 중앙도서관 운영팀(760-5680)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통 장(醬) 담그기 체험 모집

광주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통 장(醬)류에 대한 홍보와 현장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5년 전통 장(醬) 담그기 체험'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장(醬) 담그기 체험은 메주를 이용해 장을 담고 푸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며 장(醬)류 식품을 계승하고 경험할 수 있는 교육이다.

체험은 장(醬) 담기, 가르기 등 4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마지막 장 푸기까지의 관리도 시민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해 장(醬) 담그기 교육의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2025년 전통 장(醬) 담그기 체험은 광주시민 6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오는 2월 17일과 19일 이틀에 걸친 장독 소독 및 장(醬) 담그기를 시작으로 9월까지 진행된다.

체험 접수는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 광주시청홈페이지(농업기술센터 교육)에서 온라인 신청으로 운영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청 홈페이지(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사항은 농업지원과 생활기술팀(031-760-4759)으로 하면 된다.

#1월부터 '공공심야약국' 운영

광주시는 지난 1일부터 공휴일을 포함해 365일 자정까지 운영하는 제1호 '공공심야약국'을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광주시가 지정한 제1호 공공심야약국은 경안동에 있는 '옵티마소망약국'으로 국비와 광주시의 지원을 받아 휴일을 포함해 매일 자정까지 운영된다.

공공심야약국은 시민들의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약사로부터 전문적인 복약 지도를 통해 의약품 오남용 및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의 기자

Если вы беспокоитесь о венерическ их заболева ниях и СПИДе, где мож но пройти обследование?

Что такое Всемирный день б орьбы со СПИДом?

1 декабря отмечался Всемир ный день борьбы со СПИДом. В связи с этим по всей Корее п рошли кампании, направленны е на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достовер ной информации о СПИДе, а т акже на борьбу с предрассудк ами и дискриминацией в отно шении инфицированных люде й.

СПИД (AIDS) — это состояни е, вызванное вирусом иммуно дефицита человека (HIV), кото рое приводит к снижению имм унной функции. Заражение не происходит при обычных конта ктах, и его можно предотврати ть с помощью безопасных пол овых отношений.

На ранних стадиях инфекции СПИДа могут появляться симп томы, похожие на простуду: го ловная боль, повышение темп ературы, боль в горле, кожная сыпь. Поэтому, если есть подо зрения на заражение, важно п ройти тест на HIV через четыр е недели после предполагаем ого заражения.

Как пройти тест на СПИД?

В Корее иностранцы могут п ройти тест на СПИД двумя спо собами:

Во-первых, можно обратитьс я в «Центр поддержки профил актики СПИДа для иностранце в».

Тестирование доступно в та ких регионах, как Сеул и город Ансан (провинция Кёнгидо), но центры работают не постоянн о, поэтому нужно обязательно уточнять информацию по теле фону. В центре можно пройти тест не только на СПИД, но и н а другие венерические заболе вания. Тестирование бесплатн ое и анонимное, а результаты можно узнать уже через 20 ми нут после анализа.

Второй способ — обратиться в любой местный центр общес твенного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보건소). Здесь также можно прой ти тест бесплатно и анонимно, но сотрудники могут говорить только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а р езультаты анализа обычно гот овы через неделю.

Что такое «Центр поддержки профилактики СПИДа для ино странцев»?

Центр поддержки профилак тики СПИДа для иностранцев (www.khap.org), организованн ый Корейским агентством по к онтролю и профилактике забо леваний, предоставляет услуг и обследования и консультаци и для иностранцев, проживаю щих в Корее.

Центр, расположенный в рай оне Сонбук в Сеуле, предлага ет полный спектр услуг, связан ных с диагностикой СПИДа, ко нсультированием и распростр анением информации. Также о н предоставляет различные ус луги поддержки иностранцам, инфицированным СПИДом.

Центры находятся в Сеуле (209, Донсомун-ро, Сонбук-гу, 1 этаж) и в Ансане (15-1, Вонг ок-ро, Танвон-гу, 4 этаж). Одна ко они работают не постоянно, поэтому перед посещением не обходимо уточнять расписани е по телефону.

При необходимости центры организуют тестирование и в д ругих крупных городах. Контак тный телефон: 02-927-4322.

〈한글 기사 24면〉

파파야스토리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광주시가족센터에서는 무료로
통·번역 서비스(베트남어, 중국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 다문화가족, 외국인 · 난민가족 및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

서비스 내용
- 가족생활 및 국가 간 문화차이 등 입국 초기 상담 통번역
-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 국적·체류관련 정보 제공
- 임신·출산·양육 등 생활 정보 안내 및 상담내용 통번역
- 교육과정 통번역 지원
- 행정·사법기관 이용시통번역
- 병원, 보건소, 경찰서, 학교 등 공공기관이용 시 통번역
- 위기 상황 시 긴급지원 통번역
- 기타 다문화가족을 직·간접적으로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에서 의뢰하는 통·번역업무 등

지원 언어 베트남어 중국어

이용 시간 9:00 ~ 18:00 (월 ~ 금) 점심시간 (12:00~13:00)

서비스 유형 통역, 번역, 정보제공

문의처 070-4706-3733

센터 카카오스토리

광주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자녀 기초학습지원 참여자 모집

| 모집개요

학습기간	2025년 2월 ~ 12월 (참여 확정 후 일정 조율)
장소	광주시가족센터 교육장
모집 대상	다문화가족자녀 초등 4, 5, 6학년
모집 인원	최대 10명 (선착순) *참여 확정 개발 연락
신청 방법	전화 및 방문접수/상시모집
문의	기초학습지원 070-4706-3618

기초학습지원 프로그램 안내

학습과목	시간 안내	주요 내용
국어, 수학	주 2회 1회 2교시 수업 (1교시 : 40~45분)	★국어 : 문해력 기르기 - 글을 읽고 한문장으로 정리하기 - 독서활동 ★수학 : 개인 수준별 학습(복습) -개념정리 및 문제풀기 -연산풀기

광 주 시 가 족 센 터

1 방문한국어교육

㉮ 내용 한국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 제공 및 한국어 교육 제공

㉯ 대상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 교육 기간 약 10개월(80회기)
※ 센터 한국어 교육과 중복 이용 불가

2 부모교육 서비스 추천

㉮ 내용 1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결혼이민자에게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아동 양육 및 한국 생활에 필요한 정보 제공

㉯ 대상 자녀가 있는 결혼이민자
1) 임신·출산·영아기
(임신 중 ~ 생후 12개월 이하)
2) 유아기(12개월 초과 ~ 48개월 이하)
3) 아동기(48개월 초과 ~ 만12세 이하)

㉰ 교육 기간 약 5개월(40회기), 최대 3회 지원
※ 센터 한국어 교육과 중복 이용 불가

3 자녀생활 서비스

㉮ 내용 자아·정서·사회성 발달에 어려움을 겪는 만 12세 이하의 다문화 가족 자녀와 중도 입국 자녀에게 다양한 교육 제공
1) 독서코칭, 숙제지도
2) 자아·정서·사회성 발달을 위한 지도
3) 기본 생활 습관, 가정 생활, 진로 지도

㉯ 대상 다문화 가족 자녀(초등학교 재학 ~ 만 12세 이하), 중도입국자녀(최초 입국 5년 이내)
※ 만 12세 초과일 경우 초등학교 재학 중이라면 지원 가능

㉰ 교육 기간 약 10개월(80회기)
※ 방문학습지와 중복 지원 불가

교육 시간 및 장소

주 2회, 회당 2시간(18시 이전) / 이용 대상 가정

모집기간

상시모집

이용료

소득 판정에 따라 본인부담금 발생(연도별 상이)

유의사항

㉮ 동일 대상자에 지자체 유사 사업(센터 언어 발달사업, 방문학습지 등)과 중복 지원 불가

㉯ 동일한 가구에 방문교육서비스 동시 제공 불가

㉰ 신청 후 대기 기간이 발생할 수 있음

문의전화

광주시가족센터 ☎ 031-798-7137, 7141
(광주시 퉁미로 52번길 19)

신청절차

광주시가족센터 내방(신청서 작성 및 홈페이지 가입) > 대기 >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정부유형판정) > 서비스 이용

양평군가족센터, 지역사회 돌봄 필수 생활지원사 정년퇴임 행사

양평군가족센터(센터장 박우영)는 지난 12월 정년퇴직하는 생활지원사 5명의 퇴임식을 가졌다.

생활지원사는 고령화 사회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돌봄 인력으로, 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혼자 지내는 독거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안전과 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우수 생활지원사(심수연)와 최우수 생활지원사(강미자)를 선정하여 축하하는 시간도 가졌다.

양평군가족센터 관계자는 "생활지원사 여러분과 함께 해서 행복했다. 새로운 내일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가족센터는 최근 5명의 생활지원사를 새로 채용했다.

자료 양평군가족센터

이지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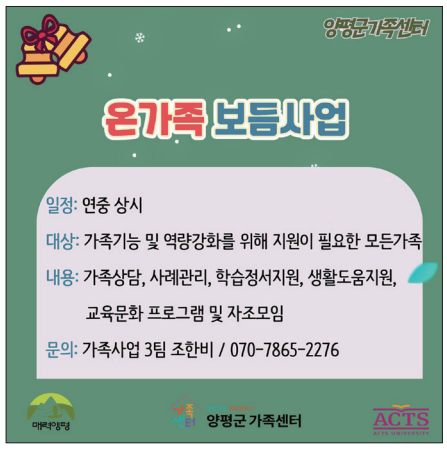
양평군민 공공텃밭 분양 대상자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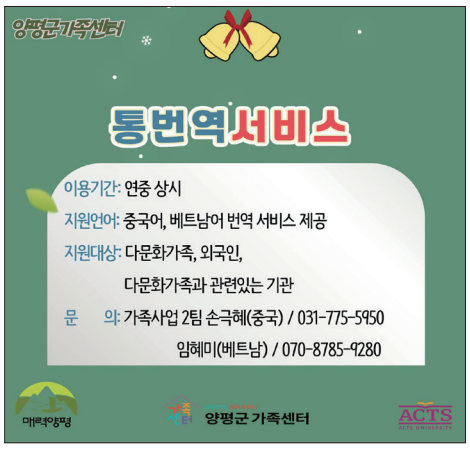
양평군은 1월 13일부터 24일까지 "양평군민 공공텃밭"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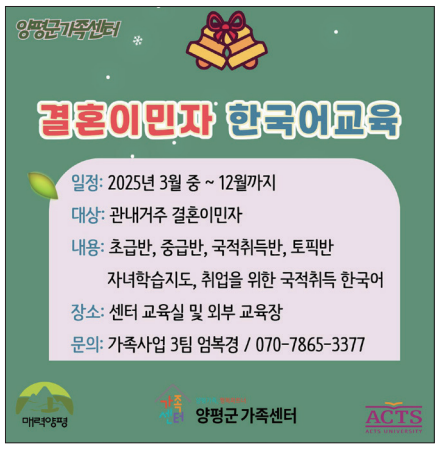
"양평군민 공공텃밭"은 군민에게 생활 속 친환경 영농활동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농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가꾸고 수확하는 기쁨을 통해 활력을 충전하여 건강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조성된 공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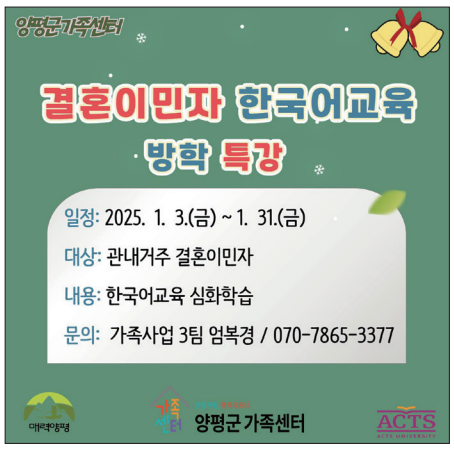
공공텃밭 신청접수는 관내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유치원 등공공기관(단체) 대상 특별분양과 거주 주민(세대주) 대상 일반분양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일반분양의 경우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3자녀 이상) 등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할 예정이다. 분양 규모는 196구획(1구획당 약 17㎡)으로 구획 당 임대료는 30,000원이고, 4월부터 11월까지 경작할 수 있다. 선정자는 오는 2월 10일부터 양평군청 홈페이지 게시와 문자로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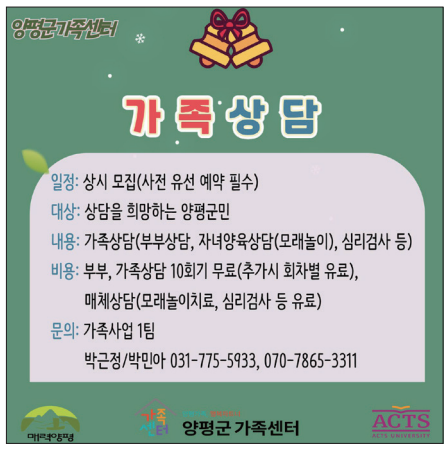
문의 031-770-2795 송하성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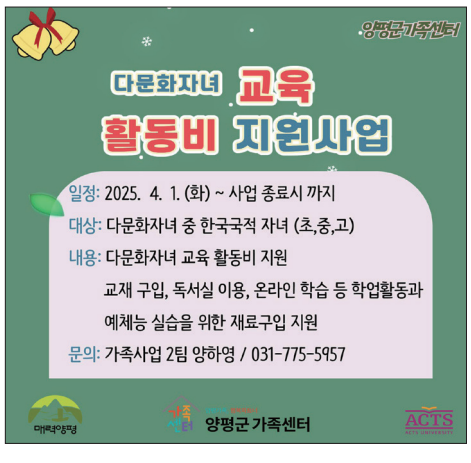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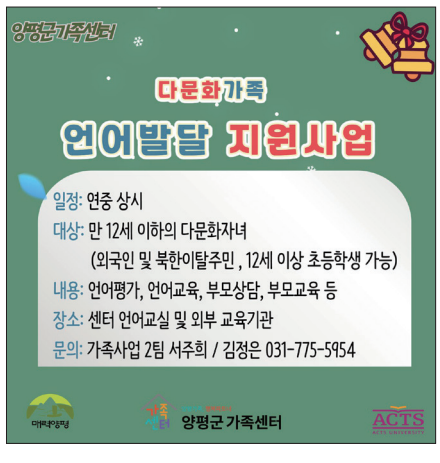












다문화가족을 위한 전화번호 안내

양평군청 031-773-5101 양평군가족센터 031-775-5951 양평군보건소 031-770-3502 양평일자리센터 031-770-1020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031-492-9347 범죄신고 112 간첩신고 111 화재, 응급환자발생 및 병원정보 119 보건복지콜센터 129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전기고장신고 123 수도고장신고 121 가스사고신고 1544-4500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전국전화번호안내 114 세계시간안내 116 일기예보안내 131

한국어 교육으로 일상에 활력과 자신감!

하남시가족센터, 2025 한국어교육 상반기 수강생 모집

하남시가족센터는 1월 16일 오후 6시까지 '2025년 상반기 한국어교육' 수강생을 모집한다. '2025년 상반기 한국어교육'은 하남시 거주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어교육을 무료 지원하며, 입문반과 자녀학습지도 과정은 2월부터 개강 될 예정이다.

'2025년 상반기 한국어교육'은 입문반, 자녀학습지도 과정 외에도 한국어 기초, 중급, 고급, TOPIK반 등 다양한 한국어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어 및 문화를 활용해 결혼이민자의 한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네트워크 형성기회를 마련하게 된다. 한국어 기초, 중급, 고급, TOPIK반 등은 추후 모집 예정이며, 반 배치고사를 통해 반 배정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2025년 하남시가족센터 한국어교육은 ▲입문반 ▲자녀학습지도 과정 ▲한국어 기초, 중급, 고급 ▲TOPIK반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개강식은 2월 10일 진행될 예정이며, 한국어교육을 신청한 이용자와 가족들이 함께 참석해 '2025년 한국어교육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료하기 위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하남시가족센터(031-793-2993) 사업1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하남 결혼이민자, 네일아트 자격증 역량 UP

하남시가족센터(센터장 문병용)는 결혼이민자의 역량 강화와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인 '결혼이민자 역량강화교육(취업준비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하남시 거주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며, 결혼이민자 기초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소양교육과 취업 준비.전문역량 강화 교육을 목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결혼이민자 역량강화교육'으로 네일아트 자격증반 〈네일UP 취UP〉이 진행되며, 결혼이민자 10명으로 대상으로 오는 3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사전교육 2회기와 네일자격증 교육 24회기(총 26회기)가 진행될 예정이다. 주 2회 진행되며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금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운영된다. 3월 7일과 3월 10일 오전 10시부터 12시30분까지 진행되는 사전교육 후 본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문병용 센터장은 "결혼이민자들이 취업 준비교육을 통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특히 잠재된 재능과 능력을 발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네일아트, 운전면허교육 등 다양한 주제로 취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참여자 신청은 1월 24일부터 2월 2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 031-793-2993

김영의 기자

하남시가족센터, 모두가족봉사단 참여자 모집

하남시가족센터는 하남시 거주 선주민.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2025년 모두가족봉사단' 참여자를 모집한다. 모집 인원은 40가정이다.

하남시가족센터 모두가족봉사단은 지난해 지역 벽화 그리기 봉사, 다문화 음식 나눔 봉사, 지역 환경 살리기 봉사활동, 독거노인 어르신 반찬 나눔 봉사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2025년에도 환경 봉사활동, 나눔 봉사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2025년 모두가족봉사단'은 하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가정으로 봉사를 통한 건강한 가족 취미 활동을 희망하는 가정, 봉사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길 희망하는 가정, 새로운 이웃을 만들고 다양한 가족과의 교류를 희망하는 가정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문의 031-793-2993

김영의 기자

'콜록콜록' 전국 독감환자 급증

하남시, "백신 접종 서두르세요"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지난달부터 전국적으로 고열과 기침 등을 동반한 인플루엔자(독감)가 급속도로 유행함에 따라 백신 접종과 호흡기 질환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4년 마지막 주(52주차·12월 22~28일) 전국의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의료기관 300곳을 찾은 외래환자 1,000명 가운데 독감 증상을 보인 의심환자 수를 나타내는 독감 의사환자(ILI) 분율은 73.9명이었다.

1주 전인 51주차 1,000명당 31.3명과 비교하면 136% 급증했다. 이는 예년 인플루엔자 유행 정점 때의 2016년 86.2명 이후 8년 만에 최대 수치다.

모든 연령대에서 환자가 증가했지만 특히 13~18세 청소년층에서 환자 수가 많았다. 13~18세 환자는 1,000명당 151.3명이었다. 이어 7~12세가 137.3명, 19~49세 93.6명, 1~6세 58.4명, 50~64세 45.7명 순이었다. 하남시는 면역력이 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심각한 합병증 예방을 위해 독감백신 예방접종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하남시는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위험군으로 분류되는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13세 이하의 영유아 및 어린이, 임신부,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4월 30일까지 무료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대상자는 신분증 및 임신 확인 서류(임신부) 등을 지참해 지역 지정 의료기관 147개소를 방문하거나 전국 지정 의료 기관을 찾아 접종받을 수 있다. 지정 의료기관은 하남시보건소 홈페이지 및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강용 하남시보건소장은 "최근 인플루엔자가 급속도로 유행하고 있고 통상적으로 봄철까지 유행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이미 늦었다고 판단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받기를 권고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송하성 기자

Предварительный и комплексный экзамены программы социального интеграции: теперь проходить проще!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편리하게!

В Сеуле появился экзаменационный центр для прохождения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го и комплексного экзаменов программы социального интеграции, которая является обязательной для проживания иностранцев в Корее.

До сих пор экзаменационные центры существовали только в двух местах – в городе Квандмён (провинция Кёнгидо) и Тэджоне. Новый центр в Сеуле существенно улучшит удобство не только для проживающих в столице иностранцев, но и для жителей северных и восточных районов Кёнгидо.

Министерство юстиции и Фонд корейской иммиграции 30 декабря провели церемонию открытия центра компьютерного тестирования программы социального интеграции в Сеуле.

Новый центр, расположенный на 12 этаже здания «Baeksang Building» по адресу: Сеул, район Чонно-гу, Инсадонг 7-гиль, дом 12, предоставляет возможность иностранцам в любое время проходить экзамены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компьютеров. Эти экзамены необходимы для получения вида на жительство, гражданства или продления разрешения на пребывание в Корее.

Предварительный экзамен предназначен для определения уровня знаний иностранцев, желающих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программе социального интеграции. Он измеряет уровень владения корейским языком и понимание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Комплексный экзамен проводится для тех, кто подает заявление на получение гражданства. Он проверяет базовые знани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культуры и общества.

Сеульский центр стал третьим компьютерным экзаменационным центром в стране после открытия центра в Квандмёне в марте 2022 года и центра в Тэджоне в ноябре 2023 года. Новый центр отличается удобным транспортным расположением, что делает его особенно привлекательным для мигрантов.

Благодаря открытию центра в Сеуле, участие в программе стало удобнее не только для жителей столичного региона, включая Сеул и Кёнгидо, но и для участников из других регионов страны. Теперь они могут выбирать удобные даты для сдачи экзаменов. Кроме того, так как это постоянный экзаменационный центр, достаточно забронировать время, чтобы прийти и пройти тес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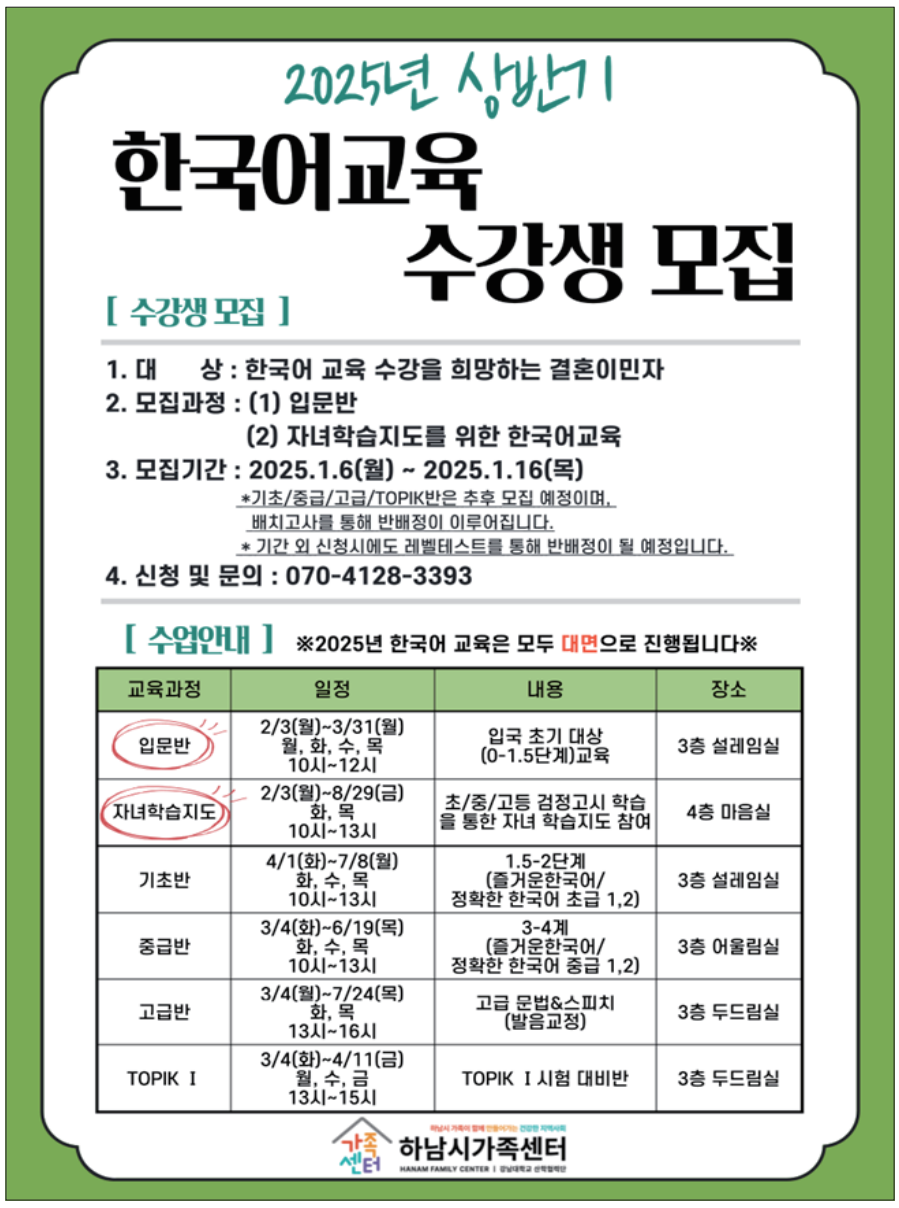
Подробную информацию о процедуре регистрации и расписании экзаменов можно найти на официальном сайте программы социального интеграции (www.kiipte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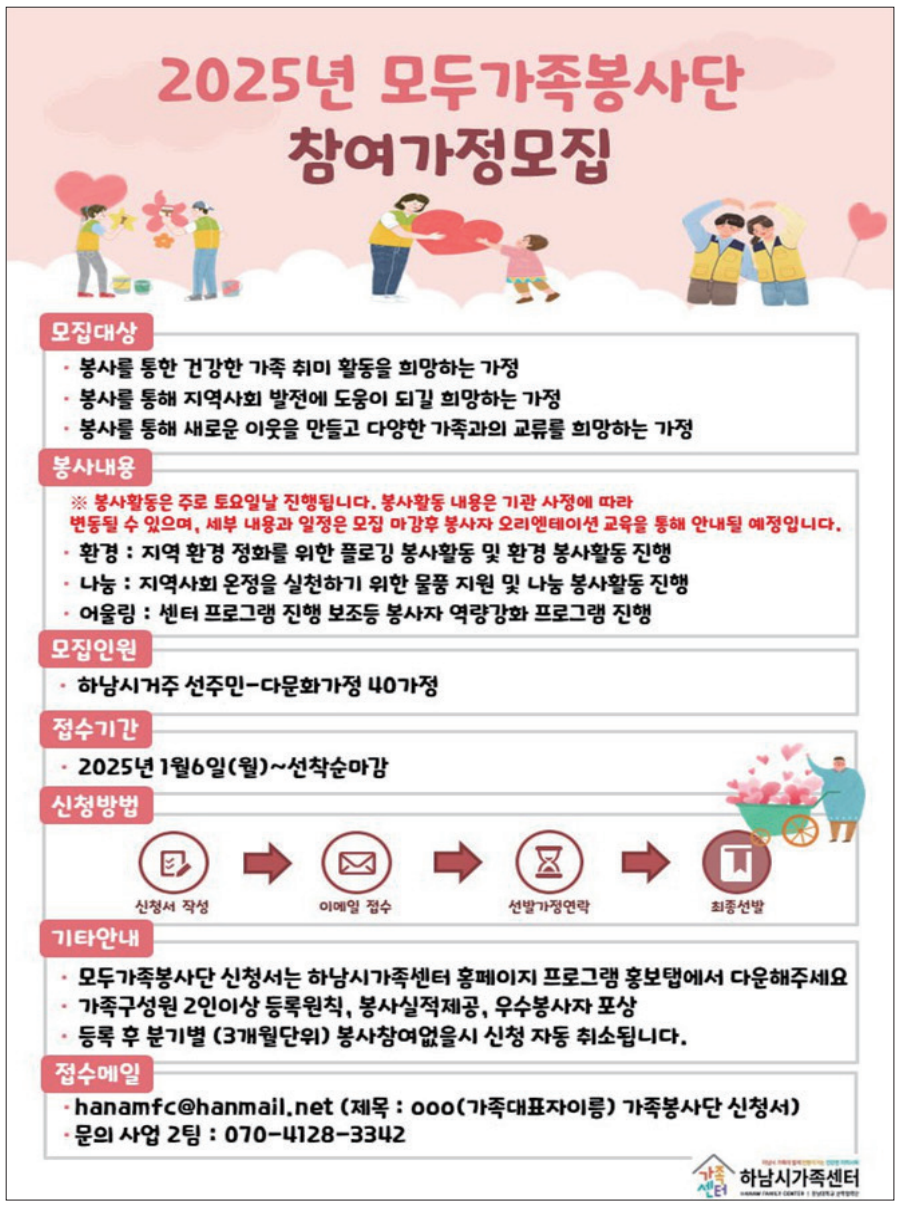
Глава Глав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иммиграционной политики Пэ Саноп отметил:

«В первый год запуска программы социального интеграции в 2009 году участие в ней приняли около 1300 человек. В этом году количество участников превысило 70 000, что подчеркивает важность этой программы для адаптации мигрантов в корейском обществе. Мы будем и дальше развивать инфраструктуру, чтобы участники могли проходить обучение и оценку в максимально комфортных условиях».

〈한글 기사 28면〉

파파야스토리





"새해도 평택시가족센터와 행복한 삶 만들어요"

평택시가족센터, 통번역 서비스 등 다문화가족 위한 프로그램 운영

평택시
가족센터
방문을 환영합니다.

가족이 웃을 수 있는 세상,
평택시 가족센터가 함께 만듭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평택시가족센터는 평택시 관내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 등을 대상으로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가족 대화, 공공기관(은행, 병원 등), 센터 이용 시 통역을 지원하는 ▲통역서비스와 가족편지, 문자, 국적취득, 체류 연장 관련 서류 등 번역을 지원하는 ▲번역서비스, 임신.출산.양육과 국적취득. 체류연장.교육 정보 등을 제공하는 ▲정보 제공이다.

신청은 서비스 신청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서비스가 지원된다. 베트남어는 1~3일, 타 언어는 3~5일 소요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평택시가족센터(북부 031-615-3963, 서부 031-660-7473)로 하면 된다.

#다문화 자녀 언어발달지원

평택시가족센터는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언어발달지원사업은 만 12세 이하 언어발달교육이 필요한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이며, 국가 및 지자체 유사사업(바우처 등) 대상자 및 방문교육 자녀생활서비스 대상자는 지원이 안 된다.

신청은 서비스 대상자(자녀) 정보로 직접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된다. 홈페이지 신청 후 지원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평택시가족센터(031-615-3960)로 하면 된다.

#공동육아나눔터, 품앗이 모집

평택시공동육아나눔터는 이웃들이 자녀를 함께 돌봄으로서 육아 부담을 덜고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는 활동을 하는 돌품 품앗이를 모집한다. 평택시 거주 품앗이에 관심 있는 가정 3그룹(그룹당 3가정 이상)을 모집하며, 품앗이 활동을 하는 가정당 월 1만원을 지원한다. 품앗이 활동 장소도 지원하며, 2년간 활동하게 된다. 우수 활동 그룹은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활동은 월 1회 이상 놀이, 보육, 체육, 체험 등이 다양하게 진행되며, 월별 활동계획서와 월별 활동일지 작성이 이뤄진다. 접수는 연중 받으며, 방문 및 메일(ptfc2012@hanmail.net)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평택시공동육아나눔터(1호점 031-654-0903, 2호점 031-611-0308, 3호점 031-668-9445)로 하면 된다.

#지역사회와 손만두 만들기

평택시가족센터는 바르게살기운동 안중읍위원회와 함께 하는 '손만두 만들기' 체험에 참여할 여성 결혼이민자 30명을 모집한다. '손만두 만들기' 체험은 오는 1월 22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평택시민의공간 1호에서 진행되며 만두 만들기 체험이 이뤄진다. 신청은 전화로 받는다. 문의 031-660-7473 김영의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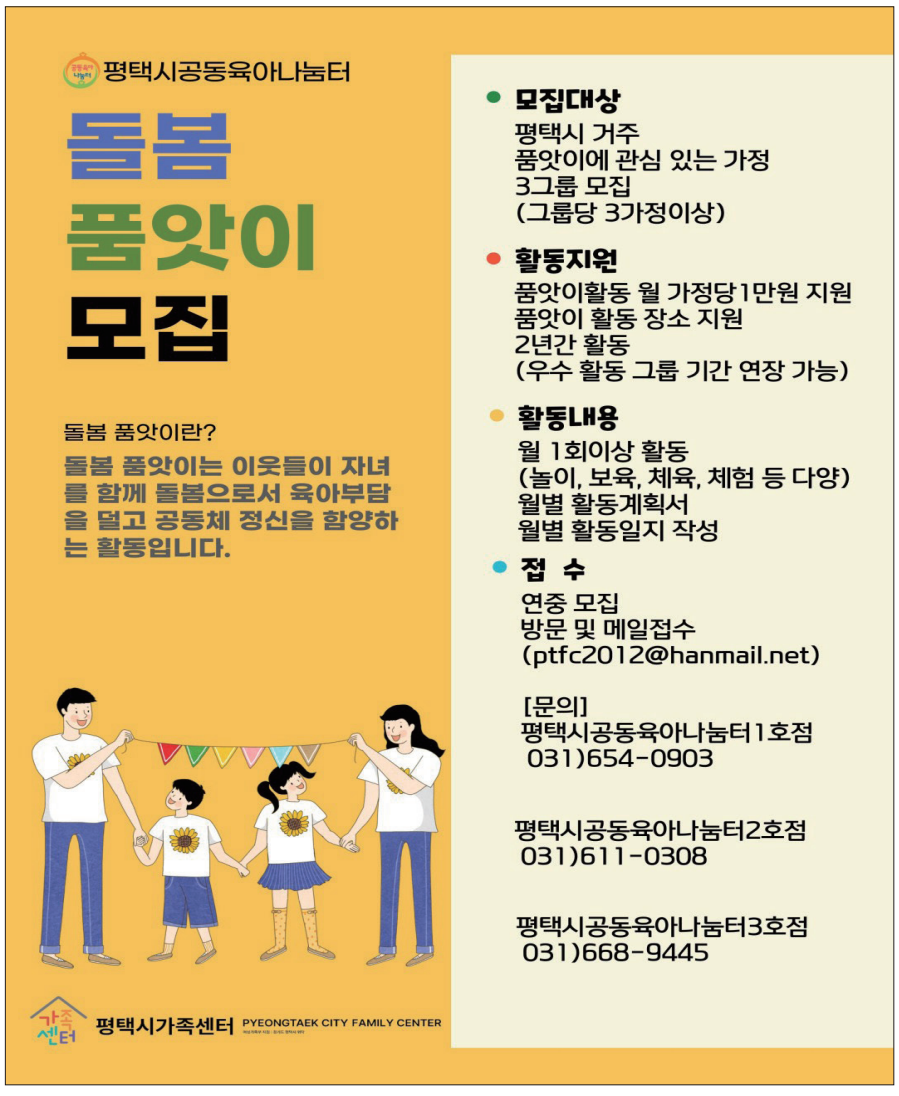
평택보건소, 새해 금연 실천 도와요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금연 습관 형성과 간접흡연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금연 클리닉에서는 방문자를 대상으로 일산화탄소 측정검사, 니코틴 검사 등을 진행하며 등록카드를 작성해 방문 회차별 상담 매뉴얼을 기본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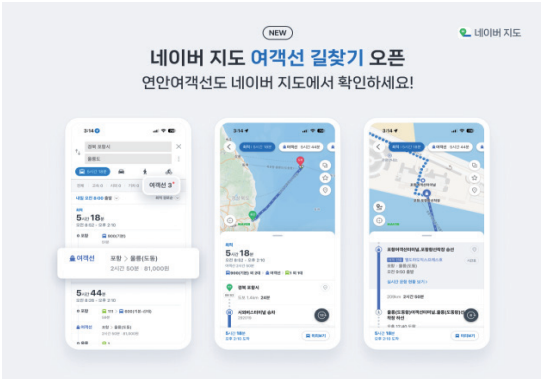
금연 패치, 니코틴 껌 등 금연 보조제 및 행동강화물품 지급과 함께 6개월간 1:1 맞춤 상담으로 금연을 돕고 있으며, 이후에도 금연을 지속할 수 있도록 6개월간 문자를 통해 금연 유지 독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금연을 희망하는 시민들이 간편하게 금연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무늬(QR코드)를 활용한 금연 클리닉 신청 서비스를 운영해 생활 속에서 손쉽게 금연 클리닉에 참여하고 금연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평택보건소(031-8024-4417), 송탄보건소(031-8024-7263) 김영의 기자



한국에서 목적지, 어떻게 쉽게 찾을까?

‘네이버 지도’, 다국어로 빠른 길찾기 서비스 제공



해양수산부와 한국 최대의 정보 포털 서비스인 ‘네이버’는 외국인을 비롯한 국민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네이버 지도를 통해 ‘여객선 길찾기’ 서비스를 제공해요.

‘네이버 지도(map.naver.com)’는 한국에서 자동차와 대중교통(버스, 기차, 항공) 등을 이용해 가장 빠른 길찾기를 하는 서비스로 유명해요. 여기에 여객선도 포함된 것이에요.

이용하는 방법은 ‘네이버 지도’ 사이트에 들어가 목적지를 섬, 터미널 등으로 검색하면 여객선 운항 경로 및 시간, 요금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요. 앞으로 목적지 검색 후 여객선 예매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에요. 기차와 버스는 지금도 네이버 지도 검색을 통해 예매가 가능해요.

4개 언어도 지원

이렇게 좋은 서비스도 다국어로 제공하지 않으면 외국인에게는 소용이 없겠지요. ‘네이버 지도’는 한국을 관광하는 외국인들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의 다국어 검색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어요.

네이버 지도는 외국인주민이 원하는 곳에 가장 빠르고 편리하게 가는 방법을 보여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국어 리뷰 정보 및 플레이스 정보도 다국어로 제공해요.

국내 최대의 장소 정보를 제공하는 ‘네이버 지도’는 실제 장소를 방문했던 사용자들의 구체적인 경험이 담긴 리뷰 번역을 제공하며 외국인주민이 가볼 만한 장소를 탐색할 때도 매우 유용해요.

특히 플레이스 필터 번역은 외국인 사용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음식점 업종을 대상으로 우선 지원되며 다국어 서비스는 스마트폰의 OS 언어설정이나 네이버 지도 앱 내 언어설정에 따라 이용할 수 있어요. 한국어를 비롯해 영어·중국어·일본어 4개 언어를 지원하는 국내 지도 서비스는 네이버 지도가 유일해요. 〈중국어 하단, 베트남어 31면, 태국어 31면, 영어 우측〉

파파야스토리

在韩国旅行时如何找到目的地的路线？

“Naver地图”，多语言服务助您快速查询驾车和公共交通路线

韩国海洋水产部与韩国最大的门户信息服务平台“Naver”合作，为包括外国人在内的民众提供更加便捷的客轮服务。“Naver地图”现已上线“客轮路线查询”服务。

“Naver地图（map.naver.com）”是韩国广受欢迎的服务之一，能够帮助用户快速查询通过驾车、公共交通（如公交车、火车、飞机）等方式到达目的地的最佳路线。现在客轮也被纳入服务范围。

进入“Naver地图”网站，搜索岛屿、码头等目的地，即可实时查看客轮的航线、时间表、费用等信息。

之后还将推出搜索目的地后可直接预订客轮的功能。目前，火车和公交车票已经可以通过Naver地图进行预订。

支持四种语言

如果这么好的服务不提供多语言功能，对于外国人来说也就无法使用了。为了方便来韩国旅游的外国游客，“Naver地图”提供英语、中文、日语等多语言搜索服务。

Naver地图不仅显示前往目标地点最快、最便捷的路线，还提供多语言版本的韩国语评论信息和场所信息。

作为国内最大的场所信息提供平台，“Naver地图”支持用户写的实际访问的体验评论翻译，对于外国居民探索值得去的场所非常有帮助。

特别是Place Filter翻译优先支持外国用户喜爱的餐饮行业，多语言服务可以根据智能手机的操作系统语言设置或Naver地图应用内的语言设置使用。

目前支持韩语、英语、中文、日语四种语言，是韩国唯一支持多语言的地图服务。

〈한글 기사 상단〉

파파야스토리

How do I find my way to my destination when traveling in Korea?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nd Naver, Korea’s largest information portal service, are providing a ‘passenger ship route search’ service through Naver Maps to help Koreans, including foreigners, use passenger ships more easily and conveniently.

‘Naver Map (map.naver.com)’ is famous in Korea as the fastest route-finding service using cars and public transportation (buses, trains, and airplanes). It also includes passenger ships. To use it, go to the ‘Naver Map’ site and search for destinations such as islands and terminals. Then, you can see real-time information such as passenger ship routes, times, and fares.

In the future, we plan to provide a service that will allow you to search for your destination and even reserve a ferry ticket all at once. You can still reserve trains and buses through Naver Maps search.

Also supports with 4 languages

Even such a great service would be of no use to foreigners if it were not provided in multiple languages. Naver Maps also provides multilingual search service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etc. for foreigners traveling to Korea.

Naver Maps not only shows foreign residents the fastest and most convenient way to get to their desired location, but also provides Korean review information and place information in multiple languages.

‘Naver Map’, which provides the largest amount of location information in Korea, provides translated reviews containing specific experiences of users who have actually visited the location, and is also very useful for foreign residents when searching for places to visit.

In particular, place filter translation is primarily supported for the restaurant industry, which is highly preferred by foreign users, and multilingual services can be used according to the language settings of the smartphone OS or the language settings in the Naver Map app. Naver Map is the only domestic map service that supports four languages, including Korean, English, Chinese, and Japanese.

〈한글 기사 좌측 상단, 인터넷에서 파파야스토리를 검색하세요,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태국어, 영어, 한국어 등 6개 언어로 더욱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만날 수 있어요. 파파야스토리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다양한 혜택을 찾으세요〉

파파야스토리

"성병 및 에이즈 검사, 어디서?"

'외국인 에이즈예방 지원센터' 무료 익명 검사

세계에이즈의날이 뭐야?

지난 12월 1일은 '세계 에이즈의 날'이었어요. 이 때문에 한국 곳곳에서는 에이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감염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캠페인이 진행됐어요.

에이즈(AIDS)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되어 면역기능이 떨어진 상태를 말해요. 일상적인 접촉으로는 감염되지 않으며, 안전한 성관계로 감염을 예방할 수 있어요.

에이즈 감염 초기에는 두통, 발열, 인후통, 피부발진 등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따라서 감염이 의심되면 의심 시점에서 4주 후에 HIV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해요.

에이즈 검사는 어떻게 받아?

한국에서 외국인이 에이즈 검사를 받으려면 2가지 방법이 있어요. 먼저 '외국인 에이즈예방 지원센터'를 통해 검사를 받는 것이에요.

서울과 경기도 안산 등 여러 지역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 상시 운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전화로 문의해야 해요.

특히 에이즈 검사와 함께 여러 가지 성병 검사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자기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아도 돼요. 검사 후 20분 이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아요. 두 번째 방법은 전국의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는 것이에요. 무료, 익명으로 검사를 받는 것은 동일한데 한국어 외에는 소통이 어렵고 보통 1주일 정도 지나야 검사 결과를 알 수 있어요.

외국인 에이즈예방 지원센터가 뭐야?

한국의 질병관리본부는 '외국인 에이즈예방 지원센터'(www.khap.org)를 운영하고 있어요.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외국인 에이즈예방 지원센터'는 국내 체류 외국인을 위한 에이즈 검진과 상담 등 에이즈 관련 종합서비스를 제공해요. 또한 외국인에게 에이즈에 대한 각종 정보를 알리고, 외국인 에이즈 감염인이나 환자들에게 각종 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어요.

'외국인 에이즈예방 지원센터'는 서울(성북구 동소문로 209, 1층)에 있고 경기도 안산(안산시 단원구 원곡로 15-1, 4층)에도 검사 시설이 있지만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전화로 문의해야 해요.

필요에 따라 전국 주요 도시에서 검사를 진행하기도 해요. 문의 02-927-4322 〈중국어 31면, 베트남어 9면, 러시아어 17면, 태국어 9면, 영어 30면, 일본어 15면〉

파파야스토리

"외국인주민 지원방안 지속 고민해"

평택시, 새해맞이 평택외국인복지센터 격려 방문해

평택시 김대환 복지국장은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지난 6일 평택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김우영)를 방문했다. 이날 방문에서는 새해 덕담과 함께 신년 인사를 나누며 직원들을 격려했고, 이후 센터 시설을 견학하며 현장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청취했다.

평택시의 외국인주민 수는 4만 5천여 명(총인구 대비 7.1%)으로 전국 226개 지자체 중 8위, 경기도 6위에 해당하는 손꼽히는 밀집 지역인만큼, 이번 평택외국인복지센터 현장 방문은 2025년 새해 외국인주민 지원 정책 전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김대환 복지국장은 "지난해 지역 내 외국인주민의 인권 보호와 권익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신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올해에도 평택시는 외국인주민을 위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외국인주민의 안정적 정착, 지역사회의 인식개선 등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다양한 문화가 함께하는 도시 평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평택시외국인주민센터는 외국인들이 한국 생활에서 겪는 생활 고충에 대한 상담은 물론 한국어교육, 조기적응 프로그램 운영, 법률자문, 공동체 활동, 정보 제공, 네트워크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편 평택시는 꾸준히 증가하는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4년 상반기, 제1차(2024-2028) 평택시 외국인주민 등 지원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 연차별로 사업을 수행 중이다. 하반기에는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 관련 6개 분야의 27개 민관기관이 참여해 외국인지원 민관협의체(TF)를 구성해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내국인의 통합을 도울 방법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영의 기자

외국인근로자 체계적인 도입 관리

평택시, 도내 최초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개소해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2일 '평택시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중앙로 264, 운영시간 9~17시)를 개소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평택시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 수급 및 지역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가의 계절근로자 제도 참여 정보 안내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출국, 무단이탈 등 체계적인 체류 관리 ▲숙련 기능인력 외국인 근로자 체류자격 변경(K-point E74) 추천 등 농업 분야 인력난을 해소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한다. 특히, 평택시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외국인근로자센터가 개소되면서 평택시 관내 외국인 근로자 실태조사 및 관련 단체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유기적 협조체계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평택시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경기도 최초로 개소해 운영되는 만큼 지역 내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 및 체계적인 관리로 인력 수급을 지원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의 기자

독자여러분께 알립니다

경기다문화뉴스는 경기도와 시군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다문화가족의 생활정보 및 정책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결혼이주여성, 외국인 주민 등 구독을 원하는 다문화가족 혹은 구독을 원치 않는 분 그 밖에 주소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기다문화뉴스로 연락해 주세요.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444, 7층(쥬네브 썬월드 메디컬동) 8호
● 전화 031-8001-0211 ● 문자 010-2455-9331(변동사유, 이름, 주소 문자가능)

신문발간을 위해 애써주시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산시, 부천시, 시흥시, 김포시, 평택시, 수원시, 화성시, 파주시, 남양주시, 용인시, 광주시, 오산시, 하남시, 구리시, 양평군, 과천시, 연천군, 광명시

경기다문화뉴스

이주민·외국인을 위한 학위과정 개설

경희사이버대학교 글로벌자율학부

글로벌자율학부로 입학 (1학년)

한국어기초(한국어센터), 대학한국어, 한국사회및문화이해, 전공탐색, 진로및경력개발 등 학습

선택이 가능한 학부(전공)·과 (2~4학년)

IT | 경영 | 관광 | 한국어 교육 | 전자정보 | 세무회계 | 사회복지 | etc.

2학년 진입 시, 경희사이버대 모든 학부(전공)·과 중 선택 가능
(한국어능력+직업능력 향상)

재학생 혜택

장학지원

· 글로벌자율학부로 입학 시, 졸업까지 등록금 **50% 감면** 혜택
* 한 학기 등록금 : 756,000원 (6과목 등록 기준)

학위취득

· 온라인으로 정규 4년제 대학 학사 학위 취득
· 경희사이버대학교 진학 후, 오프라인 대학교 편입 및 대학원 진학 가능

의료지원

· 경희의료원 의료비 할인 혜택
· 의료 번역 서비스 지원(리터러시M)

비자지원

· TOPIK 4급 취득 및 학사 학위 취득 시, E74 비자 발급에 필요한 K-point 140점 확보 가능
· TOPIK 응시료 지원 및 TOPIK 4급 취득 시 장학금 지급

교육지원

· 한국어센터 한국어 강의(디딤돌 과정) 수강료 **50% 감면**

QR코드

입학지원센터 go.khcu.ac.kr | 입학문의 02-959-0000 | 글로벌자율학부 02-3299-8723

Opening of degree programs for migrants and foreigners

Kyunghee Cyber University Undeclared Major

Admission to the Undeclared Major (1st year)

Learning basic Korean (Korean Language Center), University Korean,
Understanding Korean society and culture, Major exploration, Career and Career development, etc.

Selectable Departments (Majors) and Courses (2nd to 4th Year)

IT | Management | Tourism | Korean Language | Electronic Information | Tax Accounting | Social Welfare | etc.

When entering the second year, you can choose from all departments (majors) and courses
(improvement of Korean language skills + job skills)

Benefits for Current Students

Scholarship support

· When entering the Global Autonomous Department, **50% tuition discount until graduation**
* Tuition per semester: 756,000 won (based on 6 subjects)

Obtaining a degree

· Lấy bằng cử nhân tại Trường đại học thuộc hệ chính quy 4 năm qua online
· Sau khi nhập học tại Trường đại học từ xa Kyung Hee, các bạn sinh viên có thể liên thông sang Trường đại học hệ chính quy hoặc liên thông lên hệ cao học

Medical support

· Kyunghee Medical Center Medical Fee Discount Benefits
· Medical Translation Service Support (Literacy M)

Visa support

· When you obtain TOPIK Level 4 and a bachelor's degree, you can secure 140 K-points required for E74 visa issuance
· Support for TOPIK test fee and scholarship upon obtaining TOPIK Level 4

Educational Support

· **50% discount on tuition** for Korean language classes (stepping stone course) at the Korean Language Center

Homepage QR Code

Admissions Support Center go.khcu.ac.kr | Admissions Inquiry 02-959-0000 | Undeclared Major 02-3299-8723

为移居民·外国人开设的学位课程

庆熙网络大学 全球自主学部

全球自主学部的入学课程（1年级）

韩国语基础（韩国语中心）、大学韩国语、韩国社会与文化理解、专业探索、职业与生涯发展等学习

可选学部（专业）及课程（2~4年级）

IT | 经营 | 旅游 | 韩国语教育 | 电子信息 | 税务会计 | 社会福利 | 等

从2年级起，可在庆熙网络大学所有学部（专业）中选择（提升韩语能力与职业能力）

在校生福利

奖学支援

· 全球自主学部入学时，入学至毕业为止可享受50%学费减免优惠
· 每学期学费：756,000韩元（按6门课程计算）

学位取得

· 在线取得四年制正规大学学士学位
· 庆熙网络大学升学后，可选择线下大学插班或研究生入学

医疗支援

· 庆熙医疗院医疗费用优惠
· 医疗翻译服务支援（Literacy M）

签证支援

· 取得TOPIK 4级及学士学位后，可获得E-7-4签证所需的K-point 140分
· TOPIK考试报名费用支援，取得TOPIK 4级时提供奖学金

教育支援

· 韩国语中心的韩语课程（桥梁课程）学费享受50%减免

官网二维码

入学申请中心 go.khcu.ac.kr | 入学咨询电话 02-959-0000 | 全球自主学部 02-3299-8723

Khai giảng các khóa học cấp bằng dành cho người nhập cư và người nước ngoài

Trường đại học từ xa Kyung Hee, Khoa tự chọn toàn cầu

Xét tuyển vào Khoa tự chọn Toàn cầu (năm 1)

Học tiếng Hàn cơ bản (Trung tâm tiếng Hàn), tiếng Hàn đại học
Tìm hiểu xã hội và văn hóa Hàn Quốc, tìm hiểu chuyên ngành, hướng nghiệp và phát triển nghề nghiệp, v.v.

Khoa (chuyên ngành)/khoa tự chọn (từ năm 2 đến năm 4)

IT | quản lý | du lịch | giáo dục tiếng Hàn | thông tin điện tử | kế toán thuế | phúc lợi xã hội | v.v.

có thể tự chọn tất cả các khoa (chuyên ngành) của Trường đại học từ xa Kyung Hee khi nhập học năm 2
(nâng cao kỹ năng tiếng Hàn + kỹ năng nghề)

Quyền lợi dành cho các sinh viên đang theo học tại trường

Hỗ trợ học bổng

· Khi nhập học Khoa tự chọn toàn cầu sẽ được **miễn giảm 50% học phí** cho đến khi tốt nghiệp
* Học phí mỗi học kỳ: 756.000 won (khi đăng ký 6 môn)

Lấy bằng cử nhân

· Lấy bằng cử nhân tại Trường đại học thuộc hệ chính quy 4 năm qua online
· Sau khi nhập học tại Trường đại học từ xa Kyung Hee, các bạn sinh viên có thể liên thông sang Trường đại học hệ chính quy hoặc liên thông lên hệ cao học

Hỗ trợ y tế

· Ưu đãi giảm giá chi phí y tế tại Trung tâm Y tế Kyung Hee
· Hỗ trợ dịch vụ dịch thuật y tế (Kỹ năng M)

Hỗ trợ xin cấp visa

· Khi đạt TOPIK cấp 4 và có bằng cử nhân, sẽ được đảm bảo đạt 140 điểm cần thiết để xin cấp visa E74
· Hỗ trợ lệ phí thi TOPIK và cấp học bổng khi đạt TOPIK cấp 4

Hỗ trợ giáo dục

· **Miễn giảm 50% học phí** cho các khóa học tiếng Hàn tại Trung tâm tiếng Hàn (Khóa học Didimdol)

Mã QR của trang chủ

Trung tâm tuyển sinh go.khcu.ac.kr | Tư vấn tuyển sinh 02-959-0000 | Khoa tự chọn toàn cầu 02-3299-8723

국제교류. 외국인지원 활성화 힘모아요

평택시국제교류재단과 평택대, 지역과 세계 잇는 동행

평택시국제교류재단(대표이사 정종필)과 평택대학교(총장 이동현)가 지난해 12월 27일 평택대학교 본관 회의실에서 국제교류 및 외국인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평택시 관내 외국인 주민과 유학생들의 안정적인 생활 정착 지원, 국제교류 활성화, 그리고 주한미군 지원 확대 등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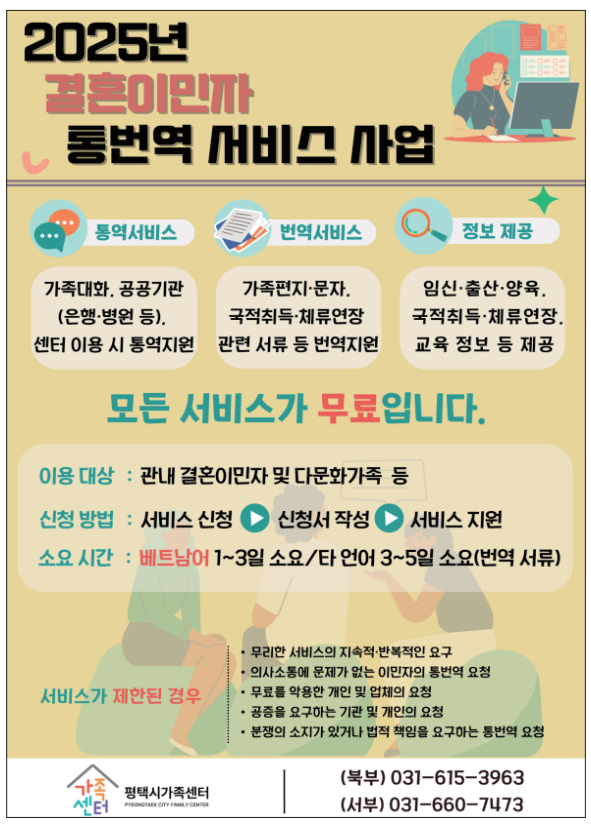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외국인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 유학생 대상 글로벌 인턴십 지원, 국제개발협력 사업 추진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의 전문성과 자원을 바탕으로 외국인 지원과 지역사회의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실천을 적극 도모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두 기관은 외국인 유학생 생활 정착 지원을 위해 유학생 대상 공공기관 인턴십과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생활 정보 제공 등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 대표자 회의를 운영해 유학생 의견을 수렴하고 내·외국인 간 상호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사회 통합을 촉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평택시 우호교류도시와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추진, 주한미군 정착 지원 확대 등 다양한 국제교류 사업도 전개할 예정이다.

정종필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평택시가 외국인과 내국인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글로벌 도시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며 "다양한 협력 사업을 통해 두 기관이 함께 성장할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동현 평택대학교 총장은 "평택대학교는 '지속가능한 혁신대학'과 '지역 협업 상생대학'이라는 목표로 국제도시 평택의 발전에 공헌하는 인재들을 배출해 왔다"라며 "두 기관의 협력이 평택 지역사회 전반적으로 혁신을 추동하고 ESG·윤리경영의 질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의 외국인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국제교류를 활성화해 평택시의 글로벌 역량을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의 기자



"สตรีตั้งครรภ์ในภาวะวิกฤติชาวต่างชาติยังสามารถรับคำปรึกษาและการสนับสนุนต่างๆ อีกด้วย"

ในเกาหลี "ระบบแจ้งเกิด" ซึ่งบันทึกการเกิดของเด็กทุกคนที่เกิดในสถาบันการแพทย์โดยอัตโนมัติ (ไม่รวมบุตรของชาวต่างชาติ) และ "ระบบการคลอดบุตรที่ได้รับการคุ้มครอง" ซึ่งช่วยเหลือสตรีมีครรภ์ที่เลี้ยงดูบุตรด้วยความยากลำบากให้คลอดบุตรภายใต้นามแฝง มีผลใช้บังคับแล้ว

ระบบการคลอดบุตรที่ได้รับการคุ้มครองคืออะไร?

ระบบการคลอดบุตรที่ได้รับการคุ้มครองเป็นระบบที่อนุญาตให้สตรีมีครรภ์บางรายที่ไม่ต้องการเผยแพร่ข้อเท็จจริงเรื่องการคลอดบุตรสามารถคลอดบุตรได้โดย "ไม่เปิดเผยตัวตน" ที่โรงพยาบาล โดยคำนึงถึงความเสี่ยงในการหลีกเลี่ยงการใช้สถาบันทางการแพทย์ผ่านการนำระบบแจ้งการเกิดมาใช้ 〈한글 기사 11면〉

ด้วยระบบนี้ สตรีตั้งครรภ์ที่อยู่ในภาวะวิกฤติที่ต้องการคำปรึกษาและความช่วยเหลือเกี่ยวกับการคลอดบุตรและการเลี้ยงดูบุตรสามารถ สมัครขอรับความคุ้มครองการคลอดบุตรได้ และสตรีมีครรภ์จะได้รับนามแฝงและหมายเลขการจัดการเพื่อรับการตรวจสุขภาพก่อนคลอด และการคลอดบุตรที่สถานพยาบาล เด็กที่เกิดภายใต้ระบบการคลอดบุตรที่ได้รับการคุ้มครองสามารถไปที่สถานรับเลี้ยงเด็กของรัฐบาล ท้องถิ่นหรือรับบุตรบุญธรรมได้

สมัครได้ที่ไหน?

สตรีมีครรภ์ที่อยู่ในภาวะวิกฤติสามารถขอคำปรึกษาจากหน่วยงานให้คำปรึกษาในพื้นที่ได้ทุกที่ทุกเวลาโดยโทร 1308 หรือบนมือถือ หน่วยงานให้คำปรึกษาในท้องถิ่นไม่เพียงแต่ให้ข้อมูลแก่สตรีตั้งครรภ์ที่ประสบปัญหาในการตั้งครรภ์, การคลอดบุตร, และการเลี้ยงดูบุตร เท่านั้น แต่ยังช่วยเชื่อมโยงเข้ากับบริการที่หลากหลาย เช่น การให้คำปรึกษาด้านจิตวิทยา, การสนับสนุนทางการแพทย์, และบริการ ด้านกฎหมาย

ตั้งแต่วันที่ 19 กรกฎาคมจนถึงสิ้นเดือนพฤศจิกายน เมื่อระบบการสนับสนุนการตั้งครรภ์และการคุ้มครองได้รับการดำเนินการ มีหญิงตั้งครรภ์ ในภาวะวิกฤต 749 รายได้รับการให้คำปรึกษาและความช่วยเหลือประเภทต่างๆ

แล้วหญิงตั้งครรภ์ชาวต่างชาติล่ะ?

หญิงตั้งครรภ์ชาวต่างชาติไม่สามารถสมัครระบบการคลอดบุตรที่ได้รับการคุ้มครองได้ แม้แต่ผู้ย้ายถิ่นจากการสมรส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แต่งงาน กับชายเกาหลีก็ไม่สามารถสมัครระบบการคลอดบุตรที่ได้รับการคุ้มครองได้ สิ่งนี้เป็นสิ่งที่ไม่พึงประสงค์เนื่องจากทำให้เกิดจุดบอดในระบบ การคลอดบุตรที่ได้รับการคุ้มครอง อย่างไรก็ตาม ชาวต่างชาติและสตรีมีครรภ์จากครอบครัวพหุวัฒนธรรมสามารถรับคำปรึกษาและความช่วยเหลือเช่นเดียวกับสตรีมีครรภ์ ที่อยู่ในภาวะวิกฤติชาวเกาหลีได้ หากดูในส่วนของรายละเอียดการช่วยเหลือ ▲สนับสนุนค่าคลอดบุตร (ค่าตรวจครรภ์, ค่าคลอดบุตร, ค่ารักษาพยาบาล, เพื่อนเดินทางไปโรงพยาบาล) ▲สนับสนุนค่าเลี้ยงดูหลังคลอด (ศูนย์ดูแลหลังคลอด, ผู้ช่วยมารดา, ผู้ช่วยดูแล) ▲สนับสนุนเงินช่วยเหลือฉุกเฉิน (ค่าครองชีพ, ค่ารักษาพยาบาล) ▲สนับสนุนค่าเลี้ยงดูบุตร (ชุดสิ่งจำเป็นในการคลอดบุตร, อุปกรณ์การเลี้ยงดูบุตร, การอบรมเลี้ยงดูบุตร, การให้คำปรึกษาในการเลี้ยงดูบุตร) ▲การรับบุตรบุญธรรม, การประสานงานกับ สถานคุ้มครองเด็ก (หน่วยงานการรับบุตรบุญธรรม, ศูนย์รับเลี้ยงเด็ก, บ้านอุปถัมภ์) ▲การสนับสนุนด้านที่อยู่อาศัย (การรับเข้าสถาน สงเคราะห์สำหรับสตรีมีครรภ์ในภาวะวิกฤติทั่วประเทศ) เป็นต้น

สตรีมีครรภ์ที่อยู่ในภาวะวิกฤติที่มีปัญหาในการคลอดบุตรและเลี้ยงดูบุตรเนื่องจากปัญหาทางการเงินหรือสถานการณ์อื่นๆ ควรโทร 1308 และรับคำปรึกษาตลอด 24 ชั่วโมง

다문화가족도 알아야 할 용인 지역사회 복지 프로그램 안내

용인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 모집 및 군 소음 피해 주민 보상금 신청 등

전세 대출이자 지원 부부 모집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결혼한 지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최대 100만원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키로 하고 1월 13일부터 31일까지 총 120쌍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용인시는 새롭게 출발하는 신혼부부가 주거비 부담을 줄이도록 돕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지원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가운데 2018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 내 혼인신고를 한 2인 가구 기준 월 소득 707만원 이하의 신혼부부로,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무주택자여야 한다.

용인시는 접수한 신청자 가운데 소득과 주택 소유 여부 등 자격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 전세자금 대출이자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모집 관련 상세 내용은 시 홈페이지(www.yongi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며 "주거 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올해도 내실있게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 소음 피해 주민보상금 신청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2월 28일까지 전투기·헬리콥터 등 군 항공기 소음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에게 지급하는 '군 소음 피해 지역 주민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대상지는 용인비행장(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일원) 작전 반경 안에 있는 포곡읍 전대리·유운리·삼계리 일부 지역과 오산비행장(평택시 서탄면 일원) 작전 반경 안에 있는 남사읍 진목리 일부 지역이다.

보상 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상지 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이다. 지난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사이 대상지 내 실제 거주하였으나 지난해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도 올해 신청할 수 있다.

군 소음 피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소음 측정 기준에 따라 월 최대 3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실제 거주기간, 전입 시기, 직장 여부 등을 고려해 금액을 산정한다.

신청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시청 기후대기과(031-6193-3393)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담당자 이메일(joonseog53@korea.kr)로도 접수할 있다.

소음대책지역 포함 여부는 국방부 군소음포털(https://mnoise.mnd.go.kr)에서 주소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다.

면접 정장 무료 대여 운영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면접을 앞둔 청년들을 돕기 위해 무료로 정장을 빌려주는 '희망옷장' 사업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대상은 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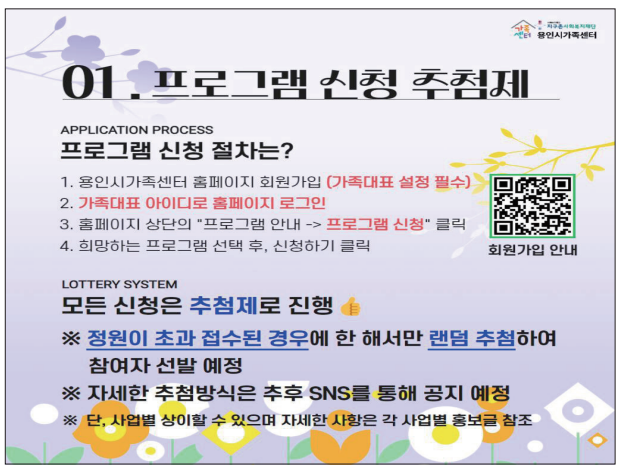
정장 대여를 원하는 청년은 시 홈페이지에 접속해 시민참여- 온라인신청- 용인청년 희망옷장 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정장 대여 업체 2곳(스완제이 기흥점, 판교점)에서 대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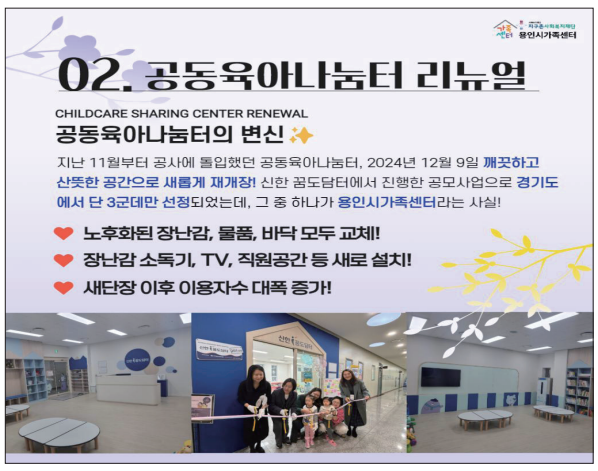
대여 품목으로는 남성복으로 자켓, 바지, 셔츠, 구두, 벨트, 넥타이 등이, 여성복에선 자켓, 바지, 스커트, 블라우스, 구두 등이다. 1인당 연간 3회까지 대여 가능하며, 1회 대여 기간은 4박 5일이다.

지난해 '희망옷장'을 이용한 1439건 중 96%가 구직활동에 도움되며 서비스에 '만족' 한다고 답했다.

시 관계자는 "매년 9월 전에 마감될 정도로 청년들에게 인기가 많은 사업으로 올해는 1인당 대여 횟수를 5회에서 3회로 줄여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했다"며 "올해 청년들이 취업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와 종합평가, 보다 편리하게 치러요~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서울 CBT센터' 개소...경기도 이주민 편의성 높아져

외국인이 한국에서 체류하는데 필수인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사전평가와 종합평가를 볼 수 있는 시험장이 서울에도 개소했어요.

경기도 광명시와 대전시 등 2곳에 불과하던 시험장이 서울에도 생겨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뿐만 아니라 경기도 북부지역과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여요. 법무부와 (재)한국이민재단은 지난 12월 30일 이민자의 한국어와 한국문화 이해 등 기본소양 평가를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서울 컴퓨터 평가(Computer Based Test)센터 개소식을 가졌어요.

서울 종로구 인사동7길 12 백상빌딩 12층에 위치한 '서울 컴퓨터 평가센터'는 외국인의 체류허가, 영주권 및 국적신청 시 이수혜택을 부여하는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와 종합평가를 컴퓨터를 활용하여 상시적으로 볼 수 있는 시험장이에요.

사전평가는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교육단계 배정 및 한국어와 한국문화 이해도를 측정하는 시험이에요. 종합평가는 귀화허가를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 등 기본소양을 충분히 갖추었는 지를 측정하는 시험이에요.

이번에 개소한 서울센터는 2022년 3월 광명센터, 2023년 11월 대전센터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설치되는 컴퓨터 기반 평가장으로, 교통 접근성이 우수해 외국인주민들의 환영할 것으로 보여요.

특히 이번에 서울센터가 개소됨에 따라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프로그램 참여자 뿐만 아니라 지방에 거주하는 참여자들도 본인이 희망하는 일정에 맞춰 편리하게 평가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어요.

또한 상설 시험장이기 때문에 예약만 하면 아무 때나 와서 시험을 볼 수 있어요.

평가 신청방법과 평가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홈페이지(www.kiiptest)를 확인하면 돼요.

배상업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사회통합프로그램 시행 첫해인 2009년에는 참여인원이 약 1,300여명에 그쳤으나, 올해엔 7만명이 훌쩍 넘어 이민자가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데 매우 중요한 교육프로그램이 됐다"면서, "참여자들이 더 편리하게 사회통합 교육과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반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베트남어 33면, 러시아어 21면, 태국어 33면, 영어 28면〉

파파야스토리

Pre-evaluation and comprehensive evaluation of social integration programs, now conveniently available...'Social Integration Program Seoul CBT Center' Opens

A testing center has opened in Seoul where foreigners can take the preliminary and comprehensive evaluations of the social integration program, which is essential for staying in Korea.

The testing center, which used to be located in only two places - Gwangmyeong-si in Gyeonggi=do and Daejeon-si - has been opened in Seoul, which is expected to greatly increase convenience for not only foreigners living in Seoul but also foreign residents living in the northern and eastern regions of Gyeonggi-do.

On December 30, the Ministry of Justice and the Korea Immigration Service held an opening ceremony for the Seoul Computer Based Test Center, a social integration program to assess immigrants' basic skills, including Korean language proficiency and understanding of Korean culture.

The Seoul Computer Evaluation Center, located on the 12th floor of Baeksang Building, 12 Insa-dong 7-gil, Jongno-gu, Seoul, is a computer-based testing center where you can always take the Ministry of Justice's Social Integration Program pre-evaluation and comprehensive evaluation, which grants benefits when foreigners apply for residence permits, permanent residency, and citizenship.

The pre-evaluation is a test that measures the educational level assignment and understanding of Korean language and culture of foreigners who wish to participate in the social integration program.

The comprehensive evaluation is a test that measures whether the applicant for naturalization has sufficient basic knowledge of Korean language, Korean culture, and understanding of Korean society.

The newly opened Seoul Center is the third computer-based assessment center to be established nationwide, following the Gwangmyeong Center in March 2022 and the Daejeon Center in November 2023. It is expected to be welcomed by foreign residents due to its excellent transportation accessibility.

In particular, with the opening of the Seoul Center, not only program participants living in the metropolitan area, such as Seoul and Gyeonggi, but also those living in the provinces can conveniently participate in the evaluation according to their desired schedule. Also, since it is a permanent testing site, you can come and take the test at any time as long as you make a reservation.

For detailed information, such as application methods and evaluation schedules, please visit the Social Integration Program Evaluation website (www.kiiptest).

Bae Sang-eop, head of the Immigration Bureau, said, "In 2009, the first year of the social integration program, there were only about 1,300 participants, but this year, the number has surpassed 70,000, making it a very important educational program for immigrants to settle into Korean society." He added, "We will build various infrastructures so that participants can receive social integration education and evaluation more conveniently."

〈한글 기사 상단〉 파파야스토리

(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대표 고기복)는 지난 12월 29일 센터에서 설립 20주년 행사를 개최했다.

2004년 용인이주노동자쉼터로 시작해 오늘까지 명맥을 이어온 '이주인권문화센터'는 지난 20년간 지역사회 외국인주민의 복리를 위해 많은 일들을 했다.

이날 행사는 필리핀 이주민들을 중심으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여러 나라 외국인주민 2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영어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고기복 대표는 "사람이 마음으로는 계획을 세우지만 길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며 "처음에 이주민쉼터를 2년만 하려고 했으나 20년이 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이 있으셨던 것 같다. 앞으로도 잘 인도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고단함 내려 놓고 마음 나눠요!

(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설립 20주년 기념행사 개최

이후 참가자들은 '1218forALL' 20주년 영상을 시청했다. '1218forALL'은 지난 2000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기념하는 문구다.

이 영상에는 이주인권문화센터가 20년간 지역사회에서 펼친 한국어교실, 의료봉사, 산업안전교육, 제도개선활동, 이주민 인식개선, 문화체험, 사진전 등의 다양한 행사와 활동이 담겼다.

이후에는 용인필리핀이주노동자커뮤니티에 참여하는 필리핀 이주민들의 선서가 진행됐다. 선서 참가자들은 여러 사람 앞에서 커뮤니티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할 것을 다짐했다.

오전 행사가 끝난 후에는 필리핀과 베트남 이주민들이 십시일반 마련해 온 음식과 차를 나누었다.

이후 댄스, 노래자랑, 게임, 선물 교환, 경품 추첨 등의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여러 나라에서 온 이주민들이 어려운 삶 속에서도 고단함을 내려놓고 마음을 나눈 행사였다.

송하성 기자

다문화가족도 알아두면 좋을 지역사회 다양한 소식

연천군, 차탄천 얼음썰매장 개장 및 장학관 입사생 모집 등 안내

#겨울방학, 차탄천 얼음썰매장 개장

연천군 연천읍이장협의회와 부녀회는 차탄천 얼음썰매장을 개장했다고 10일 밝혔다.

차탄천 얼음썰매장은 '얼음이 꽁꽁! 썰매가 씽씽!'이라는 테마로 연천읍 현가리 차탄천 일원에 조성됐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며, 2월 중순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단 날씨에 따라 운영 시기 및 시간이 변경될 수 있다.

연천읍이장협의회는 현재 50여 대의 썰매와 함께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쉼터와 먹거리 부스, 이동식 화장실 등 이용 편의 공간을 마련했다. 얼음썰매장 이용은 무료이며 썰매 대여료는 2시간에 3000원이다. 연천읍은 매점 3000원 이용권을 발행해 썰매장 내 먹거리 부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임달수 연천읍이장협의회장은 "많은 방문객이 썰매장에 오셔서 지역 경기에 활기를 불어넣고 행복한 추억으로 연천군을 기억하기를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준비와 운영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천군 장학관 2025년 입사생 모집

연천군은 대학에 입학한 지역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학업 편의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연천군 장학관(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소재)의 2025년도 신규 입사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선발인원은 78명으로 접수 기간은 오는 17일까지다. 연천군 장학관에 우편 및 방문 접수할 수 있으며, 연천군 통일평생교육원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최종합격자는 2월 11일 발표 예정이며, 지원 자격은 2년제 이상 대학 신입생 또는, 재학생으로 선발 공고일 현재 본인이나 보호자가 연천군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선발방법은 일반전형의 경우 학업성적 80%와 위원회 평가 20%를, 기회균등 전형의 경우 생활 정도 80%와 위원회 평가 20%를 합산한 점수로 하며 입사생 선발 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장학관 월 이용료는 식사비를 포함해서 12만원이다. 자세한 사항은 장학관에게 문의하면 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384명 확정

연천군은 법무부의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 결과 근로자 384명을 배정받았다고 7일 밝혔다. 이는 경기도에서 네 번째로 많은 인원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이란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농업 분야에 최대 8개월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연천군은 지난해 10월 2주간의 홍보기간을 거쳐 수요조사를 한 결과 총 103개 농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384명을 신청, 법무부에 유치 신청을 한 결과 신청 인원 전원을 배정받았다. 지난해 290명을 배정받은 것에 비해 94명이 늘어난 만큼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가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지난달 31일 농가주 102명이 모인 가운데 근로계약서 작성을 마쳤다. 또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는 농가 수요에 대비해 교류 해외 지자체 확대도 추진 중이다."라며 "근로자 자격심사를 강화해 양질의 근로자를 농가에 배치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된 농업경영 및 농가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의 기자

연천군, 농촌지도 시범사업 접수해

연천군농업기술센터는 1월 31일까지 농촌지도시범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농촌지도시범사업은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원등 농업유관기관에서 개발한 농업신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총 25억67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밥쌀용 고품질 신품종 생산 및 확대보급 시범 △로컬푸드 무인 즉석 도정 판매 시범 △ICT 이동식베드 이용 무농약 인삼 생산기술 시범 △이상고온 대응 시설채소 안정생산 시범사업 등 41개 사업(56개소)을 추진한다. 대상은 연천군에 거주(주민등록)하는 농업인으로 최근 3년(2022~2024년) 연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한 보조금 500만 원 이상의 시범사업을 하지 않은 농업인이다.

연천군농업기술센터는 현지조사를 거친 뒤 2월 중 열리는 농업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원희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다양한 지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연천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의 기자

"Where can I get tested if I'm concerned about STDs and AIDS?"

What is World AIDS Day?

Last December 1st was 'World AIDS Day'. For this reason, campaigns were carried out all over Korea to provide correct information about AIDS and eliminate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against those infected. AIDS refers to a state in which the immune system is weakened due to infection with the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 It is not transmitted through casual contact, and infection can be prevented through safe sex.

In the early stages of AIDS infection, symptoms similar to a cold may appear, such as headache, fever, sore throat, and skin rash. Therefore, if infection is suspected, it is important to get tested for HIV 4 weeks after the suspected time.

How do I get tested for AIDS?

There are two ways for foreigners to get tested for AIDS in Korea. First, you can get tested through the 'Foreigner AIDS Prevention Support Center.'

You can get tested in many areas, including Seoul and Ansan, Gyeonggi-do, but since they are not always available, you must call first. In particular, you can get tested for various STDs along with AIDS. You can get tested for free and you don't have to reveal who you are. It's good that you can get the results within 20 minutes of the test. The second way is to get tested at a public health center nationwide. It's free and anonymous, but communication is difficult outside of Korean, and it usually takes about a week to get the test results.

What is the Foreigner AIDS Prevention Support Center?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operates the 'Foreigner AIDS Prevention Support Center' (www.khap.org). Located in Seongbuk-gu, Seoul, the 'Foreigner AIDS Prevention Support Center' provides comprehensive AIDS-related services, including AIDS screening and counseling, for foreigners residing in Korea. It also provides various information about AIDS to foreigners and provides various support services to foreigners infected with AIDS or patients.

The 'Foreigner AIDS Prevention Support Center' is located in Seoul (1st floor, 209 Dongsomun-ro, Seongbuk-gu) and also has a testing facility in Ansan, Gyeonggi-do (4th floor, 15-1 Wongok-ro, Danwon-gu, Ansan-si), but it is not always open, so you must inquire by phone.

We also conduct inspections in major cities nationwide as needed. For inquiries, call 02-927-4322.

〈한글 기사 24면〉 파파야스토리

Làm cách nào để có thể tìm được điểm đến khi du lịch tại Hàn Quốc?

Bộ Thủy sản và Hải dương và dịch vụ cổng thông tin lớn nhất Hàn Quốc 'Naver', hiện đang hỗ trợ dịch vụ 'Tìm đường giao thông' thông qua Naver Maps để người dân và người nước ngoài, có thể sử dụng phương tiện giao thông công cộng dễ dàng và thuận tiện hơn.

'Naver Map (map.naver.com)' nổi tiếng ở Hàn Quốc là dịch vụ hỗ trợ tìm đường nhanh nhất bằng ô tô và phương tiện giao thông công cộng (xe buýt, tàu hỏa, tuyến hàng không). Trong đó bao gồm cả tàu chở khách.

Để sử dụng dịch vụ này, các bạn cần truy cập trang 'Naver Map' và tìm kiếm điểm đến theo tên đảo, nhà ga, v.v. và có thể kiểm tra các thông tin như tuyến đường hoạt động tàu khách, thời gian và giá vé theo thời gian thực tế.

Trong tương lai, dự kiến sẽ hỗ trợ thêm dịch vụ tìm kiếm điểm đến và đặt vé cùng một lúc. Hiện tại, các bạn có thể đặt chỗ vé tàu và vé xe buýt thông qua trang tìm kiếm Naver Map.

Hỗ trợ 4 ngôn ngữ

Ngay cả một dịch vụ tốt như thế nào đi chăng nữa cũng sẽ không có ích nhiều đối với người nước ngoài nếu không được hỗ trợ bằng nhiều loại ngôn ngữ. Thế nên, 'Naver Map' cũng đã hỗ trợ dịch vụ tìm kiếm đa ngôn ngữ bằng tiếng Anh, tiếng Trung và tiếng Nhật cho người nước ngoài khi đến du lịch tại Hàn Quốc.

Naver Maps không chỉ hiển thị một cách nhanh chóng về thông tin điểm đến và thuận tiện cho người nước ngoài mà còn cung cấp thông tin đánh giá tiếng Hàn và thông tin về các địa danh bằng nhiều ngôn ngữ. 'Naver Map', là nơi cung cấp thông tin về các địa điểm hàng đầu tại Hàn Quốc, và hỗ trợ bản dịch về các bài đánh giá những trải nghiệm cụ thể của người dùng đã ghé thăm nên rất hữu ích cho các bạn người ngoài muốn khám phá những địa danh tại Hàn Quốc.

Đặc biệt, công cụ dịch thuật về các địa điểm sẽ ưu tiên đối với những hàng quán được người dùng người nước ngoài ưa chuộng. Và các dịch vụ đa ngôn ngữ có thể được sử dụng tùy thuộc vào cài đặt ngôn ngữ tại hệ điều hành của điện thoại thông minh hoặc cài đặt ngôn ngữ trong ứng dụng Naver Map. Hiện tại, Naver Maps là dịch vụ bản đồ trong nước duy nhất hỗ trợ 4 loại ngôn ngữ, trong đó có tiếng Hàn, tiếng Anh, tiếng Trung và tiếng Nhật.

〈한글 기사 23면〉

파파야스토리

"Naver Map", บริการค้นหาเส้นทางด่วนโดยใช้รถยนต์และการขนส่งสาธารณะในหลายภาษา

กระทรวงมหาสมุทรและการประมงรวมทั้งบริการพอร์ทัลข้อมูลที่ใหญ่ที่สุดของเกาหลี "Naver"ให้บริการ "การค้นหาทางเรือโดยสาร"ผ่าน Naver Maps เพื่อให้ประชาชนรวมถึงชาวต่างชาติสามารถใช้เรือโดยสารได้ง่ายและสะดวกยิ่งขึ้น

"Naver Map (map.naver.com)" มีชื่อเสียงในเกาหลีในฐานะบริการที่ค้นหาเส้นทางที่เร็วที่สุดในการค้นหาเส้นทางโดยใช้รถยนต์และการขนส่ง สาธารณะ (รถบัส, รถไฟ, เครื่องบิน) รวมถึงเรือโดยสารด้วย

หากต้องการใช้งาน ให้เข้าไปที่ไซต์ "Naver" และค้นหาจุดหมายปลายทางของท่าน เช่น เกาะ ท่าเรือ ฯลฯ และสามารถดูข้อมูล เช่น เส้นทาง เดินเรือโดยสาร, เวลา, และค่าโดยสารแบบเรียลไทม์ เป็นต้น

ในอนาคต หลังจากค้นหาจุดหมายปลายทางแล้ว มีการวางแผนที่จะให้บริการที่ช่วยให้สามารถซื้อตั๋วทั้งหมดได้ในครั้งเดียว โดยในปัจจุบัน

สามารถจองรถไฟและรถบัสผ่านการค้นหาแผนใน Naver Map ได้เช่นกัน

นอกจากนี้ยังรองรับ 4 ภาษาอีกด้วย

แม้แต่บริการที่ดีเช่นนี้ก็จะไม่มีประโยชน์สำหรับชาวต่างชาติหากไม่มีการให้บริการในหลายภาษา "Naver Map" ยังรองรับบริการค้นหาใน หลายภาษา ได้แก่ ภาษาอังกฤษ, จีน, และญี่ปุ่นสำหรับ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ท่องเที่ยวในเกาหลี

Naver Mapไม่เพียงแต่แสดงให้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ราบถึงวิธีที่เร็วและสะดวกที่สุดในการไปยังสถานที่ที่ต้องการเท่านั้น แต่ยังให้ข้อมูลรีวิวภาษาเกาหลีและข้อมูลสถานที่ในหลายภาษาอีกด้วย

"Naver Map"ซึ่งให้ข้อมูลสถานที่ที่ใหญ่ที่สุดในเกาหลี ให้บริการการแปลรีวิวจากประสบการณ์โดยละเอียดของผู้ใช้ที่เคยเยี่ยมชมสถานที่นั้นจริง และมีประโยชน์มากสำหรับผู้อาศัยชาวต่างชาติในการสำรวจสถานที่ที่น่าเที่ยว

โดยเฉพาะอย่างยิ่ง ตัวกรองการแปลสถานที่ได้รับการสนับสนุนเป็นอันดับแรกสำหรับอุตสาหกรรมร้านอาหารซึ่งเป็นที่ต้องการอย่างมากจากผู้ใช้ชาวต่างชาติ

บริการหลายภาษาสามารถใช้ได้ตามการตั้งค่าภาษา OS ของสมาร์ทโฟนหรือการตั้งค่าภาษาในแอป Naver Maps ซึ่ง Naver Maps เป็นบริการแผนที่ภายในประเทศเพียงแห่งเดียวที่รองรับ4 ภาษา ได้แก่ ภาษาเกาหลี, อังกฤษ, จีน, และญี่ปุ่น

〈한글 기사 23면〉

파파야스토리

"如果担心性病和艾滋病，在哪里接受检查呢?" 이주민을 위한 에이즈검사 등 안내

世界艾滋病日是什么?

今年12月1日是世界艾滋病日。因此韩国各地举办了许多活动，旨在提供正确的艾滋病相关信息，并消除对感染者的偏见与歧视。

艾滋病(AIDS)是指感染人类免疫缺陷病毒(HIV)，免疫功能下降的状态。通过日常接触不会感染，通过安全的性关系可以预防感染。

艾滋病感染初期会出现头痛、发热、咽喉痛、皮肤斑疹等与感冒相似的症状。因此，如果怀疑感染的话，在怀疑感染时的4周后接受HIV检查非常重要。

如何接受艾滋病检查?

在韩国，外国人想接受艾滋病检查有两种方法。首先通过"外国人艾滋病预防支援中心"接受检查。

可以在首尔和京畿道安山等多个地区接受检查，但由于不是经常运营，所以需提前电话咨询。

特别是在接受艾滋病检查的同时，还可以接受各种性病检查。检测完全免费且匿名，且在20分钟内即可获得检测结果，非常便利。

第二种方法是可在全国的保健所接受检查。免费匿名检查是一样的，但除了韩语外其他语言沟通较为困难，通常需等待1周左右才能获得检测结果。

外国人艾滋病预防支援中心是什么?

韩国疾病管理本部正运营"外国人艾滋病预防支援中心"(www.khap.org)。 位于首尔城北区的"外国人艾滋病预防支援中心"为居住在韩国的外国人提供艾滋病检查和咨询等艾滋病相关综合服务。另外，还向外国人宣传艾滋病各种信息，并为感染艾滋病或艾滋病患者的外国人提供各种支援服务。

"外国人艾滋病预防支援中心"位于首尔(城北区东小门路209、1楼)，京畿道安山市(安山市檀园区元谷路15-1、4楼)也有检查设施，但并非总是开放的，所以必须提前电话咨询。

根据需求，还会在全国主要城市进行检查。咨询电话：02-927-4322。

〈한글 기사 24면〉

파파야스토리

가족기능 회복, 온가족보듬사업 함께!

화성시가족센터, 보듬매니저 오리엔테이션 개최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온가족보듬사업 보듬매니저를 대상으로 지난 1월 7일 센터 교육실에서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

온가족보듬사업은 취약.위기가족이 가진 복합적 문제 해결 및 욕구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상담과 사례관리를 통해 가족기능 회복과 정서.경제적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운영 중이다. 지원이 필요한 가족을 대상으로 보듬매니저를 파견해 학습 정서, 생활 도움, 긴급위기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사업의 활동내용 및 일정에 관해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다. 보듬매니저는 1월부터 12월까지 주 1회 이상 선정된 가정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화성시가족센터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화성 시민의 건강가정 파트너로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발굴하도록 고민하고 있다. 온가족보듬사업 프로그램 관련 문의는 화성시 가족센터 상담사례팀(070-7774-7085)으로 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화성특례시,마을공동체 주민 제안 공모사업 참여자 모집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주민 주도의 마을문제 해결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2025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참여자를 2월 1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5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은 주민 스스로 마을문제를 직접 발견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모집은 일반공모는 ▷씨앗 단계 ▷줄기 단계 ▷열매 단계로 구분되고 기획공모는 ▷마을네트워크 △공간활성화 ▷지정주제로 구분하여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미디어▷주민자치회 연계▷기후위기 대응 ▷마을자원 살리기를 지정 주제로 정했다.

총사업비는 2억 원으로 약 48개 공동체에 대해 지원하며, 사업 유형에 따라 공동체당 최소 2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자격은 화성시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을 두고 있는 3명 이상 10명 이하의 주민 모임이다. 공모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공동체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화성시 소통자치과로 제출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Giờ đây sẽ có thể tham gia kỳ thi đánh giá xếp lớp và đánh giá toàn diện của Chương trình hội nhập xã hội một cách dễ dàng hơn~

Tại Seoul hiện cũng đã mở thêm một Trung tâm tổ chức thi đánh giá xếp lớp và đánh giá toàn diện Chương trình hội nhập xã hội. Đây là một trong những chương trình học thiết yếu đối với người nước ngoài khi sinh sống tại Hàn Quốc~

Trước đây, các Trung tâm tổ chức thi chỉ được mở tại 2 khu vực là TP.Gwangmyeong thuộc Tỉnh Gyeonggi và TP.Daejeon. Nhưng nay đã được mở tại Seoul, dự kiến sẽ không chỉ giúp các bạn người nước ngoài cư trú tại khu vực Seoul mà còn giúp các bạn cư trú ở các khu vực phía bắc và phía đông Tỉnh Gyeonggi có thể dễ dàng tham gia kỳ thi hơn~

Vào ngày 30 tháng 12 vừa qua, Bộ Tư pháp và Tổ chức di dân Hàn Quốc đã tổ chức lễ khai trương Trung tâm thi đánh giá trên máy tính (Computer Based Test) tại Seoul đối với Chương trình hội nhập xã hội nhằm đánh giá các kỹ năng cơ bản của người nhập cư, trong đó có năng lực tiếng Hàn và hiểu biết về văn hóa Hàn Quốc.

'Trung tâm thi đánh giá máy tính Seoul', tọa lạc tại tầng 12 của Tòa nhà Baeksang, số 12 Insa-dong, 7-gil, Jongno-gu, Seoul, sẽ tổ chức thi đánh giá xếp lớp và thi đánh giá toàn diện đối với Chương trình hội nhập xã hội của Bộ Tư pháp qua máy tính. Đây là một trong những chương trình mang lại nhiều lợi ích khi người nước ngoài đăng ký xin gia hạn, visa vĩnh trú và quốc tịch.

Kỳ thi đánh giá xếp lớp là kỳ thi đánh giá năng lực tiếng Hàn và mức độ hiểu biết về văn hóa Hàn Quốc để xếp lớp đối với người nước ngoài tham gia Chương trình hội nhập xã hội.

Kỳ thi đánh giá toàn diện là kỳ thi nhằm đánh giá đối với người nộp đơn xin nhập tịch về các mặt kiến thức cơ bản như tiếng Hàn, văn hóa Hàn Quốc và mức độ hiểu biết về xã hội Hàn Quốc.

Trung tâm Seoul vừa được mở này là Trung tâm thi đánh giá dựa trên máy tính thứ ba được thành lập trên toàn quốc, sau Trung tâm Gwangmyeong được mở vào tháng 3 năm 2022 và Trung tâm Daejeon được mở vào tháng 11 năm 2023. Trung tâm này dự kiến sẽ được đông đảo người nước ngoài chào đón do có khả năng tiếp cận giao thông thuận tiện hơn.

Đặc biệt, với việc mở Trung tâm Seoul, không chỉ những người sinh sống tại các khu vực đô thị như Seoul và Gyeonggi, mà cả những người hiện đang sinh sống tại các địa phương cũng sẽ có thể dễ dàng hơn khi tham gia kỳ thi theo lịch trình mong muốn. Ngoài ra, vì đây là địa điểm thi cố định nên người tham gia dự thi có thể đến và thi bất kỳ lúc nào khi đã đặt lịch trước.

Để biết thông tin chi tiết về cách đăng ký cũng lịch thi đánh giá, các bạn có thể truy cập trang web Kỳ thi đánh giá Chương trình hội nhập xã hội (www.kiiptest).

Bae Sang-eop, Cục trưởng Cục Chính sách người nước ngoài và xuất nhập cảnh cho biết "Năm 2009, năm đầu tiên của Chương trình hội nhập xã hội, chỉ có khoảng 1.300 người tham gia, nhưng đến năm nay, con số đã vượt quá 70.000 người, cho thấy đây là một chương trình giáo dục rất quan trọng đối với người nhập cư khi ổn định cuộc sống tại Hàn Quốc. Chúng tôi sẽ xây dựng nhiều cơ sở hạ tầng đa dạng hơn để những người tham gia có thể tiện lợi hơn khi tham gia các chương trình giáo dục cũng như các kỳ thi đánh giá".

〈한글 기사 28면〉

파파야스토리

กระทรวงยุติธรรมเปิด"โปรแกรมบูรณาการทางสังคมศูนย์CBT กรุงโซล" 이주민 편의성 높아져

ศูนย์สอบได้เปิดขึ้นในกรุงโซล ซึ่งชาวต่างชาติสามารถการประเมินเบื้องต้นและครอบคลุมของโปรแกรมบูรณาการทางสังคมซึ่งจำเป็นสำหรับการพำนักในเกาหลี

การเปิดศูนย์สอบในกรุงโซล ซึ่งก่อนหน้านี้มีเพียง 2 แห่งคือเมืองกวางมยองและเมืองแดจอน 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 คาดว่าจะเพิ่มความสะดวกสบายให้กับไม่เพียงแต่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อาศัยอยู่ในกรุงโซลเท่านั้น แต่ยังรวมไปถึงผู้อาศัย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อาศัยอยู่ในภาคเหนือ และภาคตะวันออกของ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อีกด้วย

เมื่อวันที่ 30 ธันวาคมที่ผ่านมา กระทรวงยุติธรรมและมูลนิธิการย้ายถิ่นเกาหลีได้จัดพิธีเปิดศูนย์สอบทางคอมพิวเตอร์ในกรุงโซล(Computer Based Test)ซึ่งเป็นโปรแกรมบูรณาการทางสังคมเพื่อประเมินความรู้พื้นฐานของผู้ย้ายถิ่น รวมถึงความเข้าใจในภาษาและวัฒนธรรมเกาหลี

"ศูนย์ประเมินผลคอมพิวเตอร์โซล"ตั้งอยู่บนชั้น12 ของอาคารแพกซาง12 อินซาดง7-กิลเขตจงโนกรุงโซล โดยเป็นสถานที่ทดสอบที่สามารถใช้คอมพิวเตอร์ในการประเมินเบื้องต้นและการประเมินที่ครอบคลุมของโปรแกรมบูรณาการสังคมของกระทรวงยุติธรรมที่ให้สิทธิประโยชน์ในการพักอาศัยถาวรและการสมัครสัญชาติของชาวต่างชาติ

การประเมินเบื้องต้นเป็นการทดสอบที่กำหนดระดับการศึกษาของ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ต้องการเข้าร่วมในโปรแกรมบูรณาการทางสังคม และวัดความเข้าใจในภาษาและวัฒนธรรมเกาหลี

การประเมินที่ครอบคลุมคือการทดสอบเพื่อวัดว่าบุคคลที่ยื่นคำร้องขอแปลงสัญชาติมีความรู้พื้นฐานเพียงพอหรือไม่ เช่น ภาษาเกาหลี, วัฒนธรรมเกาหลี, และความเข้าใจในสังคมเกาหลี เป็นต้น

ศูนย์โซลซึ่งเปิดในครั้งนี้เป็นศูนย์ประเมินผลโดยใช้คอมพิวเตอร์แห่งที่ 3 ที่จัดตั้งขึ้นในประเทศ รองจากศูนย์กวางมยองในเดือนมีนาคม 2022 และศูนย์แดจอนในเดือนพฤศจิกายน 2023คาดว่าจะได้รับการต้อนรับจากผู้อาศัยชาวต่างชาติเนื่องจากเข้าถึงการคมนาคมได้ง่าย

โดยเฉพาะอย่างยิ่ง ด้วยการเปิดศูนย์โซล ไม่เพียงแต่ผู้เข้าร่วมโปรแกรมที่อาศัยอยู่ในเขตเมืองใหญ่ เช่น โซลและ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 แต่ผู้เข้าร่วมที่อาศัยอยู่ในพื้นที่ชนบทสามารถเข้าร่วมการประเมินได้อย่างสะดวกตามกำหนดเวลาที่ต้องการ นอกจากนี้เนื่องจากเป็นศูนย์สอบถาวรจึงสามารถมาสอบได้ตลอดเวลาตราบใดที่ท่านทำการจอ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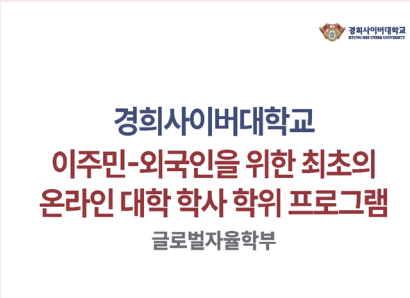
สำหรับรายละเอียดเพิ่มเติม เช่น วิธีการสมัครเข้ารับการประเมินและกำหนดการประเมิน โปรดตรวจสอบที่เว็บไซต์การประเมินผลโปรแกรม บูรณาการทางสังคม (www.kiiptest)

แบ ซางออบ หัวหน้ากองนโยบายคนเข้าเมืองและชาวต่างชาติ กล่าวว่า "ในปี 2009 ซึ่งเป็นปีแรกของการดำเนินการตามโปรแกรมบูรณาการทางสังคม จำนวนผู้เข้าร่วมมีเพียงประมาณ 1,300 คน แต่ปีนี้มีจำนวนเกิน 70,000 คน ทำให้เป็นโปรแกรมการศึกษาที่สำคัญมากสำหรับผู้ย้ายถิ่นที่จะตั้งถิ่นฐานในสังคมเกาหลี" และเผยว่า "เราจะสร้างโครงสร้างพื้นฐานเพื่อให้ผู้เข้าร่วมได้รับการศึกษาบูรณาการทางสังคมและการประเมินผลได้สะดวกยิ่งขึ้น"

〈한글 기사 28면〉

파파야스토리

Earn a bachelor's degree from a prestigious Korean university and achieve your dreams as a foreign worker and multicultural family member!



What is the dream of foreign workers living in Korea? It is to have a stable visa, stay with their family, and earn a lot of money. The Korean government recently announced a new visa policy to respond to the simple and obvious wish of immigrants. However, despite the K-point policy for obtaining an E-7-4 visa and the regional visa policy for obtaining an F-2-R visa, foreign workers are having a hard time trying.

What about multicultural families who are unable to adapt to Korean society and have no choice but to work in factories or restaurants? What can multicultural families who want better jobs do to adapt to Korean society and get jobs?

It is to improve Korean language skills and graduate from university. However, it is not easy for immigrants to work and study Korean at the same time. Moreover, it is very difficult to graduate from university in Korea because it costs a lot of money and time. However, a bachelor's degree program that can easily overcome these two difficulties has been created!

Is it possible to graduate from university in Korea?

Kyung Hee Cyber University (President Chang-gu Byun) established a Global Autonomous Department with support from the Korean Ministry of Education and is providing stable and high-quality education services for foreign residents. Since all classes and exams at this university are conducted online, it is possible to graduate from university while working.

What about tuition? Compared to other universities in Korea where the annual tuition is 7 to 9 million won, Kyunghee Cyber University Global Autonomous College provides a 50% scholarship to all students, so the annual tuition is only 1.512 million won. In addition, you can receive more scholarship benefits through agreements.

First, if you enter this university without a major, the first year course focuses on adapting to college life and strengthening basic capabilities. Major subjects include College Korean 1 and 2, Understanding Korean Society and Universities, Major Exploration and Learning Strategies, and Global Leadership.

Before students choose their real major, they can set their own career path through career planning and exploring various majors. After that, in the second to fourth years, they can choose various majors such as IT, electronic information, management, tourism, and Korean and proceed with in-depth studies.

What should I do if I can't speak Korean?

You can enroll in Kyunghee Cyber University even if you don't speak Korean! Regardless of your Korean language skills, if you are notified of your acceptance, you can take a stepping stone course, or Korean language training, at the university's Korean language center before enrolling. It's also good because you can get 6 credits of credit.

After admission, you can improve your skills by taking university Korean classes and Korean language training courses alternately. However, in order to follow the Korean classes, you need to have a TOPIK level 3 or higher. If a student obtains a TOPIK level 4, he or she can also receive a scholarship.

What are the advantages after graduating from college?

So what advantages does graduating from Kyung Hee Cyber University have in Korea? Kyung Hee Cyber University is the parent company of Kyung Hee University, a prestigious private university in Korea, and of course, a four-year degree is recognized.

In particular, if you have a bachelor's degree recognized, you can get 20 points toward obtaining an E-7-4 visa, and since you can easily obtain a TOPIK level 4 in Korean language skills during your university graduation course, you can get an additional 120 points.

It can be said that obtaining an E-7-4 visa is not difficult. Even in the case of regional specialization visas, which are of great interest to foreign workers these days, foreigners with a Korean university diploma receive extra points and are at an advantage.

Lee Ji-eun, a Vietnamese who graduated from a university in Korea, said, “Before I started studying at a Korean university, I felt like I didn’t belong in Korean society.” “But after graduating, I was recognized by many Koreans and gained confidence that I was a part of Korean society. It was especially helpful in understanding Korean society and participating as a member of it.”

Scholarship benefits and medical expense reduction

Kyung Hee Cyber University originally has low tuition, but students in the Global Autonomous Department can reduce their tuition burden through various scholarship systems such as entrance scholarships, living scholarships, and academic scholarships.

Recently, 97.3% of freshmen and transfer students at Kyung Hee Cyber University received scholarship benefits, and in particular, students in the Global Autonomous Department receive a 50% scholarship benefit from admission to graduation.

In addition, Kyung Hee Cyber University provides students with a 10% discount on medical expenses at Kyung Hee University Hospital and Gangdong Kyung Hee University Hospital, and provides free medical translation services, especially to immigrants. Kyung Hee Cyber University's Global Autonomous Studies Department provides various knowledge and integrated education necessary for life in Korea, so you can become a global talent recognized by your company CEO and colleagues.

How can I get admission?

Kyung Hee Cyber University Global Autonomous Studies Department will be accepting applications for the first semester of the 2025 academic year until January 14, 2025.

The second round of applications will be accepted until February 14. To apply, access the Kyung Hee Cyber University Admissions Support Center website (go.khcu.ac.kr) via PC or mobile, fill out the application form, fill out the selection materials, and go through other procedures.

“We want to provide opportunities for immigrants and international students to develop their academic and practical skills so that they can confidently participate in the global society,” said Professor Seo Jin-sook of Kyung Hee Cyber University’s Department of Global Autonomous Studies. “Studying at Kyung Hee Cyber University will be of great help to immigrants in laying the foundation for a stable and successful life in Korea.”

For more detailed information regarding admission, please visit the Admissions Support Center website (go.khcu.ac.kr) or call the Admissions Counseling Hotline (02-959-0000).

〈한글 기사 지난호 5면〉

파파야스토리

"화성 지역사회 다문화가족에게 필요한 2025년 정보 확인해요"

화성시가족센터, 이중언어교육지원사업 및 요리교실, 다문화어린이합창단원 모집 등

#다문화어린이합창단원 모집

화성시가족센터는 '다(多)문화어린이합창단' 단원을 추가 모집한다.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하고 합창단 수업에 열심히 참여할 수 있는 8~13세(초등) 다문화.비다문화 자녀로 신청은 오는 1월 20일까지 받는다.

오디션은 1월 21일 오전 10시 지정곡인 '노을', '하늘나라 동화', '넌 알 수 있어라고 말해주세요' 중 1곡을 선택해 참여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화성시가족센터 특성화사업팀(070-8831-8431)으로 하면 된다.

#결혼이민자 '부모코칭 클래스'

화성시가족센터는 이중언어교육지원사업인 '부모코칭 클래스'에 참여할 초등기 자녀를 둔 결혼이민자를 모집한다.

교육은 오는 2월 3일부터 2월 24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총 4회 진행되며, 프로그램은 '성퀴즈 온 더 양육', '마법의 성', '부모 자녀의 감정 비밀번호', '우리부모 파이팅!'이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은 1월 24일까지 받으며, 전화(특성화팀 070-7774-7080) 또는 방문 신청 후 센터 홈페이지에서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된다.

#결혼이민자 위한 요리교실 모집

화성시가족센터는 요리교실 '한국생활 처음'에 참여할 입국한지 5년 이내 결혼이민자 10명을 모집한다.

한국 밑반찬요리 5회기와 다양한 나라 요리 1회 기가 오는 2월 5일부터 3월 12일까지 매주 수요일 진행된다.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며, 장소는 유엔아이센터 4층 요리실2다. 전화(특성화팀 070-7774-7080) 또는 방문 신청 후 홈페이지에서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된다.

#군 소음피해보상금 신청 접수

화성시(시장 정명근)는 2월 28일까지 2025년 군 소음피해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2025년 신청 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거나 2024년 이전 보상 기간(2020.11.27.~2023.12.31.)에 대해 보상금을 미신청한 사람이다. 앞서 화성시는 보상금 지급 신청을 위한 안내문과 신청 서식을 소음대책지역 21,060세대에 우편으로 발송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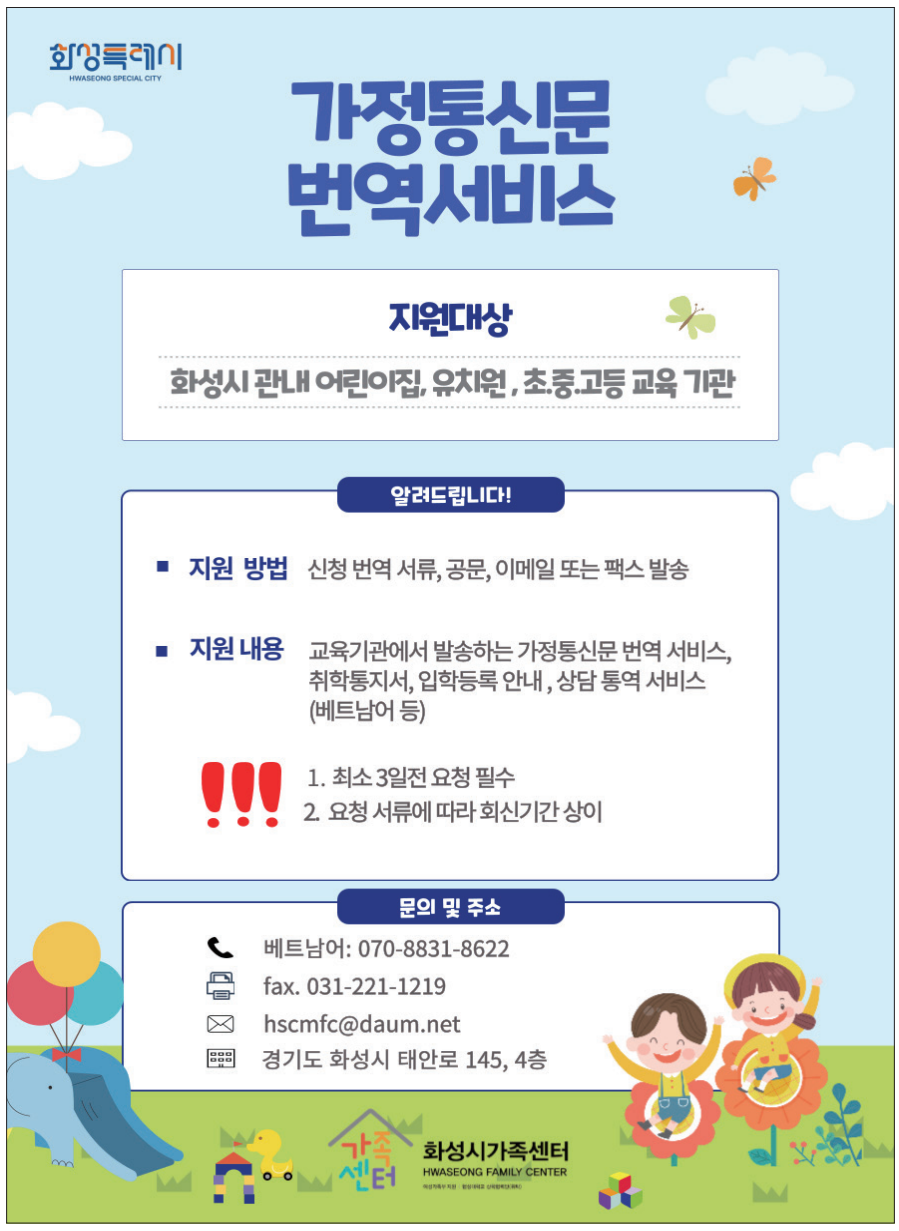
신청은 안내문의 QR코드를 통해 모바일 및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하거나, 화산동 행정복지센터 2층, 동부출장소 별관 1층 소회의실, 양감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마련된 접수처에서 현장 신청도 할 수 있다. 보상금은 화성시 지역소음대책심의원회를 거쳐 5월 말 지급 결정 통지, 8월 말 개별 지급될 예정이다. 보상금액은 소음대책지역 제1종~제3종 구역별로 다르다. 자세한 군 소음피해보상금 지급 절차, 신청 서식 등은 화성시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겨울 호흡기 감염병 유행 주의

화성특례시가 최근 전국적으로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 발생 증가와 설 연휴 기간 감염병 집단유행 가능성이 우려돼 겨울철 호흡기 감염병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4주간 독감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4년 12월 말 기준 1,000명당 73.9명으로 3주 전과 대비했을 때 10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해외에서는 호흡기 감염병인 홍역이 유행 중으로 24년도에 국내에서 49명의 환자가 발생했으나 모두 해외에서 감염된 사례인 만큼 해외여행을 계획 중이면 홍역 백신 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김영의 기자



"모든 가족상담으로 건강한 삶 꾸려요"

화성시가족센터, 전문상담사 위촉 가족상담 시작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건강가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가족 상담 전문기관으로 2025년 오랜 경험이 축적된 전문상담사를 위촉해 가족 상담 서비스를 시작한다.

가족 상담 서비스는 지역사회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도와주며, 궁극적으로는 건강한 가족관계를 유지해 가족공동체의 회복과 건강한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센터 관계자는 "최근 한국 사회는 급격한 사회 변동을 경험하면서, 가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가정 위기의 시대에 직면해 있다."라며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과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들은 가족 내부의 갈등, 의사소통 문제, 세대 간의 차이 등 이러한 문제들은 종종 가족의 기능을 저하할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심리적 안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화성시가족센터는 지난 1월 3일 센터 소속 전문 및 자원상담사 19명을 대상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 위촉 계약서를 작성했다.

상담사들의 상담 시간 및 요일을 배정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화성시 가족센터는 1월6일부터 가족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상담은 병점에서 주간 상담 월~금 10시~17시, 야간 상담 화~금 18시~20시 진행되고 있다. 봉담, 남양분소는 주간 상담 매주 화요일 10시~17시이며, 동탄 호수 분소는 주간 상담 화~금 10시~17시에 진행된다. 오는 4월 화성시가족센터 향남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향남에서도 상담이 가능하다.

상담 신청은 화성시가족센터 홈페이지와 전화(상담사례팀 031-225-0333)로 받는다.

한편, 협성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화성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화성시가족센터는 건강한 가정은 건강한 사회의 출발점이라는 생각으로 전문성을 발휘하여, 다양한 가정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가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건강한 가족문화와 지역공동체문화를 확산하여 '기분좋은 변화 행복화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영의 기자

한눈에 보는 화성시 아동정책

화성 아이사랑키움 통합시스템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시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아동 대상 사업 및 정책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화성 아이사랑키움 통합시스템'의 기능을 고도화해 개편했다고 6일 밝혔다.

'화성 아이사랑키움 통합시스템'은 생애주기별 아동 대상 사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23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으로 방대한 아동 관련 정책 및 사업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번 개편은 다양한 아동 관련 사업 및 정책 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제공해 시민들의 정보 접근성과 편의성 향상을 위해 추진됐다.

기능 고도화에 따라, 연관어 검색 기능을 포함한 검색창이 새롭게 설치됐으며, 이를 통해 이용자는 보다 직관적이고 신속하게 원하는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또한, 0세부터 17세까지 1살 단위로 세분화된 연령별 지원사업 검색이 가능해져 각 연령에 적합한 아동 대상 사업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됐다.

특히 화성시 어린이·청소년의회의 정책 제안을 반영해 아동정책 제안 창구가 신설됐다. 이 창구는 아동들이 직접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추후 접수된 의견은 화성시 어린이·청소년의회의 정책의제로 활용될 계획이다.

화성시는 이번 시스템 개편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아동정책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시스템 활용 통계자료를 분석해 지속적인 시스템 모니터링으로 더욱 발전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화성 아이사랑키움 통합시스템'기능 고도화 개편은 아동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2025년 특례시 출범과 함께 아동을 위한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시민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성시는 지난 12월 21일 시청 대강당에서 제8대 어린이청소년의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어린이청소년의회는 '화성아이사랑키움' 통합시스템의 새로운 기능인 '아동의원에게 바란다'를 통해 제안된 정책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제안된 내용은 어린이청소년의회의 정책 의제로 채택하고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이지은 기자